

이 발표논문집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7-362-B00013)

2014년도 제1차 HK국내학술회의

유라시아 민족주의: 갈등과 통합의 정치

■ 일 시 2014년 3월 7일(금) 10:30~18:15

■ 장 소 한양대학교 대학원 7층 화상회의실

■ 주 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APRC)

■ 후 원 한국연구재단

■ 프로그램

2014년 3월 7일(금)

제 1세션(10:30 – 12:30)

- 사회자: 엄구호(한양대학교)
- 발표자: 우평균(한양대) : 러시아 민족주의와 푸틴주의: 지향성 및 평가
김태연(서울대) :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의 전개
박정호(한국외대) :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전개
- 토론자: 김정기(한양대), 유진숙(배재대), 김신규(한국외대)

*점심(12:30-13:30)

제 2세션(13:30 – 15:30)

- 사회자: 고상두(연세대학교)
- 발표자: 윤영미(평택대) : 벨라루스의 민족주의 정치: 기원과 특성
현승수(한양대) : 탈소비에트 조지아의 국민주의:
종족 국민주의와 시민 국민주의의 착종(錯綜)
이지은(한국외대) : 투르크메니스탄 민족주의의 전개:
‘국가부흥운동(National Revival Movement)’ 전개를 중심으로
- 토론자: 이지연(한양대), 정세진(한양대), 오원교(한양대)

*Coffee Break (15:30-15:45)

제 3세션(15:45 – 17:45)

- 사회자: 고재남(국립외교원)
- 발표자: 김상철(한국외대) : 카자흐스탄의 민족주의 전개:
공동체 참여구조와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강봉구(한양대) :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주의 정치:
종족적 민주주의의 퇴조?
김정훈(배재대) : 타지키스탄 민족주의 전개과정:
민족적 지역집단과 종교적 갈등 가능성
- 토론자: 김영진(한양대), 윤익중(한림대학원대학교), 황성우(한국외대)

***전체 토론 및 총평(17:45-18:15): 사회 엄구호**

***저녁(18:15-19:45)**

목 차

제 1세션

우평균	러시아 민족주의와 푸틴주의: 지향성 및 평가	13
김태연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의 전개	35
박정호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전개	51

제 2세션

윤영미	벨라루스의 민족주의 정치: 기원과 특성	63
현승수	탈소비에트 조지아의 국민주의: 종족 국민주의와 시민 국민주의의 착종(錯綜)	65
이지은	투르크메니스탄 민족주의 전개: '국가부흥운동(National Revival Movement)' 전개를 중심으로	77

제 3세션

김상철	카자흐스탄의 민족주의 전개: 공동체 참여구조와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85
강봉구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주의 정치: 종족적 민주주의의 퇴조?	101
김정훈	타지키스탄 민족주의 전개과정: 민족적 지역집단과 종교적 갈등 가능성	115

제 1세션(10:30 – 12:30)

- 사회자: 엄구호(한양대학교)
- 발표자: 우평균(한양대) : 러시아 민족주의와 푸틴주의: 지향성 및 평가
김태연(서울대)) :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의 전개
박정호(한국외대) :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전개
- 토론자: 김정기(한양대), 유진숙(배재대), 김신규(한국외대)

러시아 민족주의와 푸틴주의: 지향성 및 평가

우평균(한양대학교)

<요약>

본 논문은 러시아민족주의(Russian nationalism)와 푸틴주의(Putinism) 간의 상관성을 밝혀내고, 그 의미를 평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민족주의의 성격과 범주를 살펴보고, 푸틴주의의 민족주의적 수사 및 그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민족주의와 푸틴주의 간에는 상관성이 존재하며, 푸틴정권의 정치적 도구로서 민족주의적 수사가 구사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민족주의는 19세기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 시기 및 현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로써 사회적 혼란기 및 과도기에는 러시아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푸틴의 집권이 장기화하면서 확립된 푸틴주의 혹은 푸틴체제 하에서 제국적 전통으로의 회귀 및 민족주의적 수사의 남발과 초민족주의(ultranationalism)적 경향이 러시아 정치권 내의 담론을 지배하고 크렘린과 집권당 및 주요 정당이 이를 독점함으로써 공식 정치공간에서의 이념 경쟁의 활력을 잃게 했다. 푸틴체제의 관주도민족주의 경향은 러시아민족주의가 소연방 말기에 분출하기 시작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과도하게 정치화된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러시아민족주의의 수사를 활용하여 푸틴체제의 이념적 대안으로 삼고 있는 현실에서, 시대적 산물인 푸틴주의는 개인화된 체제이기에 푸틴 퇴장 이후 푸틴주의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지만, 러시아민족주의는 그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다.

주제어: 러시아민족주의, 푸틴주의, 푸틴체제, 관주도민족주의, 공식적민족주의

I. 서론

2000년 5월 러시아에서 푸틴(V. Putin) 대통령의 집권은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권력의 수직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푸틴의 집권은 여러모로 러시아 정치 질서를 바꿔놓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내용으로 민족주의적 수사를 국가정책의 모토로 삼는 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과 ‘푸틴주의’(Putinism)로 부를 수 있는 독특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러시아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의 대두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제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래된 현상이다. 민족주의는 제정 러시아 뿐 아니라 소련 시대에도 존재했으며,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민족주의(Russian

nationalism)의 기원이 19세기인지 아니면 소비에트 시대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슬라브주의자들(Slavophiles, 1830-1840)과 범 슬라브주의자들(Pan-Slavists, 1950-1870)을 비롯하여 19세기에 등장한 최초의 러시아민족주의와 세기의 전환기에 나타났던 신 슬라브주의자들(neo-Slavophiles)의 그것은 독일의 낭만주의(romanticism)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독일의 낭만주의와 19세기 러시아민족주의 모두 민족(nation)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인식했는데, 특히 러시아민족주의는 농촌세계의 진정성과 정교 신앙을 찬양했다. 오늘날 지성계의 환경과 비교할 때, 대비되는 것은 로마노프가(Romanovs)에 대한 왕조적 충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국가 민족주의’(state nationalism)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¹⁾

소비에트 시대에 등장한 민족주의의 조류를 보통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가 본격화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소비에트 시기의 러시아민족주의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체제 내부에서 심화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스탈린 집권 시기부터 비롯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들 속에서 공유하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했고, 민족주의가 그 원천을 제공하기에 적합했다. 즉 계급을 강조하는 담론보다는 민족을 강조할 때 대중적으로 더욱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이었다. 소비에트 시대에 사실상 강조되었던 민족주의적 수사는 ‘애국주의’(patriotism)라는 틀 속에서 소비에트 조국에 대한 충성과 일치되었다. 애국주의를 누가 이끌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문제에 봉착하면 다수 민족인 러시아인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했던 역사가 소비에트 시기에 반복되었다.²⁾

반면에 소련 붕괴 과정에서 나타났던 러시아민족주의 현상은 러시아공화국 내의 비공산계열, 비애국주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옐친(B. Yeltsin)과 그 주변 인사들이 러시아민족주의의 수사와 상징들을 활용하면서 러시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소비에트 역사를 단절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옐친 주도의 정국은 러시아의 국가적 이상과 정체성의 진공을 초래하면서 민족주의 집단의 요구와 사실상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성했다.

옐친의 뒤를 이어 집권한 푸틴은 ‘강한 러시아’(Strong Russia), ‘위대한 러시아’(Great Russia)를 표방하면서 러시아의 종합 국력을 향상시켜서 강대국 지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강력하게 천명했다. 푸틴의 강한 러시아 강조는 러시아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 내용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푸틴의 대내외 정책의 지향이 강한 러시아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은 그가 집권 3기에 이른 2014년의 시점은 물론 향후 1차례 더 집권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푸틴의 오랜 집권은 2011년 말부터 내·외부적으로 공식적인 비판에 직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푸틴 집권 시기를 특징지웠던 이른바 ‘푸틴체제’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경향은 과거부터 푸틴이 주창해 온 위대한 러시아로의 복귀 같은 슬로건과 그 수단을 중심으로 푸틴체제의 속성을 파악하려는 흐름에서 벗어나 푸틴체제 자체를 객관적으로 조명하려는 노력과 그 궤를 같이한다.³⁾ 푸틴주의는 이념으로 보기 힘든 실용적 정책 추구 위주의 언명

1) E. C. Thaden, *Conservative Nationalism in Nineteenth Century Russi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4), pp. 102-145.

2) 우평균, “소련붕괴와 러시아민족주의,”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역음, 『소련제국의 민족과 경제관계』 (서울: 민속원, 2013), pp. 83-148.

3) Ronald J. Hill and Ottorino Cappelli, *Putin and Putinsim* (New York: Routledge, 2013), pp. 1-188; Jose Russell, Ronald Cohn, *Putinism* (Book on Demand, 2012), pp. 1-91; Allen C. Lynch, *Vladimir Putin and Russian Statecraft* (Washington, D.C.: Potomac Books, 2011); Ben Judah, *Fragile Empire: How Russia Fell In and Out of Love with*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민족주의 혹은 초민족주의(uitranationalism)적 성향을 중심 가치로 지니고 있다. 따라서 푸틴주의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푸틴주의에 내재한 러시아민족주의를 의미를 밝혀내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푸틴주의와 러시아민족주의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양자를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려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민족주의의 범주 내에서 푸틴주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양자는 어떤 공통점과 속성에 입각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러시아민족주의의 범주와 성격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푸틴주의의 내용 및 주요수단에 관해 거론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러시아와 민족주의와 푸틴주의를 비교·평가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종합적인 결론을 지을 것이다.

II. 러시아의 민족주의의 성격과 범주

1. 현대 러시아민족주의의 성격⁴⁾

현대 러시아에서의 민족운동, 그 중에서도 러시아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제1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정치세력화를 꾀했던 집단들이 생겨난 배경 및 러시아민족주의 집단의 생성과정에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두 가지 주요 시각을 통해 접근했는데, ‘원초적 접근(primordial approach)’과 ‘도구주의적 접근’(instrumentalist approach)이 이에 해당 된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은 1983년에 발표된 크로포드 영(Crawford Young)의 논문에서 비롯되었다.⁵⁾ 이 중에서 원초주의의 기본 전제는 혈연, 인종, 언어, 거주지 및 종교와 관습 등이 특히, 취약한 민주주의의 시민적, 정치적 제도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이데올로기, 계급, 혹은 직업적인 연대에 기반을 두는 것을 비롯한 다른 어떤 관계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판단한다. 이같은 사회에서의 집단 간의 관계는 정치적 동원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인데, 이로 인해 왜 민족주의가 새로이 산업화되거나 민주화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준다고 한다.⁶⁾ 과거 소련의 경우, 원초적 접근 방식에 따르면 민족주의적인 정서(nationalist sentiments)가 강했지만, 공산주의 체제가 이를 억눌러 왔다고 가정한다. 즉, 소련 말기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민주화과정에서 강압적 통치가 제거되면서 민족주의의 분출이 용이해졌다는 논리적 사유를 도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도구주의적 접근법은 ‘제도주의적인 접근’(institutional approaches)과 ‘합리적 선택 이론’(national choice approaches)으로 구분 가능하다. 제도주의자들은 구소련에서의 민족운동의 증대를 민족성(ethnicity)을 제도화했던 공산정권의 정책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 삼았기 때

Vladimir Puti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3).

4) 본 절의 내용은 <우평균, “소연방 해체 이후의 러시아민족주의: 그 성격과 내용,” 서진영·우철구·최영종 편, 『탈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서울: 오름, 2003), pp. 297-301>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하였음.

5) Crawford Young, “The Temple of Ethnicity,” *World Politics*, 35-4 (July 1983), pp. 652-662.

6) John Armstrong, *Nation before Nationalis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1), pp. 5-447; Walker Connor, *Ethnonationalism: The Quest for Understand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 89-164; Clifford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1973), pp. 3-30; Donald Horowitz, *Ethnic Groups in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p. 95-140; Micheal Hastings, *The Construction of Nationhood: Ethnicity, Region and Nat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85-123; Anthony D. Smith, *Nationalism and Modernism: A Critical Survey of Recent Theories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2013), pp. 1-13.

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필수적인 결과로 여긴다. 이같은 정책의 시행 결과 민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에 기반한 민족형성(nation-building) 과정이 시작되고, 중앙정부의 사정에 정통한 지역의 다양한 엘리트들이 증가했다. 또한 경제위기의 심화와 더불어 민주화 과정은 전문가그룹과 지식인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정치적인 민족운동이 형성되게끔 유도하였으며, 지역의 정치엘리트들도 이를 종종 지지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⁷⁾

합리적 선택의 시각은 민족주의를 엘리트 혹은 민족 집단들이 권력과 사회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자신들의 투쟁에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민족운동의 등장은 민족집단의 구성원들이 ‘민족주의적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을 취함으로써 그들이 지불하는 비용(cost)보다 혜택(benefits)이 클 것이라는 계산에 근거한다고 한다.⁸⁾ 합리적 선택의 시각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센티브 구조(incentive structure)’내에서의 변화라는 관점, 다시 말해 소비에트 국가 내에서의 강제력 약화는 민족운동에 종사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며 그로 인해 성공적인 민족운동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고 본다. 민족운동의 성패 여부는 지역의 정치엘리트들이 채택한 전략에 의해 결정되며, 그것은 결국 단일의 통합된 기존 구조 내에서의 경력관리 대 독립된 국가 내에서의 출발이냐에 대한 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⁹⁾

민족주의에 관한 이같은 논의는 또한 민족주의에 관한 오래된 대립 명제인 ‘원초주의(primordialism)’로서의 민족주의와 ‘근대(modernism)’의 산물로서의 민족주의 간의 상반된 규정 중에서 어떤 것이 러시아민족주의에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현대 러시아에서 민족주의는 다분히 정치적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¹⁰⁾ 소연방 붕괴 이후 지속된 열진(1992~1999) 및 푸틴 통치기(2000~2014)를 거치면서 러시아민족주의를 정권적 차원에서 정파 간 제휴를 위한 정치적 편의에 따라 혹은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지의 외연 확대 차원에서 도구화함으로써 이념적 기제로 기능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이 경우, 러시아민족과 러시아민족주의는 집단연대의 형식이 혈연과 같은 원초적인 특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가계(家系)’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subjective belief)과 동일한 일종의 ‘고안된 것’(invented ones)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칼 도이치(Karl Deutsch), 겔러(E. Geller) 및 앤더슨(B. Anderson) 등이 민족이 근대의 산물이라고 보는 시각과 일치한다.¹¹⁾ 근대성은 높은 교육수준, 매스 커뮤니케이션 및 자국 문화의 형성과 더불어 도래하는 산업사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근대성으로 규정되고 민족 역시 이 차원에서 요구된다. 겔러 같은 ‘근대주의자들(modernists)’은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어냈다고 보았다.¹²⁾

7) R. Brubaker, *Nationalism Reframed: Nationhood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New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13-35; Ronald Grigor Suny, *The Revenge of the Past: Nationalism, Revolution,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84-126; Philip Roeder, “Soviet Federalism and Ethnic Mobilization,” *World Politics* 43-2 (1991), pp. 196-232; Victor Zaslavsky, “Nationalism and Democratic Transition in Postcommunist Societies,” *Daedalus* 121-2 (1992), pp. 97-121; Robert J. Kaiser, *The Geography of Nationalism in Russia and the USS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 5-471.

8) David Laitin,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pp. 300-322.

9) David Laitin, “The National Uprisings in the Soviet Union,” *World Politics*, 44-1 (Oct, 1991), pp. 139-177.

10) Л. М. Дробизева, *Гражданская, этническая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Москва: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2013), стр. 209-254.

11) Ernest Geller,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Cambridge: MIT Press, 1966);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91); Elie Kedourie, *Nationalism* (London: Hutchinson, 1960).

12) Ernest Geller (1983), p. 55.

러시아에서는 근대성의 산물로서의 ‘민족’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다기보다는 일군의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이 ‘기억을 환기시켜주는 사람’(inventor)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잠재된 민족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집권세력이 선택하는 정치적 의제로서 채택된 개념으로써 러시아민족주의 이념으로 형성되어 왔다.¹³⁾

민족주의는 민족을 형성(building a nation)하려는 관념(idea)을 갖고 추진되는 하나의 운동(movement)이다. 민족주의는 시민적(civic)이거나 인종적인(ethnic) 형태로 표명된다.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사회적 근대화’(social modernization)라는 관념과 연관될 때, 혹은 국가를 ‘제도화’(institutionalizing) 하기 위해 사용될 때 성공적인 결과를 드러냈다. 이 중에서 특히 후자는 포스트-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러시아민족주의에 대해 이를 적용시키면, 잘 들어맞지 않는다. 러시아민족주의가 근대화를 지향한다기보다는 반대로 가는 측면이 크다.¹⁴⁾ 제도화의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미 충분히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과거와 같은 제국을 꿈꿀 수 없기에 제국적 민족주의(imperial nationalism)도 아니다. 그렇다고 시민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 도 없다. 기존 이론이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적합한 것은 ‘인종적 민족주의’가 압도적으로 득세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⁵⁾

범위를 좁혀 집권세력과 민족주의 간의 연관성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엘친 통치 시기보다 푸틴 집권 당시가 훨씬 민족주의적 수사를 활용하는데 있어 적극적이라는 특성이 나타난다.¹⁶⁾ 푸틴의 ‘강한 러시아’라는 슬로건 자체가 전통적인 애국주의의 내용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약한 상태가 되어 미국을 위시한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는 강력한 국력을 보유한 나라로 재등장할 것이라는 생생한 의미가 전파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간에 경계가 불분명하게 사용되어 왔고, 여기에 쇼비니즘(chauvinism)까지 가세해 용어의 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간에 개념상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를 감안할 때, 알렉산더 야노프(Aleksandr Yanov)의 정의는 다소 이해를 쉽게 하도록 일조하고 있다.

애국주의·쇼비니즘·민족주의는 하나의 공통성을 갖고 있는데, 이 모두는 자신의 국가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적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이들을 구분할 수 있다. 애국자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만, 애국심이 그가 인류를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쇼비니스트는 자신의 나라는 사랑하지만 인류는 사랑하지 않는다. 특히 유대인 출신이라면 더욱 싫어한다. 민족주의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지만 인류를 단지 자신의 나라를 정복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침략세력으로 본다. 그 선두에는 당연히 유대인이 서있다고 본다.¹⁷⁾

야노프의 규정대로 라면 푸틴과 푸틴정권의 수사는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다분히 민족

13) 우평균(2003), pp. 300-301.

14) Лев Гудков, “Своеобразие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Pro et Contra*, № 2 (2005), стр. 6-24

15) Татьяна Соловей, Валерий Соловей, “Апология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Национал-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Альянс*, <http://nazdem.info/texts/36> (검색일: 2014.3.4).

16) А. М. Верховский, Э. А. Паин, “Цивилизационный национализм: Российская версия «Особого пути»,” *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нцептология*, № 4 (2013), стр. 23-45.

17)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ussian Nationalism Today?,” *Radio Liberty Research Bulletin* (Munich), Special Issues, December 19, 1988, p. 49.

주의적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애국주의는 러시아와 인류를 모두 사랑하기에 러시아를 사랑하는 정치가가 인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푸틴은 민족주의적 으로 볼 수 있는 태도를 자주 표명했다. 야노프의 민족주의에 대한 규정에서 ‘인류’ 대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대치하면 일치하는 측면이 나타난다. 사실 야노프의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 중 민족주의자가 인류를 단지 자신의 나라를 정복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침략세력으로 본다는 인식은 지나치게 폭넓은 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특정 민족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 것이 20세기의 역사였기에 반드시 민족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외부적인 ‘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를 위협하는 일관된 적은 미국과 서방세계였다. 따라서 러시아 국가를 대변하는 주장인 푸틴의 민족주의적 수사는 그 내용 면에서 ‘민족형성 민족주의(nation-building nationalism)’라기보다는 ‘관제국민주의(official nationalism)’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¹⁸⁾ 푸틴 집권기 러시아 정부가 주도했던 민족주의 담론은 민족형성 민족주의에 가까운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민족형성이란가보다는 신생국가 러시아의 국민국가 확립을 위한 자연스러운 발로였다. 즉, 러시아국가의 통일성과 완전성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러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인종, 언어, 종교를 포괄하는 모든 시민을 러시아 민족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천명했다.¹⁹⁾ 이와 같은 강조는 푸틴 집권기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덧붙여 ‘강대국 러시아’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면서 러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을 명시함으로써 민족주의의 성격을 가미하게 되었다.

푸틴의 민족주의적 수사는 정권이 주도하는 러시아민족주의의 전통에서 볼 때, 19세기 관제국민주의와 20세기 소비에트 애국주의의 계보를 잇는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의 민족주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러시아에서는 19세기 말 이래 정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민족주의적 수사를 통해 대내적 결속과 충성의 기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전통이 이어지고 있기에 21세기 초의 푸틴 체제하에서도 그 면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푸틴 정권이 대외적 상징으로서의 러시아 대국주의를 내세우고, 신생 러시아의 국민 국가적 상징으로서 제국적 전통을 복원하려는 데에서 푸틴체제는 소비에트 체제보다는 제정 러시아의 관제민족주의에 가까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푸틴이 지향하는 ‘대국 민족주의(great power nationalism)’는 소비에트 시대처럼 사회주의 같은 특정 이념과 결부되어 민족주의적 수사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없으며, 오히려 러시아의 전통을 앞세워 대국 러시아의 부활을 주창할 수 있는 표현을 일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

2. 러시아민족주의의 범주

앞서 러시아민족주의의 주체 세력으로 푸틴 같은 지도자 내지는 정권 차원에서 설정하여 러시아민족주의의 성격을 밝히고자 했지만, 사실 러시아민족주의는 그 내용으로 볼 때, 구성 요소들과 집단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범주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러시아민족주의

18) 민족주의 운동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유형은 민족국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정체(政體) 추구형 민족주의(polity-seeking nationalism)’, 기존국가를 ‘민족주의화(nationalize)’ 하려고 하는 ‘민족형성 민족주의(nation-shaping nationalism)’로 분류할 수 있다. Roger Brubaker, “East European, Soviet, and Post-Soviet Nationalism,” Frederick D. Weil, Jeffrey Huffman, and Mary Gautier, eds., *Research on Democracy and Society*, Vol. 3 (Greenwich, Conn.: JAI Press, 1993), pp. 353-378.

19) Концеп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5.06.1996, No. 909, <http://www.russia.edu.ru/information/legal/law/up/909/2051/> (검색일: 2014.2.27).

는 하나의 세력이 이끌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집단들 간에는 종종 모순적인 특성마저 드러난다.²⁰⁾ 결국 러시아민족주의에는 ‘단일한’ 민족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적합하다. 서로 다른 유형의 민족주의가 존재할 뿐 만 아니라, 각기 다양한 구성원들이 전체 집단을 구성한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운동이 민족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²¹⁾ 그 결과, 2010년대 러시아민족주의의 사회적 활동범위를 놓고 볼 때, 중심(mainstream)과 주변부(marginality)가 존재한다. 중심부에는 푸틴 중심의 집권세력과 주요 정당들이, 주변부에는 원외우파 세력과 외곽 집단들이 포함된다.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푸틴 중심의 집권세력

러시아민족주의 집단의 동심원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력은 권력자들(men of Power)로 대변된다. 대표적 인물로 푸틴 대통령과 (해임되었지만 모스크바 시장이었던) 유리 루쉬코프(Yuri Luzhkov), 프리마코프 (Yevgeni Primakov), 체르나무르진(Viktor Chernomyrdin) 전 총리, 대통령행정실과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 같은 권력기관에서 정치적 개념을 만들어는 정치공학자들(techno-political scientists, 대표적 인사 수르코프(Vladislav Surkov))를 들 수 있다. 이들이 만들고 전파하는 민족주의적 수사는 일종의 ‘공식적 애국주의(official patriotism)’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 집권세력에 의해 ‘민족’과 ‘국가’와 관련된 담론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고,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크렘린의 권력엘리트가 주도하는 민족 담론의 독점화 시도는 대중동원(mass mobilization)과 연관된다. 이 노력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 제한과도 맥을 같이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푸틴 집권 이후 2000년대 초반에 러시아인들의 삶의 기준을 성공적으로 개선시켜왔기 때문에 푸틴이 이끄는 길이 물질적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을 대중들에게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 역시 분명하게 표명되었기에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푸틴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대국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해 대중들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애국주의적인 수사를 점차 활용했다. 동시에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 집권층이 제시하는 범위 내에 자신의 견해를 한정시켜야 하는 현상이 러시아 정치에서 일반화되었다. 즉 집권층이 제시하는 민족주의 담론을 따라야 정치적으로 생존이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측면에서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치의 지형은 경쟁하는 이념이나 세계관이 공존하는 정치적 구조로 존속되지 못하고 모든 정치세력들이 애국주의적인 수사를 중심으로 존립하는 상황으로 변모했다.

2000년대에 집권세력이 주도한 정치적 담론의 단순화 구조로의 전이는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치적 표현 역시 변모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강대국(державность от великодержавность)”, “국가성(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민족의 보존(сохранение нации)”, “제국(империя)”, “모국(родина)”, “조국(отечество)” 등이다. 이같은 정치적 용어 및 환경의 변화는 주요 정당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선거 국면에서 사용하는 슬로건이나 용어에도 변화를 유도했다.

푸틴 집권 이후 본격화된 ‘신애국주의’의 조류는 이념적으로 볼 때 과거 소비에트 시대에 정권적 차원에서 지녔던 확고한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푸틴 정부의 애국주의는 내용 면에서 단순하고, 깊이가 없지만 나름대로 세밀한 형식과 아젠다를 갖고 있다. 어떤 정치

20) Александр Верховский, *Верхи и низы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Москва: Панорама, 2007), стр. 8-22.

21) A. McClintock, “No Longer in a Future Heaven: Nationalism, Gender, and Race,” G. Eley, R. G. Suny, eds., *Becoming National: A Reader*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260-285.

인이란 애국주의 담론에 참여하기 거부한다면 정통성을 잃게 되고, 담론에 가담하는 순간 정치적 이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 즉 애국주의만 지배하는 곳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장을 잃게 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애국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정교회 문화(Orthodox culture)’를 도입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 스탈린을 복원하는 내용이 실리기 시작했으며, 크렘린이 앞장서서 푸틴을 추종하는 청년 운동 단체를 이끌고 있다. 러시아 승리의 역사로써 2차 대전의 사례도 널리 소개되고 있다.

푸틴 정권의 관주도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데는 크렘린의 노력도 주효했지만,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 역할은 한 부문은 미디어(media) 라고 할 수 있다. 푸틴 집권 이후 주요 미디어를 실질적으로 정부 통제 하에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디어를 통한 정권 차원의 선전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현실에 미루어 볼 때, 사실 특별한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 언론 매체는 애국주의 수사의 전파에 있어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가 주도하던 애국주의 전파는 문화와 학문 분야에도 확산되는 현상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위 ‘러시아의 특별함 내지는 특수성’(Russian specificity)에 대한 정당화를 주제로 하는 논의가 학계에서 많이 진행되었다.²²⁾

2) 주요 정당들(CPRF, LDPR)

집권 세력의 뒤를 이어 주요 정당들이 주창하는 민족주의적 언명은 나름대로 현대 러시아 정치사에서 그 뿌리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1990년대 초부터 치러진 총선거를 통해 러시아민족주의를 대변해 온 러시아연방공산당(Communist party of Russia, CPRF)과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of Russia, LDPR)이 꾸준히 의석을 획득했기 때문인데, 한 때는 이 당들이 제1야당 혹은 제3당으로 입지를 굳힌 시기도 있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에서의 민족주의 현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 이 두 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다.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단일한 세력이 아니라 여러 정파의 결합체에 가깝다. 공산당 내 그룹들은 민족주의적인 시각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 체제 같은 이슈들에 있어서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각기 상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²³⁾ 이들 중 일부는 실용주의자이고, 다른 일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경도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스탈린 체제의 복원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제정 러시아에 향수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²⁴⁾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러시아에서 정통적인 공산주의, 즉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주창하는 세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트로츠키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과 조합주의자들 같은 몇몇 소규모 정당들이 (국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지만, 이들은 선거 영역의 외곽에 머물러 있으며, 자신들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간주하는 러시아연방공산당과도 연계가 없다.²⁵⁾

자유민주당은 지리노프스키(Zhirinovsky) 정당이라 불리울 정도로 당수인 지리노프스키에 대한 의존도가 큰 정당으로 1993년 총선에서 당에 대한 지지가 절정에 달했다. 자유민주당의 극우적

22) M. Loruelle, “The Discipline of Culturology: A New ‘Ready-Made Thought’ for Russia?” *Diogenes*, No. 204 (2004), pp. 21-36.

23) G. Fikke, “Patriotic Left-Centrism: The Zigzag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Europe-Asia Studies*, 51-2 (1999), p. 277; L. March, *The Communist Party in Post-Soviet Russia*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2), pp. 47-62.

24) Александр Маркович Верховский, Анатолий Папп, Владимир Прибыловский, *Политический экстремизм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Информационно-экспертная группа "Панорама." 1996), стр. 76-81.

25) А. М. Верховского, ред., *Левые в России: от умеренных до экстремистов* (Москва: Изд-во "Ин-т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й социологии", 1997), стр. 17-232.

성향은 파시즘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확연한 자기주장을 강령 속에 담고 있다. 자유민주당은 반공산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열친 시기 경제개혁이 남긴 자본주의의 거친 모습(wild capitalism)에는 반대하지만 경제적 자유주의와 중소기업에 대해 선호하며, 대외문제에선 제국주의적인(imperialist) 시각을 선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외국인혐오주의(xenophobia)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국주의적이란 것은 러시아가 현재의 러시아연방 뿐 아니라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러시아의 통합적인 구성에 동참하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된다. 러시아 복원의 첫 출발은 러시아와 벨로루시 간의 통합이다. 자유민주당은 슬라브 민족의 통합과 더불어 다른 비슬라브권의 민족들 역시 러시아의 국가적 경계 안에 포함되는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²⁶⁾

자유민주당은 푸틴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강대국 부활’을 당의 목표로 삼으면서 ‘인종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가 대외적으로 표출되는데 제1의 요건이 되는 외부의 ‘적’을 역시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를 위협하는 최대의 세력은 미국과 서구 문명(western civilization)이다. 또한 자유민주당은 발트 국가들에서의 러시아인 차별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그들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고 차별적인 입법으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⁷⁾ 자유민주당의 주요 정책 기조는 (초)민족주의이며, 종종 과격한 수사를 사용하곤 하지만, 의회 내에서는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²⁸⁾

러시아연방공산당과 자유민주당은 공통점을 다수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대중을 민족(ethnos)으로 융합시켜야 한다는 데서 일치한다. 이 두 당은 국가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본 전제는 인종적-민족주의(ethno-nationalism)의 논리에 근접해 있다. 두 당은 정도는 다르지만, 민족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민족 혹은 정체성 파퓰리즘(national populism or identity populism)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서구세계를 외부의 적으로, 그리고 올리가르히(oligarchy)를 내부의 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²⁹⁾ 물론 양당이 정책이나 강령 상 차이가 나는 점도 분명히 있지만, 푸틴 및 집권세력과 더불어 러시아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세력 중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집단이라는 사실 역시 자명하다.

3) 원외 우파 세력

원외 우파 세력(the radical right without parliamentary)이란 정당을 결성했지만, 의회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혹은 진입을 원치 않는 러시아민족주의 극단 세력을 지칭한다. 의회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10여년 이상 존속해 온 이들이 합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기를 거부할지라도 주요 정당들이 그들의 아이디어와 슬로건을 차용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젊은 정치인들이 국가 기관에서 더욱 공식적인 경험을 하기 전에 급진적 민족주의의 세례를 통해 정치적 기회를 갖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³⁰⁾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 알렉산드르

26)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правление страной и 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http://ldpr.ru/party/Program_LDPR/Nation_building_governance_and_civil_society/ (검색일: 2014.2.28).

27) Stephen White, “The Political Parties,” Stephen White, Zvi Gitelman, Richard Sakwa, *Developments in Russian Politics 6*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pp. 87-89.

28) Henry E. Hale, “Russia’s political parties and their substitutes,” White, Stephen. *Developments in Russian Politics 7*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p. 89.

29) Marlène Laruelle, “Introduction,” Marlène Laruelle, eds., *Russian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Reassertion of Russia* (New York: Routledge, 2009), pp. 27-28.

30) Александр Самоваров, *Перспективы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национализм с человеческим лицом* (Москва: Сам

바르카쇼프(Aleksander Barkashov)의 러시아민족단합당(Russian National Unity, RNU)과 에두아르트 리모노프(Eduard Limonov)의 민족볼셰비키당(National Bolshevik party, NBP)이다.

이 두 당은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째는 이태리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찌즘을 연상케하는 인종차별적(racist) 사고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보수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민족주의자이면서 사회주의자로 자신들을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으로 보여지길 원한다.³¹⁾

바르카쇼프의 러시아민족단합당은 인종주의적인 색채가 대단히 강하다. 이 당은 러시아인을 반대하는 범세계적 규모의 음모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민족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민족간의 결혼도 금지하길 원한다.³²⁾

리모노프의 민족볼셰비키당은 가장 안정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민족주의 운동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볼셰비키당은 바르카쇼프의 당에 비해서 고등교육을 받은 계층과 지식층에 지지층을 많이 갖고 있으며, 러시아민족단합당과 달리 반유대주의적인(anti-Semitic) 표현도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봉기 이론(theory of uprising)으로 볼리우는 당의 강령은 우파의 혁명적 급진주의(revolutionary radicalism)와 좌파의 무정부주의(anarchism) 간의 동맹을 형성한다는 사고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강령은 또한 독재 정권을 요구하면서 러시아의 문제는 대(大) 러시아 제국주의의 전통으로 회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³³⁾

이념의 급진성과 폭력을 부추기는 무정부주의와 테러리즘을 수용하는 민족볼셰비키당의 노선은 결국 2005년 6월 정부로부터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이를 놓고 당의 지지자들이 분리되기에 이른다. 급진 민족주의 그룹과 결별한 리모노프 지지자들은 현재 반 푸틴 진영에 가담하고 있다.

원외 우파 세력은 그 급진성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대중 조직은 갖추고 있지만, 의회 진입을 거부하고 혁명적인 수단으로 민족주의를 성취하려는 의지가 앞선다. 이들 그룹은 러시아민족주의 집단 내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세력으로 종종 아이디어나 슬로건 차원에서 러시아민족주의 중심부 내의 세력에게 시사점을 주지만 정치세력으로의 편입은 스스로 거부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 기관에 대한 폭력적인 투쟁을 선동하는 한, 합법구조로의 편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외곽 집단

러시아의 극단적(ultra) 민족주의는 오늘날 신문이나 잡지 같은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언론의 부수는 대체로 많지가 않거나 부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언론의 논조는 개념적으로 정교하지 못하며, 특정한 지도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 움직이는

отека, 2008), стр. 84-96.

31) T. Parland, "Russia in the 1990s: manifestations of a Conservative Backlash Philosophy," C. J. Chulos and T. Pirainen, eds., *The Fall of an Empire, the Birth of a Nation: national Identities in Russia* (Aldershot, UK: Ashgate, 2000), pp. 116-140.

32) John B. Dunlop, "Alexander Barkashov and the Rise of National Socialism in Russia," *Demokratsia*, No. 4 (1996), pp. 519-530.

33) Вячеслав Лихачев, *Нацизм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Панорама, 2002), стр. 66; Марлен Ларюэль, *Рус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 (Москва: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2008), стр. 410-432; Центре франко-руссе эн сциенцес нумайнес эт социалес де Москоу, *Рус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Франко-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гуманитар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2007), стр. 175-180.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그룹의 극단적 민족주의 주장과 행동은 소멸하지 않고 꽤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빛을 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주변부의 급진적인 민족주의 운동 단체들에는 언론 뿐 아니라 수많은 소규모 정당들도 포함된다. 이 중에서 의미있는 몇몇 단체를 들자면 1990년대에는 알렉산더 이바노프(Aleksander Ivanov)-수카레프스키(Sukharevsky)의 대중민족당(Popular National Party), 니콜라이 루센코(Nikolai Lysenko)의 러시아민족공화당(National Republican Party of Russia), 알렉세이 브도빈(Aleksei Vdovin)과 콘스탄틴 카시모프스키(Konstatin Kassimovsky)의 러시아민족동맹(Russian National Union)이, 2000년대에는 유리 벨라예프(Yuri Belaeв)의 자유당(Party of Freedom), 알렉산더 세바스티아노프(Alexander Sevastianov)와 스타니슬라브 테레코프(Stanislav Terekhov)의 대민족권력당(National Great Power Party) 등을 꼽을 수 있다. 단체 별 인원이 1,000명 이하인 이 단체들은 서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대부분의 단체들은 네오-파시스트(neo-fascist), 혹은 네오-나찌스트(neo-Nazist)로 규정되곤 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악명높은 러시아 스킨헤드(Russian Skinhead) 운동이 대중들의 시야에서 포착되기에 이르렀다. 이테올로기적인 수준에서 스킨헤드 운동은 인종차별주의와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나찌즘의 극단적 이론 까지도 부활시키려 하며, 미국의 백인 권력 이테올로기(White Power ideology)에 의해 고무되었다.³⁴⁾

러시아민족주의의 가장 외곽에 주변부로 자리 잡고 있는 외곽 집단은 그 수는 많지만, 소수의 성원들이 결집한 세력으로 대중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집단이 대부분이며, 정권 차원에서조차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들은 민족주의의 극단화가 도를 넘어 파시즘 혹은 나찌즘과 동일시되는 반인종주의와 시대착오적인 복고주의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원외 우파 세력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민족주의의 주류로 편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III. 푸틴주의의 내용과 수단

1. 푸틴주의의 성격과 내용

‘푸틴주의’ 혹은 ‘푸틴체제’란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이 실행한 이념(ideology), 우선적 가치(priorities) 및 정부의 정책(policies of the system of government)을 말한다. 이 용어는 서구의 언론과 분석가들이 푸틴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푸틴이 통치하는 정치체제(2000-2008년)를 묘사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함축성을 띠고 있다. 정치적 및 재정적 권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푸틴의 체제는 연방보안국(FSB), 군대, 경찰 같은 총 22개의 정부 보안 및 정보기관 출신으로 보안 부문에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이른바 ‘실로비키’가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실로비키는 푸틴 및 그의 측근들과 동일한 경력을 공유하고 있다.³⁵⁾ 푸틴주의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집권 세력의 인맥보다는 대체로 푸틴체제의 혼합적인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³⁶⁾

34) В. Шнирельман, *Русское родноверие. Неоязычество и национализм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Библийско-Богосл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2012), стр. 25-25.

35) Jesse Russell, Ronald Cohn (2012), pp. 1-2.

36) 푸틴주의가 이테올로기는 아니지만 독특성을 지니고 있는 체제라는 데에 주목한다. 즉, 푸틴주의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체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아니다. 푸틴이 만든 것은 포스트 소비에트의 혼합적(amalgam) 정치체제이다. 러시아의 정치학자 드미트리 트레닌(D. Trenin)은 이것을 비공공화된 민주주의

푸틴주의에 이념적 요소가 있다고 전제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러시아민족주의와 달리 푸틴주의는 공고한 이념적 실체라기보다는 체제(system) 내지는 정권(regime)의 산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이 때 푸틴주의란 말은 ‘푸틴체제’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가 된다. 푸틴체제가 적실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푸틴체제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0년 당시의 푸틴주의와 2012년의 그것은 체제의 동학(dynamics)에 예 있어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푸틴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 첫 번째는 이념(ideology)이며, 두 번째는 지배체제(a system of governance)로서 앞서 밝힌 체제변화의 측면이 양자 모두에서 나타난다.

푸틴체제를 이념적으로 지탱하는 개념들은 ‘수직적 권력(power vertica)’, ‘주권민주주의(soveregim democracy)’, ‘법의 독재(dictatorship of law)’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이념적 측면에서 푸틴주의의 핵심으로 초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ultra-nationalist ideology)를 채택하게 되었다는 점 역시 지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이념적 변화 양상이다. 통합러시아당이 출범할 당시에는 보수적인 전직 (소련)공산당료들(apparatchiks)이 대부분이었으나 당의 중추적인 기관이 초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 외에도 푸틴을 추종하는 청년 운동 단체인 ‘나쉬(Nashi)’가 크렘린의 지휘 하에서 설립되었는데, 나쉬의 설립 목적 역시 크렘린의 초민족주의적이고 신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려는데 있었다. 이 운동은 ‘적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조지아(George)에서의 전쟁은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조지아 전쟁은 1979년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정규군이 외국의 주권 국가들 공격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조지아 침공과 더불어 푸틴체제는 구소련 공간에서 강경대응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조지아 전쟁은 전쟁 결과 병합에 이른 것은 아니었지만, 1930년대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발생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여운을 남겼다.

2000년에 푸틴체제가 출범할 때는 불분명했지만, 그의 세 번째 임기를 맞는 2012년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체제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정권의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민족의 재탄생(national rebirth)’ 이데올로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³⁷⁾ 푸틴체제에서 강조해 온 중점적인 구호는 ‘러시아 우선(Russia first)’주의와 러시아 민족을 포함하는 러시아 국가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보자면 이것은 러시아 국가의 부활과 국가적 위엄의 강조를 위해 내세운 것이기에 ‘인종적 러시아인(ethnic Russians)’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전체 러시아 국민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대외적으로 러시아가 외부 세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국가적 자존을 지키려는 데서 비롯된 푸틴체제의 ‘민족적 재탄생’ 구호는 국가적 재탄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는 러시아민족주의의 속성상 굴절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다.

푸틴이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내세운 강한 러시아, 강한 국가의 건설은 러시아의 제국적 유산을 동원하여 이를 대중들에게 호소하는 선전의 일환이었다. 푸틴 정권은 스탈린이 만든 소비에트 국가(國歌)를 러시아연방의 국가로 채택했고, 국장(國章)으로는 재정러시아의 쌍두독수리 문장을 선택했다. 열린 통치기에도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무엇보다도 정국이 안정되지 못했고,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이에 몰두할 수 있는 여력이 부

(unconsolidated democracy)의 반대 용어로 “비공고화된 권위주의(unconsolidated authoritarianism)”라고 이름붙였다. 푸틴체제와 가장 가까운 선례는 미국의 20세기 초 몇몇 도시에서 나타났던 정치적 머신(political machine)의 존재나 일본의 자민당(Liberal Democratic Party), 멕시코의 제도혁명당(Revolutionary-Institutional Party), 냉전기 이탈리아의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 집권기에 비견된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정당정치에 국한할 때이며, 푸틴체제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Allen C. Lynch (2011), pp. 60-61.

37) Marcel H. Van Herpen, *Putinism: The Slow Rise of a Radical Right Regime in Russia*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an, 2013), pp. 6-7.

죽었다. 푸틴은 엘친이 못 다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을 일단락한 셈이다. 그러나 푸틴은 제국적 전통의 복원을 통해 단순히 국가적 정체성의 표상을 정했을 뿐 아니라,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들과 러시아라는 상징 간의 일체감 형성을 통해 집권층에 대한 신뢰에 충성의 기제를 확보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 때 푸틴의 민족주의적 언명 구사는 동원기제로서의 민족주의의 기능에 부합하는 설명의 틀을 제공한다.

푸틴의 민족주의 및 초민족주의적인 수사 활용은 대내적으로는 제국적 전통에 대한 재확립을 통해 푸틴체제의 정당성의 기반을 확대하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제국 범위의 재확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보상의 기제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작용했다. 이 점은 1990년대 엘친이 통치했던 당시의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기에 러시아 현대사에서 유일한, 허약하고 무능한 정권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자동적으로 푸틴정권의 존재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 유라시아의 중심에 존재하는 러시아는 단일 국가 만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부각할 수 없다. 러시아는 근대 이후 언제나 제국의 역사를 주도했다. 1990년대 이후의 시기 만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다. 푸틴은 자신의 체제가 이 예외적 상황에서 벗어날 의지와 힘을 갖고 있는 주체임을 선언하고 이를 대외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자산으로 삼으려 했다. 이 점은 푸틴 집권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군사력 재건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방개혁을 나름대로 일관되게 추진하려 한 과정을 환기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주의(Statism)’에 대한 강조와 집착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푸틴체제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러시아의 정체성 확립에서 더 나아가 러시아가 주도하는 세계질서 참여에 의미를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러시아는 세계 질서 형성 과정에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로서 당당히 참여하여 이를 주도할 것이라는 선언과 다름없다. 러시아의 이같은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은 미국과 서방세계 밖에 없으며, 이들의 기제를 누르기 위해 러시아는 강대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논리 역시 도출되었다. 서구는 러시아를 궁극적으로 위협하고 러시아가 분열되고 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세력일 뿐이라는 사고가 실로비키를 중심으로 푸틴체제의 핵심세력에게 자리 잡고 있는 관념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정체성 확보와 제국적 전통 확립 및 적대적 세력 직시 같은 일련의 강조는 필연적으로 안보에 대한 강조를 수반한다. 실제로 서구의 러시아에 대한 안보적 압박이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하고, 푸틴체제에서 강조해 온 서구의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거론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체제의 ‘제국적 지향’은 구소련 공간에서의 대외 정책의 중심적인 언술로 되는 반면, ‘서구로부터의 위협’은 방어적 기제로서 러시아 국가와 민족을 보호해야한다는 의지와 결속의 상징이 되었다. 서구의 위협은 러시아 뿐 만 아니라 과거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을 경험한 CIS 국가들을 포함한 유라시아 공간에서 상존하는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러시아의 총선과 대선 같은 국내정치에서도 서구가 러시아의 약화를 노려 선거 과정에 개입하여 국내 연계 세력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을 푸틴 자신이 2011년 12월 총선 및 2012년 3월 대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러시아 내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폭로하거나 문제시하는 것은 모두 서구의 음모에 의한 것이라는 전형적인 음모론으로 합리화한다면 그보다 손쉬운 집권세력의 자기 방어 논리가 없을 듯하다. 그 결과, 앞서 제시한 러시아민족주의의 중심부에 포진한 푸틴과 집권세력 및 러시아연방공산당 및 자유민주당 같은 주요 정당들은 상시적으로 미국과 서구의 대 러시아 위협론을 내세우고 있고, 러시아민족주의 세력분포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원외 정당세력 및 외곽 집단들은 반유태주의를 비롯한 인종주의에 경도되어 대중들을 선동하고 동원하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 러시아의 현실로 비춰진다.

2. 푸틴주의의 수단

푸틴체제의 작동은 철저한 ‘통제(control)’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모든 국정운영의 형식에 있어 ‘관리(managed)’ 체제를 선호한다. 푸틴은 소련시대의 KGB에서 정보원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했기에 정보수집과 기획 및 전략적 사고에 능하다. 즉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보다 과거부터 몸에 밴 습관처럼, ‘통제’(control)를 기획하는 데 익숙해있다. 선거를 예를 들자면, 정부가 선거 과정을 형식적(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정당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기획된 선거 관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처럼 선거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선거에 참여가 허용되는 세력은 사실상 정권에 치명적인 반대를 하는 적수가 되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야당’(loyal opponents)이 되어 체제 내에서 공존 가능하다.³⁸⁾

푸틴주의의 이같은 속성을 전제할 때, 푸틴주의는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성격도 갖고 있다. 서구의 기준으로 볼 때,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정당한 일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에 대해 푸틴과 그 주변 인물들은 주로 자신들의 과거 직업적 배경이나 훈련 과정에서 습득한 관점에 입각해 모든 종류의 환경, 교육 및 자선 기관을 민주주의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기관으로 보지 않고 아마도 서구의 스파이와 연계된 비밀 네트워크의 표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 체제의 핵심세력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청년 단체, 조합, 각종 시민단체들을 직접 관장하려한다. 푸틴 스스로도 그렇지만, 푸틴이 발탁한 ‘실로비키’(siloviki)로 지칭되는 정보기관이나 군, 경찰 출신의 권력 핵심층 인사들은 서구에 적대적인 감정을 주입받으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해왔으며, 서구의 기본적인 이익이 러시아를 약화시키는데서 비롯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³⁹⁾

푸틴주의가 유지되는 데 핵심기관은 크렘린과 정당 및 내각 같은 공식 권력 기관 외에도 이른바 ‘제4부’인 언론은 물론 기업, 산업 부문에서의 통제력 유지도 핵심이 되고 있다. 푸틴 집권 첫 해에 크렘린의 통제 하에 독립적인 방송국들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 때 크렘린과 친교가 있는 올리가르히들이 경영하는 방송국만 살아남았다. 2000년 쿠르스크(Kursk)호 참사에 대해 구신스키(V. Gusinski) 소유의 NTV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의 강력한 정부 비판이 있는 연후에 본격적으로 푸틴정부는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푸틴 대통령은 언론의 정부 비판을 ‘반국가적인’ 활동으로 매도했는데, 그 논리는 언론의 대 정부 비판이 국가의 위신을 실추하게 만들어 결국 국가의 안정을 흔드는 해악을 조장한다는 것이었다.⁴⁰⁾ 푸틴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미디어 그룹의 소유권을 강제로 조정하기 위해 금융관련 법률을 이용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대표적 언론재벌인 ORT의 베레좁스키(B. Berezovsky)와 NTV의 구신스키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주식을 매각했는데, NTV는 국영기업인 가스프롬(Gasprom)으로 넘어갔다. 언론에 대한 일련의 조정 이후 대부분의 언론이 정부의 입장에 동조적으로 변모했고, 비판기능을 가진 언론의 모습은 이후에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러시아에는 아직까지 방송이나 주요 미디어 부분에 대한 현대적인 법이 없는 상태이다.⁴¹⁾

38) 우평균, “현대 러시아의 통치이념: 푸틴주의(Putinism)의 성격 및 평가,” 『민족연구』, 제57호(2014.3), pp. 41-42.

39) 우평균(2014), p. 26.

40) Masha Lipman and Micheal McFaul, “The Media and Political Developments,” Stephen K. Wergen and Dale R. Herspring, eds., *After Putin's Russia: Past Imperfect, Future Uncertai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0), pp. 110-112.

<표1> 러시아 TV 방송의 잠재적 시청자, 커버리지 및 선호도(1999)

(단위: %)

채널	시청자 (잠재층 포함)	커버리지 (상반기)	커버리지 (하반기)	선호도 (12월 24~26)
ORT	98	87	88	41
RTR	95	72	77	13
NTV	72	59	58	25
TV6	58	32	37	25
TV-center	39	15	19	4
Kultura	36	10	13	no data
CTC	35	16	19	no data
TNT	32	12	15	no data
REN-TV	27	13	11	no data

출처: Ivan Zassoursky, *Media and Power in Post-Soviet Russia* (New York: M.E.Sharpe, 2004), p. 196.

<표2> 러시아의 상위 TV 채널 순위(2005)

(단위: %)

채널	소유권	컨텐츠	2005년 비율(%)
제1 채널	국가가 51% 소유, 나머지는 국영 기업체가 보유	뉴스와 오락	22.9
로시아	국가가 51% 소유, 나머지는 국영 기업체가 보유	뉴스와 오락	22.6
민영	민간 및 국가	뉴스와 오락	12.3
NTV	민간	뉴스와 오락	11.2
STS	민간	오락	10.3
REN TV	민간	오락과 뉴스	6.7
TNT	민간	오락과 뉴스	5.0
TV-Centre	모스크바시 정부	뉴스와 오락	2.6
Kui'tura	국가	문화	2.5
Sport	민간	스포츠와 오락	1.8
DVT Viaset	민간	스포츠	1.5
MTV	민간	음악	1.1
MUz TV	민간	음악	1.0
Domashinyi(가정)	민간	홈 쇼	1.0

출처: Sarah Oates and Gillian McCormack, "The Media and Political Communication," Stephen White, Richard Sakwa and Henry E. Hale, eds., *Development in Russian Politics 7*.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18-134.41) B. Beumers, S. C. Hutchings and N. Rulyova, *The Post-Soviet Russian Media: Conflicting Signals* (Oxford: Routledge Taylor & Francis, 2009), pp. 37-55.

적어도 언론정책의 측면에서 푸틴은 자신의 KGB 시절 상관(수장)이었던 유리 안드로포프(Y. Andropov)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신의 반대자들 모두의 입을 강제로 닫게 하는데, 물론 오늘날의 작동 시스템은 소련과는 다르다. 이론적으로는 어느 선까지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한다. 작게 유지된다면 소규모의 독립 언론은 존재가능하다. 즉, 현상에 본질적으로 위협이 되지만 않는다면 독립적인 언론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⁴²⁾ 푸틴의 언론정책이 민족주의와 갖는 연관성은 앞서 제시했듯이, 푸틴 집권 이후 주요 미디어를 실질적으로 정부 통제 하에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디어를 통한 정권 차원의 선전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현실에서 비롯된다. 러시아에서 언론 매체는 애국주의 수사의 전파에 있어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가 주도하던 애국주의 전파는 사회 각 부문으로 파급 효과를 갖는데 앞서 제시했듯이, 문화와 학문 분야가 대표적이다.

VI. 러시아민족주의와 푸틴주의 비교 및 평가

러시아민족주의의 조류와 푸틴체제의 민족주의적 속성을 비교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준거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민족주의가 시대적 의미를 갖는 것은 국가적·사회적으로 혼란기 혹은 과도기에 러시아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⁴³⁾ 또 미래를 위한 잠재력을 갖게끔 해주는 원천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⁴⁴⁾ 이를 전제로 한다면, 푸틴 집권 초반기는 아직 옐친 집권기의 비능률과 사회적 무질서 및 통치권의 비효율 등이 얹혀 있었던 혼란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대내적 결속을 위해 민족주의적인 수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반면에, 푸틴의 집권 구조가 안정화된 시기, 즉 집권 2기에 들어갔던 2004년 이후에 민족주의적 수사가 계속되었다면 충분히 다른 각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이후 푸틴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푸틴체제 하에서 민족주의 혹은 초민족주의적 수사를 지속·강화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무엇보다도 푸틴체제를 작동하는 공식구조인 크렘린, 정당과 외곽단체 등에서 민족주의적 슬로건을 갑자기 철회하거나 약화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족주의 혹은 초민족주의를 정치적 수사로 계속 활용할 경우 푸틴체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크다. 민족주의를 이념적 무기로 장기적으로 집권하여 성공적으로 마친 정권을 찾기는 힘들다.

둘째, 민족주의적 담론이 러시아 정국의 중심 의제로 자리 잡아 왔다는 사실은 크렘린과 여당이 주도하는 정국에 안정을 기하는 하나의 매개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푸틴체제에 부메랑이 될 공산이 크다. 러시아 정가에서 활동하는 모든 정당 및 정파가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고 그것이 크렘린의 그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을 때, 정치활동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되는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정치 이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이 점에 있어 러시아 정국은 옐친 통치 기인 1990년대보다도 퇴보한 흔적이 역력하다. 옐친 집권 당시에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의회 정파들과 정치인들이 자유주의, 사회

42) 우평균(2014), p. 26.

43) Marlène Laruelle (2009), pp. 4-5.

44) Э. А. Паин,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й маятник. Динамика и механизмы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в пост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모스크바: Институт социологии РАН, 2004), стр. 312.

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념적 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쟁했던 흔적이 있었으나, 현 푸틴 체제에서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발견하기 힘들다. 즉 ‘민족주의’라는 단일 의제에 종속되어 움직이는 정치체제의 속성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더러, 민족주의가 다분히 ‘감정(emotion)’에 의해 촉발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대외적 갈등의 촉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셋째, 푸틴체제는 철저하게 개인에 의존한 체제(personalized system)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은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실로비키들이 주요 요직에 포진해 있다. 푸틴의 측근들 몇몇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에너지 회사들과 은행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에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산업계의 수장 역할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해 푸틴이 구축한 체제는 푸틴이 사라지면 함께 없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푸틴주의 혹은 푸틴체제라는 것도 물론 러시아 국가에 대한 기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푸틴의 집권이 장기화하면서 조명을 받게 된 측면이 크다. 푸틴주의는 정교한 이념적 구조물이 없으며,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는 내용적 장치 또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데올로기 보다는 ‘권력의 수직화’, ‘주권민주주의’, ‘법의 독재’ 같은 몇몇 개념적 도구들을 갖고 있을 뿐이다. 푸틴의 집권 기간이 최장 24년까지 보장되어 있다. 이 기간은 브레즈네프(L. Brezhnev)의 18년, 니콜라이 2세(Nicholas II)의 22년보다도 길다. 반면에 러시아민족주의는 러시아에서 면면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푸틴은 러시아민족주의를 도구로 삼아 정치를 하다가 사라지는 지도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푸틴주의는 사라져도 러시아민족주의는 러시아 역사에서 오래도록 존속될 것이다.

넷째, 푸틴주의가 러시아민족주의의 순기능적인 측면과 결합하면서 역사에 남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역사적 선례가 존재한다. 그것은 1950~1960년대 유럽의 냉전사에 깊은 각인을 남긴 드골의 업적과 그의 정치적 사고를 통칭하는 ‘드골리즘(Gaullism)’의 길이다. 푸틴 자신이 자신의 역사적 역할 모델로 드골을 선호했던 만큼, 향후에 이를 실현할 의지도 푸틴 자신에 달려 있다. 지도자 개인에 지나치게 의존한 체제인 푸틴주의가 푸틴 퇴장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역사적으로 존중되고 러시아에 희망이 되는 방법은 푸틴주의에서 지나친 국가주의를 탈각하면서 푸틴 리더십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길이 드골의 길과 유사한 그것이 될 것이다. 즉, 국가가 주도하되, 사회적 활력을 유지하고,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체제가 유지된다면 러시아민족주의와 결합한 푸틴주의의 진면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민족주의가 비공개의 영역에서 벗어나 햇빛을 본지 20년이 넘었지만, 외부 세계 특히 서구에서는 러시아민족주의를 ‘우익(right wing)’으로 간주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극우(extreme right)’로 보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⁴⁵⁾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민족주의의 다양한 분파들을 분리하여 그들의 주장이나 단체의 성격에 따라 엄밀히 구분하지만, 언론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러시아민족주의는 극우라는 인식이 증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서구의 일반 대중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러시아민족주의가 푸틴과 집권세력이 내세우는 국가주의 성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단들 속에서 ‘인종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베르호프스키(Aleksander Verkhovsky)는 러시아민족주의가 전략적 사고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⁴⁶⁾ 둘째는 러시아민족주의가 정치화되면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

45) A. Umland, *The Fascist Threat in Post-Soviet Russia-An Investigation into the LDPR-Ideology 1990-1993, and Some Tentative Sugges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weimar Russia" Metaphor* (Brussels: NATO), p. 94; N. Ferguson, "Look back at Weimar-and Start to Worry about Russia," *The Telegraph*, January 1, 2005.

46) Alexander Verkhovsky, "Future prospects of contemporary Russian nationalism," Marlène Laruelle, eds., *Russian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Reassertion of Russia* (New York: Routledge, 2009), pp. 89-103; A. Верховский, "Пе

하다. 즉 소련 시대에 소수민족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지배가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서 나타났던 러시아인들의 민족적인 불만에 대해 억압하고 드러내길 꺼려했던 소련 지도부의 정책이 고르바초프(M. Gorbachev)가 페레스트로이카(Gorbachev)를 실시한 이후에 붓물처럼 터지기 시작한 러시아민족에 대한 관심은 애초에 상당 부분 러시아 민족의 원천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역사 및 기념물, 농촌 문화를 비롯한 러시아 문화에 대한 것이었다.⁴⁷⁾ 이같은 관심사에 대한 집중으로부터 점차 민족주의 단체들과 정당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면서 1990년부터 고도로 정치화되는 상황이 조성되었고, 푸틴 집권 이후 이같은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푸틴주의가 역사에서 의미있는 족적을 남기려면 지나친 국가주의 경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주효하다고 한 것처럼, 러시아민족주의의 정치성을 탈각하고 초기 러시아민족주의의 관심사였던 러시아문화에 대한 애착과 강조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푸틴체제와 러시아민족주의의 결합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V. 결론

본 논문을 통해 러시아민족주의의 성격과 범주 및 푸틴주의의 민족주의와 위 연관성을 살펴보고 양자를 평가하고자 했다. 그 결과, 러시아민족주의는 러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해왔던 이념형이지만, 푸틴주의는 푸틴 1인 장기 집권이 낳은 시대적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푸틴주의와 러시아민족주의, 양 자는 푸틴주의의 슬로건 및 주요 선전도구로서 러시아민족주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공유하는 부문이 존재하지만, 조건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정권 차원의 언술체계 속에 러시아민족주의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러시아민족주의는 제정러시아 및 소비에트 시기를 거쳐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에 이르러 러시아의 정치권에서 대단히 활성화된 이념형으로서 현대 러시아 정치사에서 대표적으로 공론화된 중심적인 의제가 되었다. 러시아민족주의가 소비에트 시대에 잊혀져 가는 러시아 문화의 중심적 가치를 일깨우고 러시아 역사 및 문화적 유적을 보존하고 계승시키려는 러시아 지식인들의 갈망에서 비롯되었던 차원이었던 반면에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민족운동 단체의 분출과 정당 결성 및 그들 간의 정치적 경쟁은 20년이 지난 2010년대의 시점에서 러시아민족주의 자체를 대단히 정치화한 결과를 낳았다. 2000년대에 푸틴정권이 집권한 후에는 러시아민족주의를 정권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푸틴과 집권세력이 이슈화를 시도하고 러시아민족주의 담론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도권에서 활동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민족주의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고 정치적 생존권을 보장받는 구조로 변모했다. 그 결과, 러시아민족주의를 주창하는 세력들의 분포에서 푸틴과 집권세력 및 러시아연방공산당과 자유민주당 같은 주요 정당들이 중심세력을 이루게 되었고, 반주변부 및 주변부로 밀려난 의석이 없는 민족주의 정당들과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외곽단체들이 경쟁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정권 당시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러시아의 민족적 가치를 중심에 놓고 사고했던 많은 지식인들과 집단들은 정치세력 범주에서

респективы радикального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Журнал Индекс/Досье на цензуру, С одерживные номера 25 2007, <http://index.org.ru/journal/25/verch25.html> (검색일: 2014.3.2).

47) John B. Dunlop, *The New Russian Nationalism*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5), pp. 5-102; John B. Dunlop, *The Faces of Contemporary Russian Nation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3), pp. 63-92; Valery Tishkov, *Ethnicity, Nationalism and Conflict in and after the Soviet Union*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1997), pp. 246-277.

밀려나 형해화되었고, 정치지향적인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족주의 세력 경쟁이 이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민족주의가 러시아에서 전통을 갖고 있는 분명한 하나의 이념이라면 푸틴주의는 푸틴 체제를 지칭하는 시대적 산물이다. 푸틴체제는 푸틴 집권이 장기화하면서 확립된 나름의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 혹은 네트워크 시스템(network system)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푸틴 체제는 과도하게 푸틴 개인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었는데, 이 체제가 효율적인지 혹은 푸틴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존하는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듯하다.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푸틴체제는 자체의 이념을 갖고 있지 못하며, 다만 몇 가지 개념들을 활용해왔고, 통치의 지배적 언술로 민족주의적 수사를 빈번하게 활용했다. 따라서 푸틴정권이 구사하는 민족주의 및 초민족주의 수사는 제정 러시아 및 소비에트 러시아의 전통 속에 존재했던 러시아민족주의의 계보를 잇는 관주도민족주의의 전형인데, 과거 정권 차원의 관주도민족주의가 시간이 지나면, 즉 정권이 끝나면 사라졌듯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임이 자명하다. 덧붙여 러시아민족주의는 혼란기 러시아 사회에서 안정화의 기능을 갖는, ‘자기 정화(self purgative)’ 작용을 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기에 과도기 혹은 사회적 혼란기가 어느 정도 정돈된 후에도 정치권에서 모든 세력이 민족주의를 우선에 놓고 사고한다면 러시아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안정화의 기능을 상실하고, 민족주의의 반대 급부, 즉 ‘민족지상주의’ 및 ‘감정’에 기초한 민족 간 반목 같은 민족주의의 역기능적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탈피 혹은 예방하려면 푸틴주의에서 과도한 국가주의의 요소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활력을 제고하고, 통제 만능이 아닌 리더십의 역할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정치적 담론에서 민족주의의 비중을 현격하게 줄이고 다양한 정치 이념이 논의되는 경쟁의 장으로 정치의 공식 부문이 변모하는 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우평균, 2003. “소연방 해체 이후의 러시아민족주의: 그 성격과 내용,” 서진영·우철구·최영종 편, 『탈냉전기 동북아의 국제관계와 정치변화』. 서울: 오름, 297-301.
- 우평균. 2013. “소연방과 러시아민족주의,”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사업단 엮음, 『소련제국의 민족과 경제관계』 (서울: 민속원, 2013), 83-148.
- 우평균. 2014. “현대 러시아의 통치이념: 푸틴주의의 성격 및 평가.” 『민족연구』 제57호, 22-48.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Armstrong, John, 2011. *Nation before Nationalis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Beumers, B, S. C. Hutchings and N. Rulyova, 2009. *The Post-Soviet Russian Media: Conflicting Signals*. Oxford: Routledge Taylor & Francis.
- Brubaker, R. 1996. *Nationalism Reframmed: Nationhood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the New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ubaker, Roger. 1993. “East European, Soviet, and Post-Soviet Nationalism,” Frederick D. Weil, Jeffrey Huffman, and Mary Gautier, eds., *Research on Democracy and Society, Vol. 3*. Greenwich, Conn.: JAI Press, 353-378.
- Connor, Wallker. 1994. *Ethnonationalism: The Quest for Understand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eutsch, Karl W. 1966.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Cambridge: MIT Press.
- Dunlop, John B. 1983. *The Faces of Contemporary Russian Nation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unlop, John B. 1985. *The New Russian Nationalism*.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Dunlop, John B. 1996. “Alexander Barkashov and the Rise of National Socialism in Russia,” *Demokrazatsia*, No. 4, 519-530.
- Ferguson, N. 2005. “Look back at Weimar-and Start to Worry about Russia.” *The Telegraph*, January 1.
- Fikke, G. 2002. “Patriotic Left-Centrism: The Zigzag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Europe-Asia Studies* 51-2,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 Gell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N. Y.: Cornell University Press.
- Hale, Henry E. 2010. “Russia's political parties and their substitutes,” White, Stephen, eds. *Developments in Russian Politics 7*. New York: Palgrave Macmillan, 81-98.
- Hastings, Micheal. 1997. *The Construction of Nationhood: Ethnicity, Region and Nat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rpen, Marcel H. Van. 2013. *Putinism: The Slow Rise of a Radical Right Regime in Russia*.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an.
- Hill, Ronald J. and Ottorino Cappelli. 2013. *Putin and Putinsim*. New York: Routledge.

- Horowitz, Donald. 1985. *Ethnic Groups in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udah, Ben. 2013. *Fragile Empire: How Russia Fell In and Out of Love with Vladimir Puti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Kaiser, Robert J. 1994. *The Geography of Nationalism in Russia and the USS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dourie, Elie. 1960. *Nationalism*. London: Hutchinson.
- Laitin, David. 1991. "The National Uprisings in the Soviet Union," *World Politics*, 44-1(Oct).
- Laitin, David. 1998.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aruelle, Marlène. 2009. "Introduction," Marlène Laruelle, eds., *Russian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Reassertion of Russia*. New York: Routledge, 27-28.
- Lipman, Masha and Micheal McFaul. 2010 "The Media and Political Developments," Stephen K. Wergen and Dale R. Herspring, eds., *After Putin's Russia: Past Imperfect, Future Uncertai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109-132.
- Loruelle, M. 2004. "The Discipline of Culturology: A New 'Ready-Made Thought' for Russia?" *Diogenes*, No. 204, 21-36.
- Lynch, Allen C. 2011. *Vladimir Putin and Russian Statecraft*. Washington, D.C.: Potomac Books.
- March, L. 2002. *The Communist Party in Post-Soviet Russia*.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cClintock, A. 1996. "No Longer in a Future Heaven: Nationalism, Gender, and Race, G. Eley, R. G. Suny, eds. *Becoming National: A Reader*.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60-285.
- Parland, T. 2000. "Russia in the 1990s: manifestations of a Conservative Backlash Philosophy," C. J. Chulos and T. Pirainen, eds. *The Fall of an Empire, the Birth of a Nation: natiuonal Idntities in Russia*. Aldershot, UK: Ashgate, 116-140.
- Roeder, Philip. 1991. "Soviet Federalism and Ethnic Mobilization," *World Politics* 43-2.
- Russell, Jose, Ronald Cohn. 2012. *Putinism*. Book on Demand
- Smith, Anthony D. 2013. *Nationalism and Modernism: A Critical Survey of Recent Theories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 Suny, Ronald Grigor. 1993. *The Revenge of the Past: Nationalism, Revolution,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haden, E. C. 1964. *Conservative Nationalism in Nineteenth Century Russi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Tishkov, Valery. 1997. *Ethnicity, Nationalism and Conflict in and after the Soviet Union*.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Umland, A. 1995. *The Fascist Threat in Post-Soviet Russia-An Investigation into the LDPR-Ideology 1990-1993, and Some Tentative Sugges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weimar Russia" Metaphor*. Brussels: NATO.
- Verkhovsky, Alexander, 2009. "Future prospects of contemporary Russian nationalism," Marlène Laruelle, eds., *Russian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Reassertion of Russia*. New York: Routledge, 89-103

- White, Stephen. 2005. "The Political Parties," Stephen White, Zvi Gitelman, Richard Sakwa, *Developments in Russian Politics* 6. New York: Palgrave Macmillan. 80-95.
- Young, Crawford. 1983. "The Temple of Ethnicity," *World Politics*, 35-4 (July).
- Zaslavsky, Victor. 1992. "Nationalism and Democratic Transition in Postcommunist Societies," *Daedalus* 121-2.
- Zassoursky, Ivan. 2004. *Media and Power in Post-Soviet Russia*. New York: M.E.Sharpe.
-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1988. "Russian Nationalism Today?," Radio Liberty Research Bulletin (Munich), *Special Issues*, December 19.
- Верховский, Александр Маркович, Анатолий Папп, Владимир Прибыловский, 1996. *Политический экстремизм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Информационно-экспертная группа "Панорама."
- Верховского, А. М. ред. 1997. *Левые в России: от умеренных до экстремистов*. Москва: Изд-во "Ин-т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й социологии."
- Верховский, А. М. 2007а. *Верхи и низы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Москва: Панорама.
- Верховский, А. 2007б. "Перспективы радикального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Журнал Индекс/Досье на цензуру, Содержимие номера 25, <http://index.org.ru/journal/25/verch25.html> (검색일: 2014.3.2).
- Верховский, А. М, Э. А. Паин, 2013. "Цивилизационный национализм: Российская версия «Особого пути»,» *Политическая концептология*, № 4, 23-45.
- Гудков, Лев. 2005. "Своеобразие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Pro et Contra*. №. 2, 6-24.
- Дробижева, Л. М. 2013. *Гражданская, этническая и регион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вчера, сегодня, завтра*. Москва: Российск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Ларюэль, Марлен. 2008. *Рус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 Москва: Новое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 Лихачев, Вячеслав. 2002. *Нацизм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Панорама.
- Паин, Э. А. 2004.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й маятник. Динамика и механизмы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в пост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социологии РАН.
- Самоваров, Александр. 2008. *Перспективы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национализм с человеческим лицом*. Москва: Самоотека.
- Соловей, Татьяна, Валерий Соловей. 2010. "Апология рус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Национал-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Альянс*, <http://nazdem.info/texts/36> (검색일: 2014.3.4).
- Центре франко-руссе эн сциенцес нумайнес эт социалес де Москоу. 2007. *Рус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Франко-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гуманитар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 Шнирельман, В. 2012. *Русское родноверие. Неоязычество и национализм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Библийско-Богосл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управление страной и 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http://ldpr.ru/party/Program_LDPR/Nation_building_governance_and_civil_society/ (검색일: 2014.2.28).
- Концеп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ерждена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5.06.1996, No. 909, <http://www.russia.edu.ru/information/legal/law/up/909/2051/> (검색일: 2014.2.27).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의 전개

김태연(서울대학교)

I. 서론: 정의 및 분류의 문제

민족주의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러시아 민족주의, 보다 정확하게는 루스키(ethnic Russian) 민족주의 역시 그 명확한 정의를 내리거나 유형화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현상이다. 민족주의를 폭넓게 규정하자면 민족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정치체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 사회·정치운동, 혹은 민족을 중심으로 현실을 이해하는 대중정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루스키 민족주의는 이러한 민족주의 개념이 루스키 민족에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의 역시 여전히 다양한 주장과 행위를 포함하는 추상성과 모호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현실에서 루스키 민족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 포괄적인 정의 아래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그 구체적인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물들이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러시아 국가에서 루스키 민족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위치와 역할의 정도, 루스키 민족주의적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이념적 지형에서 루스키 민족주의가 위치하는 좌표 등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원칙에 따라 혹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루스키 민족주의를 분류하려는 시도들은, 러시아 민족주의 문제의 권위자 라뤼엘(Marlene Laruelle)의 말에 따르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¹⁾

우선 국가 내에서 루스키 민족이 차지해야 하는 입지와 위상을 배타적·독점적인 것으로 주장하는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우월적·주도적인 것으로 지향하는지에 따라 루스키 민족주의는 흔히 자민족중심주의적(ethnocentric) 유형과 제국주의적 유형이 포함되는 국가주의적(statist) 유형으로 구분된다.²⁾ 모스크바공국 이래로 러시아 국가의 역사적 발전 경로는 연속적인 영토 팽창과 정복과 동화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는 일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러시아 국가와 루스키 민족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루스키 민족주의의 내용과 성격을 가르는 첨예한 이슈가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화는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국가와 민족의 경계는 불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불분명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자민족중심주의적·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서로 중첩되고 차용되는 요소를 갖기도 한다. 즉, 자민족중심주의적 루스키 민족주의라고 해서 국가주의적 지향을 전적으로 배제하여 순수한 루스키 민족만의 국가 건설이라는 루스키 분리주의적 요구로 귀결되는 경우는 드물고, 국가주의적 루스키 민족주의도 자민족중심주의를 포기하여 루스키 민족의 우위 혹은 보

1) 마를렌 라뤼엘 지음, 김태연 옮김, 『민족의 이름으로: 현대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정치』 (서울: 그린비, 2012), p. 92.

2) 김태연, “현대 러시아에서의 루스키 민족주의: 그 발생, 특성 그리고 정치적 의미,” 『슬라브학보』 제24권 1호 (2009), pp. 152-153.

호 없이 모든 민족이 평등한 정치체의 실현은 좀처럼 자신의 목표로 표방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민족중심주의와 국가주의는 연속 스펙트럼에서 정도에 따라 나누어지기도 이어지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 차이를 감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민족주의 유형이라는 점에서 이 두 척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루스키 민족주의의 특성을 밝혀내려는 시도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루스키 민족주의 단체나 정당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활동 전술과 수단에 따라 루스키 민족주의는 급진적 민족주의와 비급진적·온건 민족주의로 구분될 수도 있다. 전자는 혁명이나 직접행동 등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후자는 정당으로의 이행이나 선거 참여 혹은 합법적 활동 같은 대체로 국가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이상과 요구를 실현하려는 형태의 루스키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가지 분류 기준도 자민족중심주의/국가주의 척도와 유사한 이유에서 그 적실성이 제한적이다. 정치적 상황과 기회, 지도자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동일한 민족주의 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술적 움직임은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의 급진성/온건성에 따른 민족주의의 유형화는 특정 시기에 한정된 운동의 모습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법으로는 하나의 민족주의 단체가 급진적/비급진적 행동 전술을 넘나들며 구사하거나 민족주의 단체가 주장하는 자신의 비급진성이 국가나 사회에서는 급진성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등 민족주의적 수단과 방법의 유동성과 상대성을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념적 좌표에 따른, 다시 말하면 좌우 대립구도에 따른 루스키 민족주의의 자리매김 및 유형화는 다소 복잡한 맥락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기 힘들다고 하겠다. 에반스(Geoffrey Evans)와 화이트필드(Stephen Whitefield)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의 경험과 체제전환의 영향으로 인해 서구와는 상이한 좌우 개념이 형성되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한편으로는 좌파 국가로서의 자아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좌익 소아병’, ‘우익적 편향’ 같은 부정적·경멸적 어감의 용어 때문에 좌우 개념의 유통이 활발하지 않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페레스트로이카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좌우 개념은 뒤바뀌는데, 좌파는 개혁과 체제변화를 지지하는 세력을, 우파는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에 찬성하는 보수 세력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러시아에서 좌우 개념은 다시 한 번 반전되는데,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 문제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좌우의 사회적 기반, 이데올로기적 성격 모두 변화하면서 좌파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우파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들을 의미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³⁾ 이처럼 러시아에서는 좌우 개념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변화함에 따라 그 스펙트럼 상에서 루스키 민족주의의 위치를 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루스키 민족주의의 이념적 지향 자체에서도 좌우의 잣대로 규정하기 힘든 측면이 발견된다. 즉, 러시아에서는 보수주의 세력이라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우파와 자유주의 세력이라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우파가 분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딜레마가 정치적으로는 명백하게 우파에 속하지만 대체로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경험을 긍정하는 루스키 민족주의의 위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루스키 민족주의 단체들이 소비에트 노스탤지어의 연장선에서 복지국가를 주장하면서도 기업 활동에 유리한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옹호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좌파적 요구와 우파적·포퓰리즘적 요구가 혼합된 이들의 주장도 좌우 구분에 따라 루스키 민족주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말해준다.⁴⁾

3) Geoffrey Evans and Stephen Whitefield, “The Evolution of Left and Right in Post-Soviet Russia,” *Europe-Asia Studies* 50-6 (1998), pp. 1024-1033.

4) Marlène Laruelle, “Rethinking Russian Nationalism: Historical Continuity, Political Diversity, and Doctrinal Fragmentation,” in Marlène Laruelle (ed.), *Russian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Reassertion of Rus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pp. 34-35.

따라서 라뤼엘은 루스키 민족주의의 특정한 단체들에 대해 논의할 때 이들이 러시아 정치현실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원외주의(extra-parliamentarianism)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제안하는데, 이 글은 이러한 접근법에 의거하여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원외 민족주의 이념과 활동이 전개된 과정과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원외 민족주의를 특징짓는 가장 큰 요인은, 문자 그대로 그 진영에 속한 단체들이 대의제를 거부하며 선거에 전혀 혹은 거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권 정치 내에서의 대표가 아니라 의회 밖에서의 활동과 지지 획득에 전념한다는 점이다.⁵⁾ 개별 인사들의 주도로 간혹 원외 민족주의 세력이 선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의회 진출의 벽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원외/원내 민족주의의 구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어떠한 인물과 단체들이 어떠한 이념과 활동을 펼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기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우선 어떠한 사회정치적 맥락과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가 출현하여 전개되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의 사회정치적 환경

원외 민족주의를 포함한 루스키 민족주의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 시기는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출범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도 루스키 민족주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특히 고르바초프 시기에 이르면 자유화의 흐름을 타고 초보적인 수준에서이긴 하지만 민족주의 단체의 결성 및 민족주의 주장의 공공연한 표출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초반 작가, 예술가, 역사학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하여 반유대주의를 주요 이념으로 삼게 된 민족주의 단체 파마트(«Память»)가 1987년 5월 모스크바 마네지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당시 소련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 제1서기였던 옐친과 만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대표적이다.⁶⁾ 중앙권력의 억압과 통제가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환경·인권·여성 문제 등과 관련한 각종 사회운동단체들이 다양한 이슈와 요구를 제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는 달리 공공이익의 추구가 아닌 협소한 민족적 배타의식의 표현·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루스키 민족주의 진영도 불완전하게나마 조직화와 활동의 전개를 위한 기회의 공간을 얻게 된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는 연방 차원에서나 개별 공화국 내에서 여러 소수민족들 간의 분쟁이나 이들의 분리주의·민족주의 움직임이 예상과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대한 사회정치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활발해지는데, 이러한 점 역시 이후에 러시아인이 민족감정·의식을 각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가 전개되는 데 이바지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빠르게 진행된 소연방의 해체, 15개 연방공화국의 독립, 신생 독립국들의 탈러 혹은 반러 정서·움직임을 예견하기도,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적 준비를 하기도 어려웠던 러시아 대중과 민족주의 진영에게 이러한 현실의 급변은 실망과 원망, 상실감과 박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는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가 맹아적 단계를 벗어나 보다 견실한 조직과 규모를 갖추어 이념적·실천적 활동을 펼쳐나가는 비중 있는 사회현상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이

5) 라뤼엘 (2012), p. 93.

6) Александр Верховский and Владимир Прибыловский, *Национал-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деология, экстремистские тенденции* (М.: Институт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й социологии, 1996), pp. 10-15.

러한 과정 역시 몇몇 주목할 만한 사회정치적 상황과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신생 러시아연방은 당-국가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급진적인 이행에 착수했고, 그 결과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무능, 경제적 몰락과 빈곤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양한 사회정치세력이 개혁·엘친·서구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입장을 놓고 1990년대 내내 격렬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형성했는데, 이는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에게 한편으로는 정치무대에서 자신의 주장의 선명성을 드러낼 기회를, 다른 한편으로는 진영 내부 분열을 심화시킬 소지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1993년 가을 유혈사태로 종결된 엘친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 1996년 여름 엘친의 재선으로 끝난 대선 같은 중요한 선택의 시기에서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 내의 특정 단체는 이를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이는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이념적 논쟁과 불화로 합의의 형성과 세력의 규합에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단체들의 파편화를 증폭시키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체제전환에 수반된 제반 어려움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의 지형 외에도 엘친 시기의 러시아에서는 이데올로기 및 정체성 공백의 문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회적 환경 역시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의 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⁷⁾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한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급진적 체제전환이 재앙에 가까운 고통을 초래함에 따라 그 논리의 기저에 놓여 있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러시아인의 기대와 믿음도 급격하게 무너져버렸고, 이는 민족주의가 대안적 이념으로 대두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되었다. 또한 소비에트 국가의 소멸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정 정도 형성되어가고 있던 ‘소비에트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발을 디딜 토대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족이 새로운 정체성의 준거로 기능하기에, 민족정체성의 공고화를 주장하는 민족주의 세력의 호소력이 대중의 공감을 얻기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때 의회 진출을 시도한 민족주의 세력이 다양한 민족의 유권자를 의식하여 자민족중심주의적 노선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는 달리, 원외 민족주의 진영은 보다 예민하고 배타적인 성격과 내용의 민족주의 이념 및 민족정체성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한편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발화한 소수민족들의 분리주의·민족주의 움직임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초반까지도 진화되지 않았고, 1994년 12월, 1999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발한 체첸전은 그 절정을 보여주는 듯했다. 1990년대 초반 러시아연방에서는 체첸공화국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구성주체들도 주권과 자치를 요구했는데, 구소련 해체의 뒤를 이은 러시아연방 해체에 대한 우려는 바로 이러한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엘친 정권은 정치적·경제적으로 허약했지만, 국가 해체의 위험을 방관할 수는 없었고, 거센 독립의 의지를 표명한 체첸에 대해서는 군사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일부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단체는 이 사태를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인다. 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전쟁이 일반적으로 그러하지만, 특히 테러리즘과 연관하여 일어난 2차 체첸전은 대중 사이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되는 데 기여하고, 이에 따라 이후 시기의 러시아 사회에는 체첸인 및 카프카스인에 대한 혐오와 공포의 감정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일상적 민족주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다.⁸⁾

2000년대 푸틴의 러시아는 엘친 시기의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국가로 변모하고, 따라서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도 크게 달라진 사회정치적 환경에 처하게 된다. 간략히 말하면, 푸틴 시기 러

7) 김태연 (2009), pp. 153-154.

8) 라워엘 (2012), pp. 75-77; 김태연, “러시아인이 바라보는 체첸인, 체첸인이 바라보는 체첸,” 『중소연구』 제37권 제1호 (2013a), pp. 322-324.

시아의 경제상황은 놀랄 만큼 호전되었고, 국가권력은 중앙집중적이 되었으며,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적이 되었다. 이때 정치체제의 권위주의화가 그 자체로 원외 민족주의 진영에게 유리한 혹은 불리한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국가권력이 큰 틀에서는 민족주의 이념과 담론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는 개별 원외 민족주의 단체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가가 그 환경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푸틴 정권이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를 대하는 입장은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담론적·실천적 요소를 활용·전유하려는 노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역사적 상징과 기념일의 복원, 러시아정교회와의 관계 정립, 많은 예산을 투입한 애국주의 교육의 실시 등 사회적 합의의 형성을 위해 푸틴 정권이 민족주의적 수사나 정책을 차용·도입했음을 말해주는 사례는 매우 많다.⁹⁾ 이러한 정권의 애국주의 담론이 승자들의 민족주의로 비친다면, 이에 비해 소비에트 과거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원외 진영의 민족주의는 패자들의 노스텔지어로 여겨지기 때문에, 애국주의 담론은 민족주의 세력의 언어 공간과 경쟁력을 크게 위축시킨다.¹⁰⁾ 그렇지만 정권의 담론과 행위가 언제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원외 민족주의 진영이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는 틈새 공간도 존재하게 된다.

2000년대 러시아 국가권력이 원외 민족주의 진영을 대하는 자세는 선별적인 고강도 억압의 적용과 묵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은 제기하거나 그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을 펼치는 민족주의 단체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강도 높은 제재나 억압이 가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암묵적 공감, 심지어는 공조의 태도가 취해지기도 하는 것인데, 이는 정권이 “관리 민족주의”(managed nationalism)의 창출을 하나의 가능성 있는 안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¹¹⁾ 이러한 현실에서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 내의 개별 단체는 자신의 지향과 능력에 따라 순응·우회·저항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쉽지 않은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러시아 사회에서 혐오와 공포의 감정으로서의 민족주의 정서가 만연하게 되었다는 점은 원외 민족주의가 전개되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대중의 민족주의 정서는 비단 체첸인이나 카프카스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많은 사회학 연구결과가 다른 소수민족이나 이주자에 대한 러시아 사회의 반감 역시 꾸준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¹²⁾ 이처럼 소비에트 국제주의와 평등주의의 흔적을 찾기 힘들 정도로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인의 인식과 감정이 민족주의적으로 일변했다는 점은 물론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세력에게 유리한 활동의 배경이자 동력의 의미를 갖지만, 이로 인해 원외 민족주의 진영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강화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1990년대와 2000년대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원외 민족주의 진영은 어떠한 이념과 행동을 전개했는지를 몇몇 주요 민족주의 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9) 라뤼엘 (2012), pp. 268-336.

10) Marlène Laruelle, “The Ideological Shift on the Russian Radical Right: From Demonizing the West to Fear of Migrants,” *Problems of Post-Communism* 57-6 (2010), p. 22.

11) 김태연,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불법이주반대운동’(ДПНИ)의 성공요인,” 『국제정치논총』 제50집 5호 (2010), pp. 68-71; Emil A. Pain, “Xenophobia and Ethnopolitical Extremism in Post-Soviet Russia: Dynamics and Growth Factors,” *Nationalities Papers* 35-5 (2007), p. 906.

12) 김태연 (2010), pp. 72-73; 라뤼엘 (2012), pp. 74-87; Laruelle (2010), pp. 23-24; Pain (2007), p. 896.

III. 주요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단체들

이 장에서는 우선 1990년대 러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원외 민족주의 단체로 루스키민족통합(PNE: Рус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единство)과 민족볼셰비키당(НБП: Национал-большевистская партия)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가운데 민족볼셰비키당은 2000년대 후반까지도 활동을 계속했지만, 2000년대에는 노선이 달라짐과 동시에 활동과 조직이 위축되기도 했기 때문에 1990년대를 대표하는 원외 민족주의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단체로는 불법이주반대운동(ДПНИ: Движение против нелегальной иммиграции)과 스킨헤드 운동을 들 수 있는데, 스킨헤드 집단은 1990년대에도 존재·활동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 그 규모와 활동의 약진이 보다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특징적인 원외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하겠다.

1. 루스키민족통합

루스키민족통합은 파묘트에서 부의장을 지냈던 바르카쇼프(Александр Баркашов)가 이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1990년 10월 설립한 단체다. 1990년대의 가장 크고 활동적인 민족주의 단체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1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되기도 했지만, 전성기 멤버 수가 15,000명 안팎이었다는 평가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논의된다.¹³⁾ 대중성과 조직의 강력함을 동시에 달성한 원외 민족주의 단체였지만, 2000년 가을 바르카쇼프의 축출을 비롯한 일련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군소 단체가 파생되어 이전과 같은 규모와 조직의 단체로는 활동하고 있지 않다.

루스키민족통합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는 반서구주의와 반유대주의를 포함하는 단순하고도 공격적인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인종적 순수성 개념 같은 나치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 이념의 과도한 급진성 혹은 조야함은 이 단체를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게까지 한다. 예를 들어 단체의 강령은 혼합 결혼이 루스키 민족의 유전자를 훼손·희석시키기 때문에 그 강요나 선전을 엄격하게 처벌·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단체가 민족을 생물학적 종(種)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단체의 반서구주의는 바르카쇼프가 외국어 단어의 사용, 서구 음악 및 영화의 시청, 서구 제품의 수입 등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 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반유대주의는 그 자체로서 단체의 주요 논점은 아니지만, 미국은 유대인이 세계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거점이라는 주장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다른 문제를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활용된다.¹⁴⁾

루스키민족통합이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서의 승리나 선전을 기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니어서 번번이 입후보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참여하더라도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참담한 결과만을 얻을 뿐이었다. 이는 단체가 애초부터 선거나 정상적인 정치과정보다는 무력에 의한 권력 장악 혹은 국가 전복을 지향하는 조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단체는 마치 군사조직처럼 위계적·권위적 구조로 구성되어 모든 멤버가 전우, 동료, 지지자라는 단계적 범주로 구분되었고, 규율을 중시하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었으며, 멤버들의 일과에서 군사·스포츠 훈련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¹⁵⁾

13) Вячеслав Лихачёв, *Нацизм в России* (М.: Центр «Панорама», 2002), pp. 10-11.

14) Верховский and Прибыловский (1996), pp. 68-69; Stephen D. Shenfield, *Russian Fascism: Traditions, Tendencies, Movements* (Armonk, NY: M. E. Sharpe, 2001), p. 127.

루스키민족통합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권위를 인정받게 된 계기는, 1993년 가을 엘친 대통령과 당시 의회였던 최고소비에트 간의 대치 국면에서 약 150명의 단체 멤버들이 의회 건물 방어 및 의원 지도부 경호 업무를 맡아 교전에 직접 참여하기까지 하여 멤버 2명이 사망하는 등 단체가 사태의 전개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 일종의 투사의 이미지를 얻은 사건이다. 이 사태 이후 단체의 인지도 및 지지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처럼 높아진 명성과 확대된 규모를 바탕으로 단체는 국가권력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데, 군·경찰·특수부대 당국이나 출신 인사들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 멤버들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나 여러 도시에서 단체 멤버들이 경찰과 함께 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 순찰에 나선 것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인종주의적 동기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상업적·개인적 동기에 의해서도 단체 멤버들이 살인·폭행·협박·불법 무기거래 등 범죄활동에 개입된 경우가 많았는데, 단체 지도부는 단체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조직·명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 혹은 연관성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¹⁶⁾

2. 민족볼셰비키당

리모노프(Эдуард Лимонов)가 이끄는 민족볼셰비키당은 지리노프스키(Владимир Жириновский)의 러시아자유민주당(ЛДПР)으로부터 몇 차례의 분화 과정을 거쳐 1994년 11월 공식 결성된 단체다. 주요 창립 멤버로는 현재는 신유라시아주의자로 유명해진 이론가 두긴(Александр Дугин)과 록 뮤지션 레토프(Егор Летов)가 있다. 러시아 51개 지역에 지부를 두었고, 멤버 수는 약 7천 명에 달했지만,¹⁷⁾ 2007년 8월 대법원이 단체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판결하면서 그 활동이 금지되었다. 이념, 구성원, 활동방식, 정치적 행보 등 여러 면에서 다른 민족주의 단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나타낸다.

스스로 민족볼셰비즘을 “최대주의적 민족주의”와 “극도로 사회주의적인 경향”, “파시즘과 공산주의에서 가장 극단적이었던 모든 것”을 결합하는 정치운동이라고 정의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민족볼셰비키당의 이데올로기는 좌우로 재단되지 않는 혹은 좌우를 막론하는 급진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의 이념적 지향에는 자민족중심주의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적 주장, 우파적 요구와 좌파적 목표 등 여러 모순적인 요인이 혼합되어 공존한다. 예를 들어 단체는 두마에 “러시아의 대통령으로는 루스키 혹은 슬라브 민족 국민만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헌법조항을 도입하자는 입법제안을 하는가 하면, 모든 루스키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고 루스키 주민이 50% 이상인 인근 영토를 러시아로 병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단체는 기관지에서 자신의 이념이 “서구에 의해 식민화된” “러시아에서 루스키의 권력을 수립”하여 “민족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혁명”이자 동시에 압도적 소수인 소유계급에 반대하여 다수의 시민을 위해 “경제적 정의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혁명”이기도 하다고 천명한다.¹⁸⁾

리모노프는 이러한 이념적 혼란과 모순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 역설적이라서 우리가 제안하는 해결책도 그러하다”는 말로 설명하는데, 이처럼 민족볼셰비키당은 이념적 문제에 대해 비교적 비교조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어느 민족주의 단체들과는 달리 멤버들이 지적

15) Лихачёв (2002), pp. 11-17, 40.

16) Лихачёв (2002), pp. 40-43; Верховский and Прибыловский (1996), p. 67; Shenfield (2001), pp. 137-141.

17) Лихачёв (2002), pp. 64-65.

18) Верховский and Прибыловский (1996), pp. 51-52, 131, 133.

이고 교육수준이 높은 청년층에서 많이 충원되었다. 그리고 민족볼셰비키당은 하위문화 혹은 대항문화 청년단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 역시 자신의 구성원으로 청년층 및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¹⁹⁾

또한 민족볼셰비키당은 활동방식 면에서도 다른 민족주의 단체들과 큰 차이를 나타낸다. 민족볼셰비키당도 직접행동을 표방한다는 점은 여타 민족주의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타국 국가나 재외 공관을 훼손하거나 장관 사무실이나 대통령 영접실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 공간에 난입하여 구호를 외치고 전단을 살포하거나 고르바초프처럼 추상적 현상이나 개념을 상징·대표하는 인물에게 계란이나 토마토를 던지는 등 단체의 정치적 표현은 연극성·상징성을 강하게 내포한다. 따라서 민족볼셰비키당이 폭력의 행사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멤버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는 질서의 수호를 내세우지만 그 멤버들이 폭행 등 중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잦은 루스키민족통합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²⁰⁾

한편 2000년대 들어 민족볼셰비키당과 리모노프의 이념적·실천적 지향은 크게 달라진다. 자민족중심주의적 민족주의의 요소도,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성격도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 단체의 담론과 구호에서 사라져버렸고, 이를 대신하여 단체는 자유주의 및 좌파 세력과 연합하여 현 정권에 대한 반대의 선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단체는 반푸틴 급진주의라는 독자적 노선으로 원외 민족주의 진영 전체와 구별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크렘린에서 걸어오는 “집요한 싸움”, 다시 말하면 국가권력으로부터 가해지는 고강도 억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²¹⁾

3. 불법이주반대운동

불법이주반대운동은 파묘트의 일원이었던 벨로프(Александр Белов)가 모스크바 근교에서 루스키와 이주자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 직후인 2002년 7월 설립한 단체다. 루스키민족통합은 사분오열되고 민족볼셰비키당은 국가의 탄압을 받으면서 원외 민족주의 진영이 침체기에 접어든 2000년대 러시아에서 개별 민족주의 단체로는 가장 성공적인 활동을 펼친 단체다. 이전 시기 민족주의 진영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분열의 주원인이었던 정교한 이데올로기의 정립·제시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과 활동적인 멤버 수를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유연하고 느슨한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적이다.²²⁾ 2011년 8월 대법원의 판결로 활동이 금지되었다.

불법이주반대운동의 담론적·실천적 전략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의 민족주의 단체들과는 달리 불법이주반대운동은 반서구주의·반유대주의 수사를 자제하고, 이미 2000년대 러시아 사회에 팽배해 있던 반이주자 담론과 정서를 이용하거나 이에 편승하는 논의와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명칭에서부터 ‘불법적인’ 이주에 대해서만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과 질서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은 무

19) Shenfield (2001), pp. 190, 210, 218; Лихачёв (2002), pp. 65-66.

20) Михаил Соколов, “Национал-большевистская партия: идеологическая эволюция и политический стиль,” in Александр Верховский (сост.), *Рус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 идеология и настроение* (М.: Центр «Сова», 2006), pp. 142-145.

21) 라뤼엘 (2012), pp. 132-136; Александр Верховский, “Эволюция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движения русских националистов,” *Вестник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1(107) (2011), p. 33.

22) 라뤼엘 (2012), pp. 136-137; Dennis Zuev, “The Movement Against Illegal Immigration: Analysis of the Central Node in the Russian Extreme-Right Movement,” *Nations and Nationalism* 16-2 (2010), p. 269.

엇이든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단체는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행진이나 집회, 피켓 시위 같은 행사의 주도·진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적 활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합법화 노선은, 민족주의 정서의 만연이라는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만나게 됨과 동시에 억압적 국가권력이라는 불리한 정치적 환경에 직면하기도 한 단체가 선택한 일종의 적응 혹은 순응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민족볼셰비키당의 강경한 저항과는 반대로 단체의 활동이 상당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 효과적인 선택이었다.²³⁾

불법이주반대운동의 활동에서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전략 및 활동을 매우 적극적·효율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우선 단체는 이주 문제, 특히 이주자나 비러시아인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뉴스와 정보의 제작·유포에 주력하고, 주류 언론과는 다른 대안적 정보를 확산·보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러한 텍스트 및 동영상의 제작과 게시에는 단체의 멤버가 아닌 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단체는 민족주의 진영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중심 마디”(central node)로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는 청년 하위문화 단체나 다른 원외 민족주의 단체는 물론이고 민족주의적 성향의 정당이나 개별 두마 의원까지 단체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등 단체가 민족주의 진영 네트워크에서 “링크 조직” 혹은 “가교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⁴⁾

불법이주반대운동이 명확한 강령이나 이념을 앞세우지 않은 열린 단체였다는 점은 장점이자 동시에 약점으로 작용하여 2006년 말 이후로 벨로프가 야당 세력에 합류하고 단체를 보다 정당에 가까운 구조로 전환시키려 함에 따라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²⁵⁾ 그리고 단체의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정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의 필요성 또한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반이주자 정서를 중심으로 결집된 단체의 태도가 친정부적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단체는 점차 국가권력의 압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4. 스킨헤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러시아 민족주의의 이미지는 아마도 그 규모와 폭력성으로 인해 러시아 국내외에서 폭넓은 관심과 우려를 받고 있는 스킨헤드 현상일 것이다. 이는 특히 2000년대 들어 외국인이나 이주자, 카프카스인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 스킨헤드의 폭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현저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대다수 스킨헤드 집단의 지위나 활동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만, 이제 스킨헤드 운동은 기존의 러시아 민족주의 단체에 속한 하위 혹은 부속 집단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사회적 기반과 영향력을 가진 독자적인 흐름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스킨헤드는 1990년대 초반 모스크바에서 수십 명이라는 소규모로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초기 스킨헤드는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소비에트 언론에 의해 소개된 서구 스킨헤드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고 대체로 차분하게 행동했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스킨헤드는 갑자기 주목할 만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는데, 이는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의 몰락, 교육의 붕괴,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국가의 붕괴에 따른 정체성 상실의 공포, 1993년 10월 열린 정

23) 김태연 (2010), pp. 79-80, 82-83.

24) Zuev (2010), pp. 266, 274-279.

25) 라뤼엘 (2012), p. 143; Верховский (2011), pp. 22-23.

부가 의회를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권력기구의 인종주의 폭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²⁶⁾ 1998년 4월에는 히틀러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스킨헤드의 폭력이 예고·실행되는데, 이는 러시아 스킨헤드 운동 및 그 폭력이 조직화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말해주는 사건이었다. 또한 2001년 4월과 10월 주로 카프카스계 및 중앙아시아계 상인들이 일하던 모스크바의 시장에서 연이어 벌어진 포그롬(pogrom) 행위는 이후로 러시아 스킨헤드의 인종주의 폭력이 보다 대규모로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탄이었다.²⁷⁾

2000년대 중반에 이르면 러시아 스킨헤드의 규모는 6만 명 혹은 그 이상으로까지 추산되는 등 단일 국가로는 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팽창할 뿐만 아니라 그 폭력의 질적 변화까지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04년 2월 타지크 민족 9살 여자아이를 11차례나 칼로 찔러 살해한다거나 2006년 8월 주로 아시아계 상인들이 일하던 모스크바의 한 시장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여 1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러시아 스킨헤드가 저지르는 폭력은 사실상 테러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러시아 스킨헤드의 폭력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불법이주반대운동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주자나 타민족, 특히 카프카스인에 대한 혐오와 공포의 감정이 만연해진 사회적 환경과, 민족볼셰비키당의 경우와는 반대로, 정권에 도전 혹은 반대하지 않는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국가권력기구가 암묵적 공감과 소극적 대응을 보이는 정치적 환경이 있다.²⁸⁾

러시아 스킨헤드 운동은 흔히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논의되지만, 보다 엄밀히 말하면 대다수 스킨헤드의 중심적인 이념적 지향은 인종주의 혹은 백인 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다.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소규모 스킨헤드 집단 내에서조차 네오나치즘, 반유대주의, 민족주의 등 다양한 이념적 요소의 영향이 발견되는데, 이는 이들에게서 결여된 것은 이념적 수사나 차용이 아니라 통일된 혹은 일관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말해준다.²⁹⁾ 스킨헤드에게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행동이며, 이들의 행동의 주된 양상은 타인종 혹은 타민족을 자신들과 동등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인종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폭력의 실천이다.

IV.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의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와 2000년대 러시아의 달라진 사회정치적 지형에서 다양한 원외 민족주의 단체들이 나름의 이념적 방향과 목표, 행동의 전략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쇠퇴하기도 했고, 그 일부는 여전히 활동을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시대적 조건과 상황의 제약 혹은 기회 속에서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의 부침과 변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라뤼엘이 지적하듯이, 원외 루스키 민족주의의 주된 이념적 경향 혹은 초점이 1990년대의 반서구주의로부터 2000년대에는 이주자혐오증(migrantophobia)으로 이동한다. 이미 소비에트 시기부터 민족주의 진영의 이념적 근간은 반서구주의였고, 1990년대 초반에는 이론적 논쟁과 개

26) 김태연, “러시아 스킨헤드의 발생과 그 폭력의 활성화,” 『중소연구』 제37권 제3호 (2013b), pp. 312-319; Aleksandr Tarasov, “Offspring of Reforms - Shaven Heads Are Skinheads: The New Fascist Youth Subculture in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39-1 (2001), pp. 52-58.

27) Hilary Pilkington, Elena Omel'chenko, and Al'bina Garifzianova, *Russia's Skinheads: Exploring and Rethinking Subcultural L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0), pp. 6-7.

28) 김태연 (2013b), pp. 303-304, 319-338.

29) Pilkington et al. (2010), pp. 99-108.

인적 갈등으로 인해 진영의 분화가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도 거의 모든 민족주의 세력이 강한 반서구주의를 특징으로 하였다. 이 시기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이 서구와의 관계 혹은 서구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때 대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족주의 이념이 기본적으로 국제주의 원칙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민족주의의 전거가 되는 독일 혹은 프랑스 민족주의가 반슬라브적인, 특히 반러시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0년대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 가운데 공개적으로 나치즘을 언급한 단체로는 루스키민족통합이 유일했다는 사실도 이러한 점과 관련된다.³⁰⁾ 그리고 서구의 지원과 조언을 받아 시작된 체제전환의 정치·경제·사회적 결과가 대다수의 러시아인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의미했는데, 이에 따라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이 지목하는 러시아 국가의, 루스키 민족의 적이 서구로 표상·수렴되기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도 이 시기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의 반서구주의를 설명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의 이념적 지향은 크게 달라지는데, 이주자라는 새로운 적을 중심으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1990년대 내내 원외 민족주의 세력을 괴롭힌 이념 논쟁과 분열의 가능성을 상당 정도 해소시켜준 합의의 분위기가 형성됨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독특한 이념과 활동방식, 이주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두드러졌던 민족볼셰비키당은 여타 원외 민족주의 진영으로부터 더욱 고립되어간 반면에, 이 문제를 놓고 각각 담론적 활동과 실천적 활동에 집중한 불법이주반대운동과 스킨헤드 운동은 가시성과 대중성을 획득한다.³¹⁾ 2000년대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이 이주자 반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은, 2장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대중 사이에서 민족주의 정서가 크게 고조된 사회적 환경과 푸틴 정권이 애국주의 담론을 활용함에 따라 원외 민족주의 진영의 담론 공간이 협소해진 정치적 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994-2006년 여론조사 자료를 시계열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러시아인의 외국인혐오증은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당 선호도와 관계없이 꾸준히 높아지는데,³²⁾ 이는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이 외모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식별이 용이한 외국인, 즉 이주자를 자신의 담론적 표적으로 삼으면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 사회적 배경이 된다. 그리고 푸틴 정권이 기존의 민족주의 담론과 수사의 일부를 자신의 애국주의 의제로 흡수함에 따라 원외 민족주의 세력의 담론 자원과 행동 전술이 빈약해지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원외 민족주의 진영은 정권이 온전하게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힘든 이슈, 이주 및 이주자 문제에서 자신의 담론과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틈입의 여지를 찾게 된다.

둘째,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은 사회정치적 과정이나 변화를 주도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원외 민족주의 진영은 사회의 주변부 세력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의 급진적 주장이나 행동이 대중이나 정치권의 주의를 끌거나 혹은 논쟁의 대상이 된 경우는 많았다. 그렇지만 민족주의 세력이 사회정치적 흐름을 추동하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10월사태를 통해 루스키민족통합은 민족주의 진영 내에서 위신과 명망을 얻었지만, 10월사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이 첨예화되는 과정이나 그 대치 국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루스키민족통합의 부상은 사태에 직접 참여하

30) Laruelle (2010), pp. 19-22.

31) 라뤼엘 (2012), pp. 131-132, 134; Laruelle (2010), pp. 22-23.

32) Anastassia Leonova, “Electoral Choice, Cultural Capital, and Xenophobic Attitudes in Russia, 1994-2006,” in Marlène Laruelle (ed.), *Russian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Reassertion of Rus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pp. 145-157.

여 그 멤버 가운데 희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겨난 투사의 이미지에 힘입은 것이었다. 또한 1996년 여름 대선은 옐친과 그의 개혁에 대한 실망이 정치적 대안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때에도 루스키민족통합의 바르카쇼프는 독자 출마를 시도했다가 돌연 이를 거부하는가 하면, 민족볼셰비키당을 비롯한 다른 원외 진영은 옐친을 지지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다 이것이 분열의 빌미가 되어 다른 후보를 내세웠으나 참패를 당하는 등³³⁾ 당시의 정세를 주도하기는커녕 그 안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노출할 뿐이었다. 2000년대의 사회정치현실에서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이 수행하는 역할이나 미치는 영향력은 유사한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불법이주반대운동이 전국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2006년 9월 루스키와 체첸인 간의 다툼이 대규모 민족분규 및 대중소요로 번진 콘도포가(Кондопога) 사태에서 눈에 띄게 활약한 결과인데, 이때에도 단체가 반이주자 정서나 이념을 새로 고안하거나 스스로 민족 간 충돌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고, 이미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적대적 감정과 갈등을 부추기고 선동·증폭하는 역할을 하였다.³⁴⁾

이처럼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이 사회정치적 과정이나 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세력이 아니었다고 해서 원외 민족주의 진영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주변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점을 입증해주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루스키민족통합의 사회적 위상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단체는 국민의 약 10%로부터 암묵적인 지지를 받았고 5-20만 명의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논의되는데,³⁵⁾ 이러한 규모의 사회적 기반을 갖는 단체를 주변부 세력이라고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한 민족볼셰비키당의 이론을 정초했지만 리모노프와 이견이 발생하여 1998년 민족볼셰비키당과 갈라선 두건은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를 지지하는 두마 의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의 저서는 많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의 사회적 영향력이 대중적이라고 과장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그의 사회적 위치가 “소수 과격파 인물”로 일축될 수도 없다는 점은,³⁶⁾ 특정한 인물의 그것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의 이념이나 사상이 사회의 주류로 편입되고 있음을 혹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리고 2000년대 러시아 스킨헤드의 폭력이 극렬화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사회가 자신의 공포와 혐오의 감정 및 공격성을 대신 표출·실행해주는 이들의 폭력으로부터 대리만족을 얻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서도 러시아 스킨헤드가 사회와 동떨어져 그 주변 혹은 외부에 위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³⁷⁾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은 갖은 내부 분열과 이에 따른 이합집산, 외부의 불신과 경계, 특히 국가권력의 (때로는 과도한) 억압으로 인해 일관된 이념이나 조직, 노선이나 전략을 고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멤버를 충원하고 다양한 활동방식을 모색하는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세력의 존재 그 자체가, 원외 민족주의 진영은 러시아 사회의 어떤 특정한 사고, 감정, 속성을 대변하고 있는, 중심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변부라고 하기도 힘든 사회의 어떤 특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일부임을 웅변해준다.

셋째,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이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국가권력의 의도와 행위는 그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원외 민족주의 단체들을 둘러싼 여러 다른 구조적 조건 가운데에서도 특히 국가권력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는 점은, 러시아 국가권력이 강력한 중앙집

33) Лихачёв (2002), pp. 55, 71.

34) 김태연 (2010), pp. 77, 82.

35) 라뤼엘 (2012), p. 105.

36) Laruelle (2010), p. 30; Shenfield (2001), pp. 198-199.

37) 김태연 (2013b), p. 326.

권화를 이룬 2000년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옐친 시기의 약한 국가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중반 루스키민족통합의 전성기는 단체가 군·경찰·특수부대 등 국가권력기구나 일부 지방 엘리트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루스키민족통합의 내부 균열의 첫 조짐은 1998-1999년 대통령행정실과 특히 당시 모스크바 시장이 루스키민족통합의 조직을 법적·재정적·정치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했을 때 일어났다.³⁸⁾ 루스키민족통합이 강력한 내부 조직력과 폭넓은 사회적 인지도를 자랑하는 원외 민족주의 단체이긴 했지만, 그러한 루스키민족통합의 발전 혹은 쇠퇴도 국가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존성을 탈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세력에 작용하는 국가권력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진다. 앞에서 푸틴 시기 러시아 국가권력이 반체제·반정부 세력에 대해서는 고강도 억압이라는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시기에 반푸틴 노선으로 선화한 민족볼셰비키당이 바로 이러한 국가의 억압적 ‘관리’를 받게 된 대표적인 단체라고 서술했는데, 그 결과 단체는 법무부 등록 거부보다 한 차원 높은 제재 조치인 대법원에 의한 활동 금지 판결을 받게 되었고, 현재 리모노프는 새로운 단체를 창설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렇듯 루스키민족통합의 분열로 원외 민족주의 진영의 맹주가 될 수도 있었던 민족볼셰비키당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요인은 국가권력의 억압이다. 민족볼셰비키당이 노골적으로 반푸틴 노선을 표명하여 국가의 억압에 처하게 됐다면, 이와는 달리 불법이주반대운동은 합법화 전략을 채택했는데도 혹은 적어도 그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권력의 ‘관리’ 대상 목록에 오르는 유사한 경로를 밟게 된다. 벨로프는 내부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이주반대운동을 유럽형의 “그럴듯한 운동으로서의 민족주의” 단체로 전환시키려 하여 통합러시아 당 지도부와 접촉을 시도하는 등 합법 활동을 지향했지만, 2010년 12월 모스크바 마네지 광장에서 약 5천 명의 축구팬과 민족주의자들이 일으킨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가 화근이 되어 이듬해 단체는 법원의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³⁹⁾ 이는, 원외 민족주의 단체가 실제로 국가권력에 도전했는지의 여부보다 국가권력이 민족주의 단체의 행위를 국가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는지의 여부가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로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의 국가권력에 대한 취약성 혹은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루스키 민족주의는 러시아 국가에서 루스키 민족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이념이나 운동, 혹은 러시아 사회에서 루스키 민족의 권한과 이해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대중의 인식이나 정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 정의로는 루스키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요구와 주장에 깃든 의도와 내용의 차이를 포착하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원외 진영에서 전개되는 루스키 민족주의의 이념적·실천적 활동을 통해 그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0년대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는 경제의 하락과 이에 따른 정치적 대립, 이념 및 정체성 혼란, 민족관계의 악화라는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존립과 활동의 기반, 방식, 전략 등을 모색했다.

38) Shenfield (2001), pp. 181-185; Лихачёв (2002), p. 55.

39) Андрей Веселов and Алеся Лонская, “Скинхеды на Луне,” *Русский репортер* 16(194) (2011).

체제와 제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였던 1990년대의 러시아는 여러 행위자에게 그 변화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할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었지만, 원외 민족주의 진영이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2000년대 푸틴의 러시아는 원외 민족주의 진영에 대해 전혀 다른 사회정치적 환경을 의미하게 되는데, 민족주의 진영의 담론 공간의 축소를 야기하기 마련인 정권의 애국주의 담론 활용, 존재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정권의 억압 행사, 민족주의 진영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민족주의 정서의 사회적 만연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원외 민족주의 단체들은 다양한 목표와 노선으로 대응했으며, 그 성과도 개별 단체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1990년대에 가장 유명한 원외 민족주의 단체였던 루스키민족통합은 나치즘에 가까운 이념을 지향하고 엄격한 규율과 위계질서를 강조했으며, 마치 군사조직과도 같은 무력 태세를 갖추고 동시에 일정 정도 대중성도 확보한 단체였다. 국가권력기구와 유착관계를 맺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내부 분열을 버티지 못하고 10년 만에 와해되었다. 루스키민족통합과 쌍벽을 이룬 1990년대 원외 민족주의 단체는 민족볼셰비키당이었는데, 이 단체는 좌파와 우파의 급진주의를 모두 아우르려는 독특한 이념적 지향이 특징적이었으며, 지적·문화적 수준이 높은 청년층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2000년대에는 반정부 급진주의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가권력의 집요한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활동이 금지되었다. 2000년대의 두드러진 원외 민족주의 단체 불법이주반대운동은 이념 논쟁을 자제하고 사회적으로 불안과 혐오의 대상이 된 이주자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온라인 전략과 활동을 펼치는 신세대 민족주의 단체의 면모를 과시했다. 합법화 노선을 표방했지만, 국가권력이 단체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자, 그 고강도 억압의 대상이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2000년대에 보다 각광 받은 스킨헤드 운동에서 본질적인 요인은 인종주의 폭력의 실천이다.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민족주의 정서와 간헐적 단속이나 미온적 처벌 같은 국가권력의 묵인에 힘입어 여러 스킨헤드 집단이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은 이념적 지향의 초점을 반서구주의에서 이주자혐오증으로 옮기면서 달라진 사회정치적 환경에 편승·적응하거나 이를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에서 원외 민족주의 진영은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 못하다. 원외 민족주의 진영이 자신의 논점을 이주자혐오증으로 이동시킨 것도 이미 널리 퍼진 민족주의 대중정서를 추수한 것이지 자신의 힘으로 이를 창출·추동한 것은 아니었다. 민족볼셰비키당과 불법이주반대운동이 금지된 과정이 보여주듯이,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 진영은 국가권력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 특히 2000년대 푸틴 정권의 강한 국가권력 앞에서 원외 민족주의 세력은 담론과 활동의 역량과 정당성을 크게 상실한 듯이 보인다. 이처럼 원외 민족주의 진영의 사회적·정치적 역할과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미미하지 않다. 민족주의 정서의 사회적 고조가 이를 담보해주는 요인 중 하나이며, 원외 민족주의 세력이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 그 존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결과다. 러시아 원외 민족주의의 진정한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른다. 즉, 현재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 혹은 국가권력이 그 활동을 적절한 법적·제도적 틀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사회의 주변부도 중심부도 아닌 어떤 모호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가 유리한 조건과 상황이 조성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와 국가에 대해 자신에게 배당된 몫 이상의 과도한 요구를 제기할 잠재적 가능성, 그것이야말로 사회와 국가가 보다 경계해야 할 위험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태연. “현대 러시아에서의 루스끼 민족주의: 그 발생, 특성 그리고 정치적 의미.” 『슬라브 학보』 제24권 1호 (2009).
- _____.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불법이주반대운동’(ДПНИ)의 성공요인.” 『국제정치논총』 제50집 5호 (2010).
- _____. “러시아인이 바라보는 체첸인, 체첸인이 바라보는 체첸.” 『중소연구』 제37권 제1호 (2013a).
- _____. “러시아 스킨헤드의 발생과 그 폭력의 활성화.” 『중소연구』 제37권 제3호 (2013b).
- 라뤼엘, 마를렌 지음. 김태연 옮김. 『민족의 이름으로: 현대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정치』 서울: 그린비, 2012.
- Evans, Geoffrey and Stephen Whitefield. “The Evolution of Left and Right in Post-Soviet Russia.” *Europe-Asia Studies* 50-6 (1998).
- Laruelle, Marlène. “Rethinking Russian Nationalism: Historical Continuity, Political Diversity, and Doctrinal Fragmentation.” In Marlène Laruelle. ed. *Russian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Reassertion of Rus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 _____. “The Ideological Shift on the Russian Radical Right: From Demonizing the West to Fear of Migrants.” *Problems of Post-Communism* 57-6 (2010).
- Leonova, Anastassia. “Electoral Choice, Cultural Capital, and Xenophobic Attitudes in Russia, 1994-2006.” In Marlène Laruelle. ed. *Russian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Reassertion of Rus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 Pain, Emil A. “Xenophobia and Ethnopolitical Extremism in Post-Soviet Russia: Dynamics and Growth Factors.” *Nationalities Papers* 35-5 (2007).
- Pilkington, Hilary, Elena Omel’chenko, and Al’bina Garifzianova. *Russia’s Skinheads: Exploring and Rethinking Subcultural L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0.
- Shenfield, Stephen D. *Russian Fascism: Traditions, Tendencies, Movements*. Armonk, NY: M. E. Sharpe, 2001.
- Tarasov, Aleksandr. “Offspring of Reforms - Shaven Heads Are Skinheads: The New Fascist Youth Subculture in Russia.” *Russian Politics and Law* 39-1 (2001).
- Zuev, Dennis. “The Movement Against Illegal Immigration: Analysis of the Central Node in the Russian Extreme-Right Movement.” *Nations and Nationalism* 16-2 (2010).
- Верховский, Александр. “Эволюция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движения русских националистов.” *Вестник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1(107) (2011).
- Верховский, Александр and Владимир Прибыловский. *Национал-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в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идеология, экстремистские тенденции*. М.: Институт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й социологии, 1996.
- Веселов, Андрей and Алеся Лонская. “Скинхеды на Луне.” *Русский репортер* 16(194) (2011).
- Лихачёв, Вячеслав. *Нацизм в России*. М.: Центр «Панорама», 2002.
- Соколов, Михаил. “Национал-большевистская партия: идеологическая эволюция и политический стиль.” In Александр Верховский. сост. *Рус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 идеология и на строение*. М.: Центр «Сова», 2006.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전개

박정호(한국외국어대학교)

I. 서론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의 체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은 범지구적 차원에서 세계화 작업의 본격화를 알려주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다. 주지하듯이, 세계화 과정은 탈냉전 시기 국제환경을 변화시킨 중대한 결과물로서 민족과 영토, 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국가’ 혹은 ‘민족국가’(Nation State) 체제의 미래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 주었다.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지역화 등으로 상징되는 현대세계에서 국민국가의 역할과 대내외적 영향력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국경 없는 지구촌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대변혁의 파고 속에서도 국제관계의 행위주체로서 ‘국민국가’의 존재가치와 그 국가체제의 이념적 기반인 ‘민족주의’(Nationalism)는 여전히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세계화 및 개방화 시기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민족주의 성격의 운동들이 여전히 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게다가, 한일관계 또는 중일관계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국제관계에서 ‘민족주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기 논거는 보다 큰 정당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다시 말해서, 민족의 복리와 안녕을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으로 민족주의를 정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이 보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족적 감정이나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어느 특정한 집단에게 특별히 느끼는 공감대 혹은 어느 민족 집단에 속한다는 일종의 귀속의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정체성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만일 이러한 특별한 감정이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족주의의 다른 행위들이 전혀 가능하지 않기에 그렇다. 그런 면에서 민족 정체성은 민족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민족에 대한 언어화와 상징화 작업이다. 이는 민족을 언어와 이미지라는 수단을 통해 표현하는 작업을 뜻한다. 특정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 그들은 어떠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경험해 왔는지, 어떠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민족적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학적, 역사적, 예술적 활동들 토대로 설명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시인, 소설가, 역사가, 미술가, 음악가들이 창조해내는 공통의 상상력이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셋째, 민족을 위한 어떠한 원리나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민족주의라는 개념 정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라고 하겠다.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란 실제적 및 잠재적으로 민족을 구성하거나 혹은 구성하려고 기도하는 특정 지역 주민들이 자율성, 통합,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이념적 운동을 지칭한다. 그러한 본질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 개념이나 전략, 전술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넷째, 민족주의 운동이다. 이는 민족주의 이념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 등 다양한 범위의 운동을 포괄하는 것이다.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문화운동, 이민족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운동 혹은 무장투쟁, 자민족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운동,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국산품 애용운동 같은 것들이 단적인 사례들이다. 민족주의 운동이야말로 민족주의를 완성시키는 실천적 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소비에트 연방(Soviet Union)의 해체와 동서냉전 구도의 붕괴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대변혁을 촉발시켰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념(자본주의 vs 사회주의)을 바탕으로 한 냉전적 억압체제 아래 잠복되어 있었던 다양한 정치적 불만과 사회적 갈등들이 한꺼번에 분출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인종, 언어, 종교, 지역 등을 매개로 하는 민족주의 운동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한 민족주의적 열풍 속에서 탈 소비에트 공간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탈 소비에트 공간의 신생 독립국들은 국가건설과정에서 민족 정체성 확립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이들은 각자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 그리고 각 국가를 구성하는 종족, 민족들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을 두면서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탈 소비에트 신생국 지도부들은 주권국가로서 국가적 단일성과 국민적 일체감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민족주의적 요인을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주의 문제는 특별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최근의 반정부 시위 사태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듯이, 민족주의 요인이 지역 정체성의 형성은 물론이고 국가발전전략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도 민족주의에 기초한 정체성 확립 작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민족주의 성향의 역사학자들과 해외 우크라이나계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관 정립이 시도되었다. 이들의 핵심 논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는 다른 역사적 발전 노선을 경험해 왔던 국가라는 점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민족의 정체성이 동슬라브 문화와 서유럽 문화를 종합하여 성립된 독특한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러시아와 구별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독립된 행위 주체로서 역할을 모색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 행보는 대내외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다. 2004년 12월 오렌지 혁명, 2006년과 2009년 가스분쟁, 2013년 반정부 시위, 과도정부와 러시아의 대립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발현된 민족주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민족주의 요인이 우크라이나의 국가건설과 정치과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수로 작동했기에 그렇다. 본고에서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전개를 정체성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우크라이나의 역사 발전 과정과 민족 정체성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규명작업 차원에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 민족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그 속에서 형성된 민족 정체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민족주의 요인이 탈 소비에트 우크라이나의 정치과정과 정치체제 변동에 있어서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발전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특별한 경로를 경험해왔던 국가이다. 우크라

이냐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동방과 서방의 강대국들로부터 지배를 당했다. 이는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동과 서라는 두 지역의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동”이란 동방정교의 세계와 비잔틴의 문화 전통, 그리고 러시아의 사회와 국가를 상징하는 것인데 비해, “서”란 전체로서의 유럽권의 문화 및 유럽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같은 동 슬라브 민족이면서도 러시아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적 발전과정을 경험해 왔다고 주장하는 핵심 논거이며,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이 발현하게 된 근원적 배경이라고 하겠다.

<그림 1> 우크라이나 지도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개략적으로나마 한 번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동 슬라브 문명의 발상지인 키예프 루스(Kievan Rus)에 국가적 기원을 두고 있다. 키예프 루스는 9세기 중엽에 수립되어 4세기 동안 번성하였으나, 13세기 중엽 몽골족의 정복으로 역사무대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갈리치아-볼린 공국(1199년-1349년)의 경우 14세기까지 존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15세기 말경 몽골의 지배를 물리친 모스크바 공국이 성장하여 러시아 제국을 형성함에 따라, 키예프 루스의 역사적 중심지였던 키예프는 러시아 제국에 종속된 일개 지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더불어, 14세기 갈리치아 공국은 폴란드, 볼린 공국은 리투아니아에 병합되는 등 현대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의 상당 부분이 리투아니아-폴란드 왕국에 복속되었다. 1569년 루블린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의 지배권이 사실상 폴란드로 넘어갔지만, 1667년 모스크바와 폴란드가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분할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드니프로 강을 기준으로 우안은 폴란드, 좌안은 러시아의 영토로 나누어졌다. 러시아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도 사회주의 세력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나갔고, 그 결과 1924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출범하여 소련방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치아와 볼린 일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은 폴란드, 부코비나와 베사라비아는 루마니아, 자카르파티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 합병되는 결과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에 따라 폴란드령이었던 갈리치아 동부와 볼린 서부가 우크라이나에 편입되었다. 또한, 1945년 독일의 전쟁 패배로 1차 및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에 병합되었던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의 모든 영토들이 마침내 소련의 관할 아래 놓여졌다.

이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역사발전과정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우크라이나는 소연방 붕괴 이전까지 단일한 민족국가를 사실상 형성해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서부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외부 세력에 의해 각각 지배와 예속을 경험해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1654년 페레야슬라프 협정 체결 이후 동부지역에서 러시아 제국에 의한 식민지화와 산업화(19세기 말과 20세기 중엽)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던 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소 러시아주의’(Little Russianism)는 오히려 한층 확산되었다. 이에 비하여, 서부지역에서는 비록 오랜 기간 폴란드의 지배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본원적인 민족 정체성을 보다 잘 보존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지역 사이에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차별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이것은 우크라이나 민족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주의 및 민족주의 운동이 발흥하는 근본적인 동인이 되었다.

게다가, 동부와 서부 지역 간에 경제적 기반 여건과 관련된 중대한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동부 지역의 경제구조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반면, 서부 지역에서 경제활동의 핵심 토대는 농업이었다. 또한 1944년 소련에 병합된 서부 지역은 경제적으로 동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양 지역 간에 사회적 발전 수준(급여 수준, 사회 복지, 실업률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소비에트 시절부터 동부는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산업화 수준과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게다가, 동부 지역은 국가의 기간산업(특히 제철과 군수 부문 등)의 중심지였던 관계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많은 특혜와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

소연방의 해체로 우크라이나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독립국가로 출범함에 따라, 동부와 서부 지역의 시민들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실제적인 경제상황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소련 시기의 경제적 연계망 붕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의존형 경제 구조, 체제이행 과정의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초래되었던 결과였다. 독립이후에도 동부와 서부 지역 간 경제 여건의 차이는 일련의 선거과정에서 지역주의 투표로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대체적으로 동부 지역 유권자들은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주창하는 후보 혹은 정당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서부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국가 기금을 전용하는 문제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곤 했다. 이밖에도, 경제 개혁정책의 방향 설정 문제에 있어서도 양 지역의 주민들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다. 동부 지역의 유권자들이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과 경제 개혁정책의 속도 조절을 요청함과 동시에, 러시아와 전통적 형태의 호혜적 경제관계 구축을 기대했다. 그렇지만, 서부 지역의 거주자들은 시장 개혁정책에 한층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며, 동유럽을 포함한 서방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더욱 선호하였다.

결국 동과 서라는 지정학적 개념은 우크라이나의 역사발전과정과 그에 따른 민족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립 초기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국

가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민족 정체성 확립 작업에 보다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상이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경험해 왔던 동부와 서부지역이 공존하고 있었던 사실에 핵심 근거를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 및 소비에트 제국에 복속되어 있었던 관계로, 언어, 인종, 종교, 그리고 문화와 전통에 있어서 러시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친 러시아 성향’의 지역이다. 그에 비해 서부지역은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폴란드와 여타 중동부 유럽 국가들로부터 오랜 기간 지대한 영향을 받아 왔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비로소 소비에트 제국에 편입되는 등 러시아 세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지역이다. 그런 이유로 서부지역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력의 본산으로서 페레스트로이카 시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안보 및 독립 문제, 유럽적 정체성 모색에 보다 큰 관심을 표명해 왔던 ‘친 서방 성향’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단일한 민족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동부와 서부지역 간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래 <표 1>의 동부와 서부지역 간 특성비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국가 형성 초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잠재적인 국가 붕괴 요인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중대 사안이었다. 그 당시 민족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적 통합성 보존 사이에서 일종의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있어서 민족 정체성 확립작업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나 마찬가지였다.

<표 1> 우크라이나 동부 및 서부지역의 특성 비교

비교요인	동부지역	서부지역
위치	러시아와 국경 접함 드니프로 강 우안에 위치	동유럽 국가들과 국경 접함 드니프로 강 좌안에 위치
인구	러시아인들 집중 거주	우크라이나인들 거주
종교	주로 정교 신봉	주로 동방 가톨릭 신봉
역사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러시아 지배 소련시기 러시아화 정책 진행 러시아화 수준 높음 러시아로부터 큰 영향	2차 대전이후부터 러시아 지배 스탈린의 농업 집단화로 큰 손실 2차 대전과정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 러시아화 수준 낮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로부터 큰 영향
문화	러시아 문화생활 일반화 러시아어 사용 러시아에 대한 친근감 큼	우크라이나 문화생활 일반화 우크라이나어 사용 서유럽에 대해 친근감 큼
산업	공업 중심 러시아와 밀접한 연관성 보유	농업 중심

대표도시	도네츠크 하리키프 루한스크	르비프 이반-프랑키프스크 테르노필
정치성향	친 러시아 성향 강함 친 러시아 외교노선 지지 친 서방정책 추구에 반감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 주장 CIS 체제 참여 지지	탈러시아 성향 강함 친 서방 외교노선 지지 친 러시아 정책 추구에 반감 NATO 및 EU 가입 주장 CIS 체제 이탈 지지

III. 우크라이나의 국가전략과 정치과정에서 정체성 요인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의 국가전략에 대한 노선결정은 본질적으로 민족 정체성의 성격과 그에 따른 내부 경쟁 집단들 간 세력구도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정치 집단들 간의 세력구도 자체가 불변적이거나 혹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시의 적절하게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생주권국 우크라이나의 경우 유시첸코의 집권기를 제외한다면, 서방세계와 러시아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정책’을 국가전략노선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는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전략적 차원의 선택 방안이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안보확립, 즉 주권과 자치권 보장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강력한 영향력으로부터 이탈하여 서유럽 세력권으로 편입하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사안이었다. 이에 비하여, 경제발전은 우크라이나의 실제적인 경제구조 및 경제여건상 러시아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성격의 과제라고 하겠다. 게다가, 균형정책이 추진된 기본적인 동인으로 우크라이나 엘리트 집단과 선거인단 사이에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동질성과 지역 간 심각한 갈등 및 대립구조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경우, 민족주의 세력들이 한층 확고한 정치적 입지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 세력들은 대략 전체 인구의 25%-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우크라이나 서부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친 유럽’ 및 ‘탈러시아’ 성향이라는 명확한 정치적 지향점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지역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약 20%에 달하는 러시아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동부지역은 소비에트 시기부터 높은 수준의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자, 우크라이나 공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와 긴밀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친 러시아 공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대다수 동부지역 주민들은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나 유럽통합 참여 등을 지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데 보다 큰 관심사를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회에서 동서 지역 간의 지역 정체성 차이와 그에 따른 첨예한 갈등구조는 최근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 사태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우크라이나의 유럽행 유보와 러시아로의 방향전환은 야누코비치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정권의 친 러시아 행

보가 우크라이나의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분노한 시민들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거리로 몰려 나왔다. 오렌지 혁명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독립광장에서 모여 우크라이나의 유럽행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 심지어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자유’(Svoboda)의 젊은 당원들은 키예프 중심가에 세어져 있던 레닌 동상을 파괴하면서까지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야당 세력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들은 대통령과 내각 총사퇴, 조기 총선 및 대선 실시 등을 주장하면서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대중들의 반대 시위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그 동안 시위 군중들과 대치 상태에 있었던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시키기 위해 강제 진압 작전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본 시위의 주동자들이 대거 체포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 관계자가 언급하고 나서면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미국 관료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제 진압을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욱이, 서방 국가들의 암묵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반정부 시위대의 결사항전과 더불어, 야당세력들이 의회에서 다수파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덕분에 2004년 형태로의 헌법 개정, 티모셴코 석방, 과도정부 구성, 조기 대선 일정 확정 등을 관철함에 따라, 야권이 권력을 일거에 장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치 올림픽 폐막이후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계 주민들의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크림리아 공화국을 사실상 군사적으로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다시금 중대 국면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발전과정, 경제적 상황, 인종적 분포, 종교적 정체성 등에 있어서 동부와 서부지역 간에 뚜렷한 차별성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2>와 <표 3>에서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듯이, 우크라이나 선거과정(대선 및 총선)에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분명하게 표출되었다. 게다가, 이것은 독립 이후 실시된 모든 선거과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나타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동부지역에서는 ‘친 러시아 성향’의 정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었던 반면, 서부지역에서는 ‘친 서방 성향’의 정당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지역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민족 정체성의 성격과 그 본질적인 차이들은 지역주의 및 민족주의의 정치세력의 발현과 ‘친 서방’ 대 ‘친 러시아’의 갈등구조를 초래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 2006년과 2007년 우크라이나 총선에서 지역별 정당 지지율

지역 구분	지역당		티모셴코 블록		우리 우크라이나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전체 지지율(%)	32.14	34.37	22.29	30.71	13.95	14.15
동부지역 전체	67.7	66.5	5.6	7.5	2.82	3.4
도네츠크	73.6	72.1	2.5	3.9	1.4	1.6
하리키프	51.7	49.6	12.7	16.4	5.9	8.1
루한스크	74.3	73.5	3.7	5.0	2.0	1.7

서부지역 전체	6.5	8.3	32.7	48.9	30.8	29.1
르비브	3.0	4.2	33.0	50.4	38.0	36.0
이반-프랑크	1.9	3.0	30.4	50.7	45.1	36.8
테르노필	2.0	3.0	34.5	51.6	34.2	35.2
남부지역 전체	50.7	54.6	10.3	13.6	6.5	6.5
크리미아	58.0	61.0	6.5	6.9	7.6	8.2
세바스토폴	64.3	64.5	4.5	5.0	2.4	2.3

<표 3> 2010년 대선에서 동부와 서부 주요 도시들의 후보 지지율

지역	주요 도시	야누코비치	티모셴코	티힝코	야쎄늑	유셴코
동부	도네츠크	76.0	4.3	7.2	2.7	0.6
	루한스크	71.0	6.5	9.4	2.3	0.6
	하리키프	50.1	10.6	18.8	5.9	1.4
서부	르비브	5.6	34.7	4.7	11.0	30.7
	이반-프랑크	5.1	38.9	4.3	13.8	25.0
	테르노필	9.8	35.6	4.8	9.9	26.4

IV. 결론

상술했듯이,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주의는 상당히 독특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외세의 오랜 지배 아래 있었기에 근대적 의미의 민족 국가를 형성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국가였다. 그 때문에 민족이라는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외세의 영향 아래 상이한 지역 정체성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동”과 “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런 이유로 현대 우크라이나에서 정체성 요인은 국가전략의 방향설정 및 정치과정에 있어서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동부와 서부 지역들 간의 정체성 차이는 첨예한 갈등 및 대립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는 본질상 역사적 발전과정, 경제적 상황, 인종적 분포, 종교적 정체성 등에 있어서 양 지역 간의 상이성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국가적 통합성을 확립하는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민족 정체성 확립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하지만, 지역적 정체성은 사회 내부에 ‘친 러시아’와 ‘친 유럽’이라는 정치적 갈등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2004년 오렌지 혁명과 2013년 반정부 시위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참고문헌>

- 우준모. (1997) “우크라이나 민족과 민족주의의 진로.” 『러시아 지역연구』, 1: 63-94.
- 홍석우. (2005) “동과 서 사이의 우크라이나.” 한국외국어 대학교 학술연구모임 발표문.
- 홍석우. (1996) “우크라이나의 종교와 민족주의.” 임영삼, 황영삼 공편.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와 민족주의』. 서울: 한국외대 출판부.
- Burant, Stephen R. (1995) “Foreign Policy and National Identity: A Comparison of Ukraine and Belarus.” *Europe-Asia Studies*, 47/7: 1-28.
- Krapacheva, E. (2006) “Ukraine in Search of Balance: the (In)Compatibility of its Western Aspirations with Close Relations with Russia.”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Symposium in University of Toronto.
- Pirie, Paul. (1996)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s in Southern and Eastern Ukraine.” *Europe-Asia Studies*, 48/7: 1079-1104.
- Rudnitsky, J. L. (1987) *Essays in Modern Ukrainian History*. Alberta: Harvard University Press
- Мальгин, А. В. (2005) “Соборность, регионы и европейский выбор.” Украина: соборность и регионализм. Симферополь: СОНАТ.
- Мошес, А. (2003) “Двойное расширение и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восток ом и Западом: Украина и Белоруссия в европейском контексте. Москва: Центр Карнеги.

제 2세션(13:30 – 15:30)

- 사회자: 고상두(연세대학교)
- 발표자: 윤영미(평택대) : 벨라루스의 민족주의 정치: 기원과 특성
현승수(한양대) : 탈소비에트 조지아의 국민주의:
종족 국민주의와 시민 국민주의의 착종(錯綜)
이지은(한국외대) : 투르크메니스탄 민족주의 전개:
‘국가부흥운동(National Revival Movement)’ 전개를 중심으로
- 토론자: 이지연(한양대), 정세진(한양대)), 오원교(한양대)

벨라루스의 민족주의 정치: 기원과 특성

윤영미(평택대학교)

탈소비에트 조지아의 국민주의: 종족 국민주의와 시민 국민주의의 착종(錯綜)¹⁾

현승수(한양대학교)

1. 서론

소연방 해체를 전후한 시기에 조지아는 국민주의의 열기에 사로잡혀 있었다.²⁾ 이는 유독 조지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소연방에서 독립하게 된 거의 모든 연방 공화국들, 그리고 각 공화국에 속한 크고 작은 민족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국민주의의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포스트소비에트 기의 국민주의는 민족에 기초한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을 전제로 하면서 그 위에서 민족의 역사와 민족 영웅을 재평가하고 사라졌던 민족 전통을 부활시키는 한편 종교와 민족을 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로 특징지어졌다. 1990년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와 지역들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정치, 사회 현상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국민주의와 관련되어 있었다.

조지아의 경우,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Zviad Gamsakhurdia)가 주도한 독립운동은 종족 국민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무엇보다 먼저, 새로운 독립국가의 명칭을 확립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었다. 소비에트 체제 하에서 조지아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그루지야였으며, 영어로는 조지아(Georgia), 독일어로는 게오르기엔(Georgien), 터키어로는 귀르지스탄(Gurcistan) 등 다양하게 불리웠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러시아어 표기인 그루지야에서 비롯된 명칭들이었는바, 감사후르디아 정권은 순수히 조지아어로 된 국명 사카르트벨로(Sakartvelo)를 정식 국호로 선포한다. 이는 조지아인들의 땅, 조지아인의 나라를 의미했다. 이후 사카르트벨로라는 국호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국제사회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국명은 영어 명칭인 '조지아'로 통일된다.

국호를 둘러싼 혼란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조지아의 국민국가 건설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다. 독립 이후 25년 동안 조지아의 역사는 두 번의 정변과 한 번의 국제전 그리고 명목 민족인 조지아인과 소수민족들 간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되었으며, 다양한 정치적 실험과 혼란

1) 이 글은 아직 초고 수준에 있으며 향후 많은 자료 추가와 수정을 거쳐 정식 논문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인용을 삼가주십시오.

2) 이 글에서 '국민주의'는 'nationalism'의 번역어로 사용된다. 국민주의는 국민(nation)을 자유롭고 주권적인 것으로 실현시키려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국민이란 앤더스(Benedict Anderson)이 정의한 것처럼 "이미지로서 마음에 그려진 상상의 정치 공동체"이자 "본래 한정되고 또 주권적인 것으로 상상된 것"이다. 다나카 아키히코·나카니시 히로시 『컴팩트 국제관계학』 현승수 외 옮김 (서울: 전략과 문화, 2009), 59쪽. 국내 학계에서는 'nationalism'의 개념적 번역을 두고 아직도 명확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며 그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려는 시도 자체가 학계의 큰 과제 중 하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조지아의 맥락에서는 'nationalism'을 '국민주의'로 번역하고 특정 민족(ethnic group)의 주권과 자결을 주장하는 이념, 즉 'ethnic nationalism'을 '종족 국민주의'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언제든 열려 있음을 밝혀둔다.

속에서 조지아의 국민국가 건설 과정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본 논문은 탈소비에트 시기에 국민주의(nationalism)가 조지아의 독립국가 형성 과정을 추동한 중심 이념이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다민족, 다언어 사회를 숙명처럼 떠안은 조지아는 저항하는 비조지아계 민족들과 지역을 하나의 국가와 국민으로 통합해야 했으며 각 정권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주의적 실험을 전개했다. 조지아 민족 만을 위한 조지아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감사후르디아 정권이 과도한 종족 국민주의에 의존했다면, 그 뒤를 이은 셰바르드나제 정권은 서구적 개념의 시민 국민주의적 요소를 국내정치와 민족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장미혁명으로 집권한 사카시빌리 정권은 혁명적 국민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결국 시민 국민주의와 종족 국민주의 사이에서 급진적이지만 어색한 행보를 거듭하다가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했다.

본 논문에서는 조지아의 각 정권이 보여주었던 국민주의의 다양한 변화 양태를 고찰하면서 동시에 조지아 정치와 사회 내부에서 전개되는 국민주의적 담론을 아울러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오늘날 조지아에서는 전통주의에 입각한 종족 국민주의적 경향과 자유주의에 입각한 시민 국민주의적 경향이 갈등을 거듭하면서 국민국가 건설의 방향성을 놓고 착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다. 2장에서는 탈소비에트 시기 조지아의 국민주의가 각 정권 하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조지아 종족 국민주의의 연원에 대해 고찰한다. 뒤이어 4장에서는 조지아인들의 종족 국민주의 이념에서 핵심을 이루는 제요소 가운데 특별히 고지(故地)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오늘날 조지아 사회 내에서 목격되는 종족 국민주의적 현상도 아울러 살펴본다. 끝으로 5장은 장미혁명 이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조지아 사회 일각의 시민 국민주의적 담론을 고찰한다. 여기서는 주로 종족 국민주의 지지자들과 시민 국민주의 세력들 사이의 대립이 전통주의와 서구식 자유주의라는 형태로 발현되는 현상도 조명할 것이다.

2. 탈소비에트 조지아의 국민주의: 정권별 변용³⁾

본 연구자는 2010년에 조지아의 국가건설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를 국민주의와 분쟁의 상관관계라는 분석틀 안에서 접근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조지아는 소연방 해체와 더불어 시작된 독립국가 건설 과정에서 국민주의(nationalism)가 핵심 추동력이었으며 이를 조지아의 엘리트들이 국민 동원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조지아의 국민주의는 감사후르디아 초대 대통령의 종족 국민주의(ethno-nationalism)로부터 에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Eduard Shevardnadze)의 시민 국민주의(civic nationalism)를 거쳐 사카시빌리 정권의 혁명적 국민주의(revolutionary nationalism)로 변화했으며, 이러한 국민주의의 성격 변화는 각 정권이 지향하는 국민국가 조지아의 국가 비전과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왔다.

독립 초기에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등 옛 소련 지역의 신생 공화국에서 거의 예외없이 목격할 수 있었던 종족 국민주의는 특정 민족의 정체성을 순수하고 정통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질적인 타자, 즉 소수민족을 배제하고 정치적 경계를 재획정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따라서 종족

3) 본 논문의 2장은 필자의 기출간된 다음의 논문을 요약 및 일부 전제한 것이다. 현승수 「조지아의 국가건설 과정: 종족 국민주의에서 혁명적 국민주의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역임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서울: 한울, 2012), 381-405쪽.

국민주의적 경향이 강한 정권 혹은 체제에서는 분쟁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며, 인권문제나 기타 부정적인 현상이 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나이더는 발전이 가장 뒤쳐진 사회에서 종족 국민주의가 흔히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정권이나 사회가 종족 국민주의에 경도될 경우, 국가가 발달하지 못하고 제도는 취약하거나 아예 부재하다고 주장한다.

1989년부터 조지아는 탈소 독립을 요구하는 급진적인 종족 국민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조지아가 러시아와 소비에트 제국주의의 희생양이었으며 민족의 기억을 억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지아인의 민족 정체성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겠지만, 조지아 민족의 정체성은 조지아인이라는 신화와 혈통의 공유, 조지아어를 중심으로 한 조지아 문화 그리고 조지아 정교라는 종교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조지아 민족 정체성을 공유하는(또는 공유한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은 조지아인으로서 인정받았으며, 조지아인들만의 주권과 고유영토를 기본으로 한 국민국가 형성이 국민주의의 최종 목표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조지아의 영역은 소비에트 시기 이전부터 이미 다언어, 민족 지역이었으며 여기에 소비에트 정권이 심어준 제도적 및 구조적 유산으로서 민족문제가 더해져 그 복잡 양상이 극에 달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그루지야연방공화국 영내에 속해 있던 남오세티야 자치주와 압하지야 자치공화국으로서 이들 두 개 지역에는 각각 오세트인과 압하스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미 양 자치 지역이 그루지야연방공화국에 편입될 당시부터 오세트인과 압하스인의 분리 요구가 끊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조지아가 조지아인들의 조지아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이들 소수민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립 당시 조지아의 종족 국민주의 세력을 주도하던 감사후르디아와 메라브 코스타바(Merab Kostava), 기오르기 찬투리아(Giorgi Chanturia) 등은 조지아어를 공화국의 공식 국어로 인정하는 언어법을 강행했고, 압하스인과 오세트인의 반발은 대단히 거세었다. 게다가 이들 소수민족이 위기를 느껴 조지아로부터의 분리독립과 러시아로의 편입을 요구하자 감사후르디아 진영은 이들을 외래인, 매국노, 러시아의 노리개 등으로 비난하면서 갈등은 무력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다.

1990년 10월에 실시된 조지아 역사상 최초의 다당제 총선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의 선거 참가가 금지된 탓에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가 중앙 의회에 진출한 기회가 차단되었고, 감사후르디아가 주도하는 '원탁 자유 조지아'가 최고소비에트(의회)를 장악한 직후 남오세티야 자치주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결국 조지아 중앙 정부와 남오세티야 분리독립 세력들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 1992년 러시아의 중재로 정전이 성립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후 감사후르디아가 최고소비에트 의장 직을 수행하다가 대선을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종족 국민주의 세력 내부에 권력 투쟁이 가시화되었으며 결국 감사후르디아 파와 반대파 사이에 내전이 발발한 끝에 1992년 1월 그는 대통령 직에서 축출된다.

감사후르디아를 권좌에서 몰아낸 쿠데타의 주역들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세바르드나제를 불러들였고 그는 국가평의회 의장으로서 내전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종족 국민주의 파벌과 군벌 세력들을 평정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1995년 대통령에 당선된다.

세바르드나제는 조지아 민족 지상주의나 지역 정치와는 무관한 인물이었으며 엘리트 중심의 시민 국민주의를 지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존재하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합국가를 수립한다는 이른바 시민 국민주의는 일반적으로 다민족 국가가 국민국가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선진적 형태의 국민주의로 인식되고 있다. 세바르드나제가 시민 국민주의를 지향했다는 사실은 1993년 3월에

통과된 시민법이 증명하는바, 이는 공화국 영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소속 민족이나 국가 언어인 조지아어의 구사 능력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률이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은 물론 형법이나 교육법, 문화 관련 법률에 이르기까지 소수민족의 권리를 철저히 규정함으로써 비조지아 민족들도 자신의 언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민족문화에 기초한 정치조직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수민족 출신자들을 지방 정부와 구 정부의 책임자에 앉히는 조치는 여타 옛 소련 공화국들에서는 좀체로 찾아보기 힘든, 진보적인 시민 국민주의적 발상의 산물이었다.

다만 이같은 법적, 제도적 변화가 조지아인들의 자민족 중심적 성향과 정치 현실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었다. 소수민족 지위에 관한 법률과 언어법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묶여 있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선거법은 여전히 소수민족들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또 쉬 치유되지 않는 민족 간 갈등과 취약한 제도, 부정부패의 만연,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종족 국민주의의 유혹 등은 집권 기간 내내 세바르드나제를 괴롭혔고 소수민족들의 분리주의는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배링턴(Lowell Barrington)이 표현한바, "주권보호형 국민주의"에서 "시민국민국가 건설형 국민주의"로 일대 전환을 시도했던 세바르드나제의 개혁은, 그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정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경제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견뎌내지 못했으며 혁명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 대한 지위 부여나 자치 확대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편, 2001년 세바르드나제 정권의 부패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법무부 장관 직을 사임한 미하일 사카시빌리(Mikhail Saakashvili)는 친미, 친서구적 정치 성향을 지닌 인물로서 주라브 주바니아(Zhrab Zhvania) 국회의장, 니노 부르자나제(Nino Burdjanadze) 등의 개혁파 정치인들과 함께 2003년 11월 이른바 장미혁명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당시 실시된 의회 총선거에서 세바르드나제와 집권 여당이 선거 조작을 획책한 것이 혁명 발발의 직접적 계기였다.

2004년 1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한 사카시빌리가, 혁명 과정에서 조지아인들의 종족 국민주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는 조지아 서부 사메그렐로(Samegrelo)의 중심 도시인 주그디디(Zugdidi)에서 수도인 트빌리시까지 항의 행진에 나서도록 시민들에게 호소했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었다. 사메그렐로에 거주하는 민그렐리인(Mingreli)들은 조지아 민족 내에서도 특히 종족 국민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사후르디나아 코스타바와 같은 열혈파 종족 국민주의자들을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더욱이 민그렐리인의 중심 도시인 주그디디에는 세바르드나제가 전쟁에서 패배한 탓에 압하지야에서 피난 온 다수의 조지아인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그디디를 항의 행진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 자체가 세바르드나제의 약점을 부각시키면서 종족 국민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퍼포먼스였다.

더욱이 장미혁명 당일인 11월 23일은 조지아의 수호성인인 기오르기의 기념 축일인 동시에 1988년 감사후르디아가 조지아 종족 국민주의 세력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남오세티야의 수도 츠хин발리(Tskhinvali)에서 시위행동을 연출했던 날이기도 했다. 또 그가 취임식 도중 중세 조지아 통일의 주역인 다비드4세(1089~1125년 재위)가 묻힌 겔라티(Gelati) 수도원을 방문한 행동이나, 독립기념일인 5월 26일을 앞두고 새로운 국기와 국가, 문장 등을 제정하는 한편 역사상 최대의 군사 퍼레이드를 연출한 것, 감사후르디아의 명예회복에 주력한 사실 등이 모두 그가 종족 국민주의적 성향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감사후르디아 식의 종족 국민주의와는 분명한 획을 긋고 있었다. 다시 말해 혁명과 정권의 성공을 위해 조지아인들의 종족 국민주의적 정서를 도구적으로 이용했을 뿐 그 자신

은 일관되게 시민 국민주의적 정향을 갖고 있었다. 그가 혁명 직후에 한 연설에서 발언한 것처럼, 그는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넣기를 바랐으며 조지아 민족의 나라가 아닌 조지아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사카시빌리는 조지아가 명실상부한 유럽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의 가치와 제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8년에 걸친 집권기의 정책은 그가 주창하던 유럽식 시민 국민주의와는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혁명으로 정당화하면서 폭력적 수단에 의존하는 혁명적 국민주의로 정의될 수 있다.

사카시빌리의 혁명적 국민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종족 국민주의에 대한 억압이다. 국민주의에 입각한 조지아 국가 건설의 '대업'을 거부할 때는 그 누구든 혁명의 적, 국가의 적으로 규정되어 응징받는다. 감사후르디아가 조지아 민족의 국가건설을 지상과제로 한 배타적 종족 국민주의를 추구했다면 사카시빌리는 민족의 구별을 철폐한 조지아 국민 창출과 그러한 이상의 실현체로서의 혁명을 사수하는 혁명적 국민주의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족 국민주의는 그것이 조지아인의 것이건 타 민족의 것이건 간에 억압되었으며 지역과 민족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설립도 금지되었다.

둘째, 내부개혁은 모두 국민통합이라는 정당성으로 수렴되었다. 사카시빌리 집권기 동안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패척결과 징세제도의 정비, 군과 경찰의 개혁은 혁명의 성과로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셋째, 초대통령제(super-presidential system)의 실현이다. 이는 혁명의 상징으로서 개인의 카리스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혁명적 국민주의의 특징이기도 하다.

넷째, 반대파를 혁명의 적으로 단죄해 과도하게 탄압하며, 야당 인사들을 외국의 사주를 받은 쿠데타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적법한 강제력을 사용해 혁명세력을 수호할 것을 주장했다.

다섯째, 혁명의 수출에 대한 집착이다. 혁명 세력들은 혁명의 숭고한 대의가 다른 옛 소련 국가들에도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바, 이같은 혁명 명분에 대한 확신은 무력을 통한 대의의 실현을 정당화 했다. 자치 지역을 강제로 중앙에 편입시키는 방식이 종종 사용되었으며, 오랜 기간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던 아자리야 공화국을 폐지하고 그곳을 지배하던 아바시제를 축출시킨 행동도 아자리야에 장미혁명을 확산시킨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졌다.

상기한 사카시빌리의 혁명적 국민주의와 그의 모험주의는 다민족 국가 조지아의 민족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러시아에 빌미를 제공해 결국 탈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첫 국제전을 유발시키고 말았다. 물론 2008년 여름에 발생한 러시아와 조지아 간 전쟁을 단순히 사카시빌리의 모험주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코카서스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러시아의 패권 회복에 대한 야망도 중요한 분쟁 발생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해야 하는 국민국가 건설 본연의 어려움이 조지아에서 발생한 분쟁들의 기저에 깔려 있으며, 더욱이 타협과 인내가 아닌 강제와 폭력의 방식으로 국민 통합을 완수하고자 한 사카시빌리의 혁명적 국민주의가 대규모 유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3. 조지아의 종족 국민주의의 연원

조지아의 종족 국민주의는 12세기 조지아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된 기독교적 메시아 이념에 연원을 두고 있다. 이 이념에 따르면 조지아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한 언어였으며 조지아야말로 성모 마리아가 살았던 땅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걸쳤던 옷이 묻혀 있다는 것이다. 조지

아인들이 사용하는 문자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알파벳이라는 믿음도 당시 조지아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드높이는 요소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소련방 사회의 개혁과 자유화 바람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조지아인들의 국민주의는 과거의 메시아적 이념에 더하여 영웅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조지아들은 역사적으로 니콥시아(Nikopsia)에서 데르벤트(Derbant)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역사는 영웅적이라는 것이다.

상기한 제요소를 포용하면서 독립 후 조지아의 국민주의는 19세기 중반 일리아 찰차바제(IIia Chavchavadze)가 개념화한 "언어, 고지, 종교"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독립 조지아의 초대 대통령인 감사후르디아를 비롯해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활발하게 전개된 국민 자유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의 국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있으며 또 그들 스스로도 찰차바제의 추종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문예비평가 출신인 감사후르디아는 원래 조지아 국민주의를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키려 했으며 뚜렷한 국민주의의 정치화를 계획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 5월 2일, 그는 트빌리시 필하모닉 극장에서 행한 "조지아의 영적 사명"이라는 제목의 강연 속에서 조지아인들의 종족적 기원을 언급하고 있다.

감사후르디아에 따르면, 소비에트 시기 조지아인 출신으로 소련이 자랑하는 탁월한 민족학자인 이바네 자바히시빌리(Ivane Javakhishvili)와 니노 마르(Nino Marr)는 조지아인들의 종족적 기원을 규명해 냈지만, 소련의 관제학자들은 이들의 학설이 정통 소비에트 민족학과는 이반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독일의 빌헬름 훔볼트가 제시한 민족이론도 소비에트 역사학에서는 금기시되었다고 지적했다. 훔볼트는 바스크어와 이베리아 반도의 민족들을 연구하면서 이탈리아나 지중해 연안 등 남부 유럽의 고대 토착민족들이 이베리아인들이었으며 오늘날 유럽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지중해 인종, 코카서스 인종, 초기 지중해 인종 혹은 고대 코카서스 인종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 이들 원(原)이베리아인은 유럽 서남부의 피레네반도에서부터 지중해, 발칸반도, 그리스와 인도 그리고 코카서스와 소아시아, 팔레스타인까지 광활한 영역에 흩어져 살았으며 이후 다양한 민족으로 분화되면서 사용 언어(원이베리아어)도 수없는 방언으로 갈라져 나갔다. 마르는 훔볼트의 이론을 발전시켜 고대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찬란한 고대문명을 꽃피웠던 수메르인들과 그들의 언어도 원이베리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초입인 1990년대에 조지아인들에게 인기있었던 조지아 민족의 기원론은 감사후르디아가 주장한 조지아인의 이베리아인 기원설이었다. 이 시기의 국민주의는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조지아인들은 자기네 조상이 프로메테우스 신화에 등장하며 코카서스의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있던 아미라니(Amirani)의 전설과 조지아인이 깊이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조지아 국민주의자들은 비록 프로메테우스가 조지아인은 아니었지만 그가 묶여 있던 곳이 조지아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 장미혁명 직후 트빌리시에 프로메테우스의 동상이 세워진 사실은, 조지아의 종족적 국민주의가 이베리아 신화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또 이용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후에 이 동상이 작은 관광지 마을인 시그나기(Sighnagi)로 옮겨진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1980년대 말 조지아의 언론들이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조지아인의 후예라는 다소 황당한 담론을 널리 유포시킨 바 있고, 또 최근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메테키(Matekhi)라는 조지아인 마을에서 태어났다면 그가 절반은 조지아인이라는 소문이 조지아 언론에서 자못 진지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는 점이다.

4. 고지(故地)로서의 조지아 그리고 "조지아인을 위한 조지아"

1990년대에 조지아 국민주의 이념의 최대 화두는 독립국가 수립이었다. 러시아와 동유럽의 반체제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을 활동의 중심에 두었다면, 이와는 달리 조지아의 반체제는 반공산주의보다는 소연방으로부터의 분리를 더 중시했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종식은 조지아에 국민주의 이념에 기초한 국민국가 건설의 기회로 인식되었다. 독립 직후 조지아인들은 소비에트식 담론을 받아들여 조지아를 단순한 국가가 아닌, '고지'라는 개념으로 인식했다. 조지아인들이 공식행사나 집회에서 국가(國歌)보다는 조지아의 민요를 더 많이 불렀다는 사실도 조지아의 국민주의가 종족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에트 시기에도 조지아의 국민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발현됐었다. 예를 들어 1956년 3월 9일 그루지야공화국 전체가 흐루시초프의 정책에 반대하여 일어났을 때 그 이유는 흐루시초프가 조지아인들의 자긍심의 상징인 스탈린을 비판하고 격하하려 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150명의 트빌리시 시민이 사망했다. 1978년 4월 12일에는 그루지야공화국의 국어를 규정한 공화국 헌법을 개정하려던 연방 정부의 결정에 항의한 대대적인 시위가 공화국을 휩쓸었다. 시위 주동자들은 "그루지야는 그루지아인들의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비에트 체제를 비판했으며 연방 정부는 이들을 극단주의자라며 비난했다. 이는 독립 당시 감사후르디아가 내세웠던 표어와도 유사한 것이었다.

소련 시기부터 조지아의 국민주의자들은 자국의 다민족성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1991년 독립을 앞두고 조지아 국내정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당시, 감사후르디아의 지지자들은 또 다른 반체제 지도자였던 영화감독 출신의 셴겔라이(E. Shengelay)를 맹비난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조지아 남성들과 러시아인 여자들 사이의 이족혼을 장려하는 내용의 영화를 찍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또 세바르드나제가 대통령으로 있던 1999년, 신분증 안에 있던 민족명 기재란을 없앤 당국의 조치로 인해 반발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종족적 국민주의 성향을 가진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빼앗으려는 시도라며 크게 반발했고, 소수민족들도 동화를 강요하는 정책이라면서 당국을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이 오히려 민족 간 평등을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이며 국제사회의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족적 국민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감사후르디아 정권과는 달리, 세바르드나제 정권은 일정 정도 시민적 국민주의에 기초한 정책들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⁴⁾

세바르드나제 정권기는 종교적 국민주의의 영향력이 강해진 시기이기도 했다. 종교가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정도였는데 예를 들면 정부가 조지아의 저명한 작곡가인 파피아시빌리(Z. Papiashvili)의 오페라, '다이스(Daisi)'와 '아베살롬과 에테리'(Abesalom and Eteri) 에서 일정 부분을 따서 새로운 국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종족 국민주의적 성향의 정치가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파피아시빌리가 카톨릭교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은 정교도의 나라인 조지아의 국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미혁명이 성공한 이후인 2004년 4월, 파피아시빌리의 음악을 차용한 새로운 국가가 정식으로 제정되었다.

한편, 장미혁명 이후 조지아 사회 내에서는 아시아계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4) 사실 조지아가 유럽의 인종주의 및 불관용 반대 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동 위원회가 조지아인들의 소수민족 차별이나 억압을 비판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동 위원회가 관심을 가진 것은 종교적 소수파의 인권 침해 문제와 소수민족들의 조지아어 불인정 문제였다. 미국 국무부는 장미혁명 이전부터 조지아에서 종교적 극단주의가 강해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신흥 종교운동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과 적의를 보이면서 정교를 수호하려는 일부 정교도 사제들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목소리도 커졌다. 언론들은 4~5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조지아를 잠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선동했다. '황화'에 대한 우려는 2007년 정점에 달했다. 야당들은 중국인들의 증가가 정부의 방조에 그 책임이 있으며 정부가 민족의 이익을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사실상 조지아 내의 중국인 인구수는 2천 명 정도에 불과하며 그들의 대다수는 조지아를 통해 유럽으로 이민하려는 이들이었다. 조지아인들의 인종 차별이나 이민족에 대한 혐오감은 2010년 7월 27일 정부 회의에서 사카시빌리 대통령이 한 발언을 통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대통령은 국내공항의 세관원들이 조지아 국민들의 손가방까지 살살히 검사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우리가 흑인(negro)이나 야만인이라도 되는가? 우리 국민들에게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무엇인가?"라고 발언했고 결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인종차별의 의도는 결코 없었다며 해명해야 했다.

조지아 종족 국민주의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한 것은 2008년 8월 조지아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전쟁은 남오세티야가 조지아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선언하고 사카시빌리 정권이 이를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러시아가 군사개입함으로써 조지아군이 패배한 전쟁이었다. 당시 조지아의 실패는 조지아 사회 전체에 국가적 비극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조지아 국민들의 종족 국민주의 발전에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유럽으로서의 조지아에 관한 담론이 활발해졌고 서방 민족인 조지아인들이 제국주의 러시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 조지아 지식인 사회와 언론도 조지아 민족이 러시아 공산주의와 볼셰비즘에 희생된 불운한 민족이라는 식의 글들을 다량으로 쏟아냈다. 구룰리(V. Guruli), 키프시제(N. Kipshidze), 케레셀리제(L. Kereselidze) 등의 글이 대표적이며, 그들은 러시아의 반조지아 억압 정책, 민족 지식인에 대한 탄압, 조지아 교회에 대한 박해를 중심으로 다뤘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이민족의 영토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고 조지아 영토가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일부로 편입된 역사적 사실은 '점령'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바르바카제(M. Barbakadze), 사르세바니제(K. Sarsevanidze), 튜슈라시빌리(O. Tushurashvili) 등은 조지아인들이 러시아에게만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한통속인 친러 민족들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희생당했다는 담론을 전개해 나갔다. 비판의 화살은 특별히 오세트인들을 겨냥했는데, 오세트 민족은 조지아인들과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인접하며 살았고 또 조지아인들이 그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조지아인을 비우호적으로 대해 왔다는 것이다. 적대민족으로서의 오세트인에 대한 조지아의 부정적 인식이 일종의 신화처럼 굳어진 것도 이 시기였다.

이 때문에 2008년 전쟁 이후로 조지아 내에서 소수민족들에게 대한 차별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지아에서 소수민족을 둘러싼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적이 없으며, 이는 소비에트 시기 이전부터 조지아인들이 다민족, 다언어적 환경에 익숙해 있었고 또 다민족주의(internationalism)를 소비에트 정권이 체제 유지의 기본 이념으로 철저히 관철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나 적대감보다는 포용과 관용이 조지아인들 사이에 정서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카시빌리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던 레토릭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당시 아르메니아인들로 편성된 특수부대가 조지아 남부 지역으로 침투하려던 러시아군을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조지아 정부의 조지아어 사용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지아 영내 소수민족 지역들에서는 조지아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조지아 정부도 무리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는 않고 있다.

2009년에는 조지아 정부의 디아스포라 문제 담당부 장관 가고시제(Yu. Gagoshilze)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는 조지아 영내에는 토착 민족으로 불릴 수 있는 민족 집단이 단 두 개, 즉 조지아인과 압하즈인 밖에 없으며 나머지 민족들은 모두 외부에서 온 외래 민족이므로 디아스포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소수민족들로부터 큰 반발을 초래했고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소수민족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가고시제 장관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5. 시민 국민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을 둘러싼 갈등

2010년 무렵부터 언론을 중심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조지아의 시민 국민주의는 주로 자유주의자 혹은 세계주의자(cosmopolitist)로 불리는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⁵⁾ 그러나 조지아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시민 국민주의적 요구 그리고 반정교적, 반전통적 담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며, 이들이 주로 서구에서 교육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본다. 일례로 2010년 5월 7일, '정교도부모연맹'은 조지아 정부에 비판을 일삼는 TV 방송국 '카프카시야(Kavkasiya)'를 맹비난하면서 이른바 자유주의 세력과 공방전을 벌인 바 있다. 동 연맹의 지도자가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유주의자들은 동 연맹을 비롯한 급진적 종족 국민주의자들과 전통주의자들이 사실은 크렘린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조지아 사회 내부를 민족과 종교적 정서를 충돌해 분열시키려는 러시아의 음모라고 맞받아쳤다.

자유주의 세력은 국가 재산의 완전한 사유화를 주장하며 방송과 출판계에서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사회 안에 민주주의의 신봉자들과 자유주의적 가치 및 제도의 지킴자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시민 대중의 정치 참여를 부르짖고 있는바, 이는 자유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조지아 정부가 시민 대다수의 뜻을 받아들이어 어설픈 인기없는 자유개혁을 집어치우고 그 대신 '시민 국민주의'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시민 국민주의에 대해 조지아인들의 이해는 여전히 얕은 것으로 보인다.

전통주의에 대한 시민 국민주의 지지자들의 적대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실제적인 적을 갖고 있지만 그 적들은 명확한 이념이나 생각이 아직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우리를 프리메이슨으로 비난하기도 하며 동성애자, 조지 소로스의 추종자들과라고 부른다. 조지아의 반자유주의는 브레즈네프에 대한 향수이며 '조지아 인종'(Georgian race)의 국민주의이고 거짓된 정교에 다름아니다. 그것은 성공했으며 젊고 영어와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이들에 대한 그렇고 그런 질투심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논쟁을 벌일 만한 반대파는 결코 될 수 없다."

시민 국민주의 세력과 종족 국민주의 세력 사이의 갈등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발견된다. 정부가 삼림의 사유화와 이를 외국인에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두고 종족 국민주의 성향의 정치가들이 들고일어났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조국과 땅을 파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이미 1905년 조지아의 문학자 프샤벨라(V. Pshavela)는 자신의 저서 "세계주의와 애국주의" 속에서 세계주의와 국민주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세계주의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선을 위해 노력하며 다른 민족들에게 적대감을 보여서는 안된다. 세계주의자를 자처하면서 자기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모든 인류에게도 친구가 될 수 없다. 세계주의를 자기가 속한 민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자유주의와 전통주의, 시민 국민주의와 종족 국민주의의 대립은 궁극적으로 조지아가 유럽의 일부인가라는 지정학적, 문명론적 담론과도 직결된다. 조지아가 유럽에 편입되어야 하며 NATO의 회원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구식 자유주의자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조지아가 협소한 종족 국민주의를 버리고 시민 국민주의 국가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민족의 전통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종족 국민주의자들이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조지아의 전통이라는 것에 대한 시민 국민주의자들의 비판도 논쟁거리다. 예를 들어 조지아인들이 자랑하는 민족음식이나 전통의상, 춤 등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이 장미혁명 이후로 크게 늘었다. 그들은 이들 민족전통이 실상은 사회주의의 잔재이며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고 비판한다. 2010년 8월, 정부가 조지아 민속춤을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자유주의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으며 소수민족들 역시 자기네 민속춤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조지아인들의 남성 민속 복장인 '초하'(chokha)를 둘러싼 스캔들이다. 1991년 설립된 '초하착용자협회'는 2006년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여 '초하를 입은 전조지아남성협회'로 발전했으며 협회 회장에는 조지아 정교회의 최고 수장인 일리야 2세가 선임되었다. 이 조직은 조지아의 민족의상 외에도 민족의 가치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2005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조지아를 방문했을 때 조지아의 민속춤을 피로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초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는 킨잘(코카서스 민속 칼)을 경호상의 이유로 무용수들이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초하협회'는 이러한 조치가 조지아의 전통을 모독한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었다.

또 하나의 스캔들은 장미혁명 이후 정부가 외교관들에게 행사 중 전통복식을 착용하도록 했던 조치였다. 2004년 러시아 주재 조지아 대사인 체첼라시빌리(V. Chechelashvili)가 푸틴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는 자리에 킨잘을 찬 전통 복식으로 나타났을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러시아 측 경호원들이 킨잘을 문제 삼았고 대사는 킨잘없는 초하는 있을 수 없다며 행사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결국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의 중재로 조지아 대사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했으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그런데도 일부 조지아의 야당 인사들은 체첼라시빌리가 완전히 갖춰진 초하를 입은 것도 아니고 킨잘의 길이도 너무 짧았다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이러한 일련의 스캔들 후에 조지아 정부는 외교관들이 전통 복식을 입도록 한 조치를 중단했다.

6. 결론

조지아의 국민주의는 그 나라가 소연방으로부터 독립한 후 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하며 지난한 25년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그것은 대다수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독립 초기에 극단적인 종족 국민주의적 형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코카서스 지역의 특수성인 다민족, 다언어적 역사 배경을 가진 조지아에서 조지아 민족들만의 조지아인 국가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결국 소수민족들의 저항과 러시아로부터의 압력 무엇보다 조지아인들 사이에서 조지아적인 것, 즉 조지아의 정체성을 두고 전개된 혼란스런 정의 논쟁 끝에 결국 극단적인 종족 국민주의자인 감사후르디아는 권좌에서 물러났다. 뒤이어 등장한 세바르드나제 정권 하에서 추진된 국민국가 건설은, 서구적 개념의 시민적 국민주의가 종족 국민주의를 대체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며 종족이나 민족이

아닌 국민으로서의 조지아인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정책 속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영토적 통일성을 담보한 국민국가 건설은 반조지아적 정서를 고수한 채 분리독립을 통해 자신들만의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는 소수민족들의 저항에 직면했으며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결국 2004년 장미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사카시빌리와 신엘리트들은 들끓는 종족 국민주의적 요구를 수렴하면서 최종적으로 시민 국민주의적 국가를 완성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사카시빌리가 보여준 혁명적 국민주의의 모험은 2008년 8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좌절되었으며, 오늘날 조지아의 국민국가 건설은 영토적 통일성도, 조지아 국민의 창출도 달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완인 채로 남아 있다.

동원을 위해 국민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던 조지아 각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조지아 정치와 사회 내에는 주로 전통주의와 서구식 자유주의적 흐름의 착종 속에서 다양한 국민주의적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또 현재도 끊임없는 논쟁이 생산되고 있다. 문제는 조지아의 종족적 국민주의의 이념 속에 들어있는 강한 반러시아적 정서와 반서구 정서이며, 이는 조지아 정부가 지향하는 유럽으로의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 현승수 「조지아의 국가건설 과정: 종족 국민주의에서 혁명적 국민주의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역음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서울: 한울, 2012. 381-405쪽.
- Jones, Stephen. "Georgia: Nationalism from under the Rubble." in Lowell W. Barrington, Ed. *After Independence: Making and Protecting the Nation in Postcolonial and Postcommunist States*.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6. pp. 248-276.
- Kemoklidze, Nino. "Nationalism and War: Georgia in the 1990s." *Working Papers in Nationalism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No. 6. 2011.
- Kirchanov, M. "The main development vectors of Georgian nationalism in the context of political instability: between the Traditions of the Political Nation and the Challenges of Radicalization." *Central Asia and Caucasus*. Vol. 11, No. 3. 2010. pp. 126–137.
- Кирчанов, М.В.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азвития грузин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в условиях политической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Том 13, Вып. 4. 2010. С. 146-159.
- Кирчанов, М.В. "Российская тематика в идеолог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грузинского национализма"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Том 14, Вып. 1. 2011. С. 170–178.
- Чедия, Бека. "Современный грузинский национализм перед вызовами нового тысячелетия."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Том 5, Вып. 3. 2011. С. 42-51.

투르크메니스탄 민족주의 정책: ‘국가부흥운동(National Revival Movement)’ 전개를 중심으로¹⁾

이지은(한국외국어대학교)

I. 들어가며

투르크메니스탄은 기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방으로부터의 독립한 후 국가주권확립을 위해 새로운 국가, 국민 정체성 확립에 가장 큰 필요성을 느꼈다. ‘투르크멘인들의 아버지(Turkmenbashi)’라고도 불렸던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신생독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할 때 ‘국가건설(national building)’이라는 용어 대신에 ‘국가부흥(national revival)’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앞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궁극적 방향성은 소비에트 연방으로 편입되기 이전의 시기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 시대가 모든 면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전성기였음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주도 하에 전략적으로 추진된 ‘국가부흥운동’은 바로 소비에트 이전의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멘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민족주의²⁾ 정책과 그 맥을 함께 한다. 그러나 엄밀한 기준에서 소비에트 편입 이전에 근대국가로서의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투르크멘 민족을 기반으로 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 투르크멘이라고 명명되는 민족은 서로 다른 부족들의 연합(confederation)을 의미했기 때문이다.³⁾ 이러한 이유로 독립 후 투르크멘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진 민족주의 정책은 다수 민족 집단인 투르크멘인을 중심으로 신생독립국가에 적합한 국민,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 이들 사이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사회, 문화적 제도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성을 드러낸다. 특히 주류 민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연맹체 중심으로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투르크멘 사회의 통합은 초대 투르크멘 정부가 민족주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점 사업이었다.

본 연구는 신생독립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한 민족주의 정책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살펴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투르크멘인 비율이 전체 민족 구성의 85% 이상을 차지하여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민족 간 내부적 반발은 거의 없었다. 안정된 민족

1) 진행 중인 글로 완성본이 아니오니 인용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민족 기반의 Nationalism은 특정한 공통의 조상과 혈통을(실재적이건 신화적이건) 둠으로 공유되는 문화적 근원과 전통을 찬양한다. 개인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유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한 국가의 일원으로 남게 된다. 혈통과 문화에 의한 연이 이러한 소속감의 원인으로 제공된다. 이 정의를 따르게 되면 국가의 국경 안에 함께 살고 있으나 토착민들과 동일한 Ethnicity 또는 Race를 공유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즉, 민족주의다. 다시 말해 Nationalism이 '인종적' 또는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경우, 국가 정체성 그 자체가 국가 경계 내부에 살고 있으나 동일한 인종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민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기 마련이었다.

구성 조건에서 추진된 투르크메니스탄의 민족주의 정책, 일명 ‘국가부흥운동’은 사회-문화적으로는 탈(脫) 러시아화와 투르크멘인 정체성 부활에, 정치적으로는 부족 연맹체가 아닌 대통령 중심제를 기반으로 한 투르크멘 사회의 단합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개는 우선 독립 직후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 상황과 특징을 통해 민족주의 정책이 추진된 배경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한 민족주의 정책의 구체적 내용, 즉 인민평의회 창설(비공식, 전통적 세력의 제도권 수용), 역사 편찬(투르크멘인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과 루흐나마 집필(사회 규범 확립) 등의 구체적 사례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투르크메니스탄 민족주의 정책

1. 추진 배경과 전개과정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연방 붕괴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기에 놓여있으며,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형성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독립 후 투르크메니스탄은 ‘국가부흥운동’을 통해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투르크멘 국가 정체성 확립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민족주의는 주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민족 기반 민족주의(nationalism based on nation/ethnic)’인 동시에 오랜 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사회를 지배했던 ‘부족 연맹체’에서 단일 권력으로서의 지배구조 재편성 및 신생독립국으로서의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 확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 당시 투르크멘인의 비율이 85%, 나머지는 우즈베크인이 5%로, 기타 러시아인이 4%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이 수치가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³⁾ 반면,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특정 민족이 없었기 때문에 명목상의 민족을 중심으로 한 국가건설과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가 다른 소수 민족의 반발과 민족 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상대적인 민족 단일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독립 직후 투르크멘 정부가 국민 통합을 위해 해결할 과제는 우선 여러 부족에 의해 나뉘어진 투르크메니스탄 사회를 통합하는데 집중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사회는 오랜 시간 부족 연맹체에 의해 지배되어 왔기 때문에 결속력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독립 후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비공식적, 전통적 부족 세력을 제도권으로 편입, 투르크메니스탄 사회 통합을 주요 민족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2년 투르크멘 정부는 ‘국가부흥운동’을 본격적으로 발표, ‘나뉘어진 부족 연합체의 결속’과 ‘투르크멘인들의 전통적 민족 정체성 확립’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언어, 영토, 경제, 역사문화적 유산이 대부분 일치하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오랫동안 여러 부족들의 연합체로 남아있었다.⁴⁾ 투르크메니스탄에 부족 정체성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에트 시기 주입된 소비에트 정체성과의 내부적 충돌 때문으로 설명 가능하다. 소비에트 중앙정부는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성향을 약화시키면서 민족 중심의 정체성 확립을 권장했지만⁵⁾ 사실상 소비에트적 가치와 정체성 강화 정책⁶⁾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민족주의적

3)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tx.html> (검색일 2014-03-04).

4) Chantal Lemerrier-Quequejay, “From tribe to umma”, *Central Asian Survey*, vol. 3, no. 3, 1985, p. 21.

5) Nazif Shahrani,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 of the Soviet Legacy’, *Central Asian Survey*, Vol 12, No 2, 1993,

움직임이 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상반되고 일관되지 못한 정책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민족연구와 활동이 금지되고 투르크멘 전통의 가치 대신에 러시아 언어와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독립을 맞이하게 된 투르크메니스탄은 우선적으로 여러 부족을 제도권 내로 결속하고, 그리고 탈러시아화를 통한 투르크멘 전통 민족 정체성 재확립에 주력했다.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 정책은 투르크메니스탄 사회의 다양한 부분, 심지어는 국민의 윤리와 정서에도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신생독립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민족주의 정책은 초대 대통령인 니야조프에 의해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의 부흥’을 위해서는 부족의 단합이 가장 중요함을 설파했고, 동시에 투르크메니스탄의 진정한 역사와 정신적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된 중립국가 투르크메니스탄을 건설하고, 수많은 부족을 하나로 통합한다. ... 우리는 새로운 민족을 만들지 않았다. 우리가 한 것은 민족의 중심축으로 돌아가는 것, 한 때 역사의 운명 속으로 흩어져 버렸지만 융성했던 그 시기로의 회귀이다.”⁷⁾ 이러한 발언에서 잘 나타나듯이 니야조프 대통령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지금까지 잊혀져왔던 투르크메니스탄의 민족 정체성을 ‘회복/복구/재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자신과 투르크메니스탄 민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르크멘 정부의 민족주의 정책이 정확히 이미 존재했던 민족 정체성을 재발견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와 체제에 맞는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 투르크메니스탄 민족주의 정책의 특징

앤더슨의 민족주의⁸⁾ 구분에 따르면, 우선 유럽에서 고유 국가 언어에 기반 하여 전개된 ‘언어 민족주의’와 왕조나 제국에서 발현한 ‘공정(公定)(혹은, 관주도)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로 위에서의 역사 재구성, 국가 주도의 프로파간다, 국가 주도의 교육 등의 특징을 가진다. 근대에 들어서는 두 민족주의 특징을 혼합하여 신생독립국가들이 국가 건설과정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혼합형 민족주의가 있다. 특히 신생독립국가들에서는 고유성과 대중성에 입각한 민족주의가 언론, 교육, 행정규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⁹⁾

그런데 오늘날 투르크멘인의 민족 정체성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오랜 시간을 거쳐 지속되어 온 고정된 무언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보다는 독립 후 정부 주도 하에 투르크멘인이 당위적으로 가져야할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설득력 있다. 왜냐하면 우선 국가 고유언어(투르크멘어)의 발전과 함께 정부 주도의 언론, 역사 편찬, 교육 정책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건설과 민족정체성 형성은 전적으로 관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 부분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사회의 영향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민사회, 언론의 자유, 중산층 및 정당의 부재로 사회/국민이 민족 정체성 형성과정에 참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¹⁰⁾

pp 128-131. See also Olivier Roy, *La Nouvelle Asie Centrale ou, La Fabrication des Nations* (Paris: Seuil, 1997).

6) Olivier Roy, ‘La nouvelle Asie centrale’, *Esprit*, No 1, 1997, p 83; Go`khan Bacõ k, ‘Tu`rk Cumhuriyetleri`nde kimlik sorunu’, in Mim Kemal O`ke (ed.), *Gecis, Su`recinde Orta Asya Tu`rk Cumhuriyetleri* (IÇ stanbul: Alfa, 1999), pp 92-102. See for identity transformation in Central Asia, Kemal Karpat, ‘The old and new Central Asia’, *Central Asian Survey*, Vol 12, No 4, 1993, pp 415-425.

7) Turkmenistan: Stability, Reforms, Neutrality, op cit, note 2, p 19.

8)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98).

9) ibid. pp. 113-114.

10) 나아가 사회가 국가에 대항 또는 견제할 능력도 없었다. 다는 것은 천연가스 수출로 벌어들인 국가수입에 기

정리하자면 투르크메니스탄의 민족주의 정책은 앤더슨이 분류한 민족주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우선강력한 권위주의 정부의 지휘 하에 민족적 단일성과 연대 유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관주도 민족주의’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또한 서구에서 나타났던 언어적 민족주의의 모습도 보이지만 투르크메니스탄 민족주의의 핵심 주체가 국가와 지도자 개인으로 국한된 점은 서구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전개에서 부르주아 집단을 포함한 폭넓은 엘리트층이 주체가 되었다는 점과는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투르크멘 지도자는 국가 건설에서 민족이 연대를 지속하고 새로운 민족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서구에서 진행된 민족주의는 주로 경제적 이유로 시작되어 부르주아 계층에 의해 주도된 점이 상이하다.

III. ‘국가부흥운동(national revival movement)’ 전개

1. 인민평의회 창설: 전통적, 비공식적 부족 연맹체의 제도권 수용

독립 후 니야조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투르크멘 정부는 새로운 국민국가에 대한 정당성의 원천을 확보하고, 소비에트가 빠져나간 자리를 채울 새로운 투르크멘인의 정체성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는 자연스레 다양한 부족들의 결속과 이를 통한 민족의 단합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부족 정체성, 특히 주요 5개 부족은 독립 당시 투르크메니스탄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였다. 따라서 부족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부족의 연대와 부족 간 공유된 문화와 전통을 새롭게 각색하여 하나의 통일된 투르크멘인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했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내 주요 5개 부족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테케(Teke) 부족 출신이었지만 유년기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에 대한 애착과 충심은 크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니야조프 대통령은 자신의 출신 부족이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권력을 장악하는데 테케 부족을 활용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부족을 중심으로 통합하기 보다는 공유된 투르크멘 문화를 구축하여 부족에 얽매이지 않는 투르크멘 민족의 정체성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전통적 세력인 부족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 1992년 5월 제정된 신헌법에 따라 인민평의회(Khalk Maslakhaty)가 창설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대통령 중심제 권위주의 공화국으로 종종 술탄 정권, 전체주의, 독재 국가 등으로 지칭될 만큼 대통령 권한이 막강하다. 정치권력이 니야조프 전 대통령 1인에게 고도로 집중된 결과 최고입법기관인 의회(메즐리스)는 정부 견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대통령이 의장인 인민평의회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마저 확보하면서 막강한 권력 기구로 등극했다. 인민평의회는 니야조프 사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집권 초기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8년 폐지되었다.

이미 투르크멘 정치에서 사라졌지만 인민평의회 창설은 오랫동안 투르크멘 사회를 지배해 온 부족 연맹체를 독립 후 구성된 새로운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투르크멘 사회의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한 민족주의 정책의 대표적 산물이다. 전통적, 근대적 요소를 혼합한 인민평의회는 단일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상징적 조직으로, 이를 통해 국가가 부족의 전통적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투르크멘 민족의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부족의 통합은 비공식적, 전통적 권위였던 부족장들의 권위와 상징성은 제도적, 근대적

반 한 투르크메니스탄의 rentier state 정책(무상에 가까운 전기, 수도, 가스 공급)으로 인해 국가-사회의 불평등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있다.

틀로 결합되었고 민족의 통합과 결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2. 역사 편찬과 투르크멘인 정체성 고취

투르크메니스탄의 민족주의 정책은 역사 편찬과 교육 및 방송을 통해 민족의 역사 홍보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1년 독립 후 투르크멘 정부는 우선 소비에트식 가치에서 벗어나고, 범 투르크 역사와는 차별화된 투르크멘 자민족의 역사를 강조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내 부족과 지역의 역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민족 간 유대를 지속시키는데도 주력했다. 특히 특정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여 민족 단합을 고취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취지에 불필요한 역사는 삭제했다. 예를 들어, 곱테페(Goktepe) 전쟁과 같은 일부 부족의 역사적 사실을 온 민족이 공유한 역사로 묘사하지만, 부족 간 발생한 갈등/분쟁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등의 역사 편찬 작업이 진행됐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민족역사편찬 작업은 소위 투르크멘인의 ‘황금시대(golden age)’에 맞춰져 있다. 이는 1040-1194년에 해당하는 셀죽 왕국시대로 수도 아슈가바트에는 이 시대의 유물을 전시하는 거대한 박물관이 건축되었다. 투르크멘 정부가 셀죽 왕국 시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를 독립된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정책의 일부로 아슈가바트의 많은 장소와 거리, 연구소 등이 역사 속 인물들의 이름(Magtymguly, Azady, Gorogly 등)으로 새롭게 불리게 되었다.

투르크멘 민족의 정체성을 기념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 기념일 제정도 활용되었다.¹¹⁾ 투르크멘 민족의 역사를 기념하는 많은 기념일이 독립 후 새로 제정되었으며,¹²⁾ 그때마다 민족의 역사, 윤리적 가치를 홍보하는 영상 매체가 넘쳐났다.

3. 루흐나마(Ruhnama) 편찬

1992년 집필이 시작된 후 2001년 제1권, 그리고 2004년 제2권이 발간된¹³⁾ 루흐나마는 투르크멘 정부의 민족주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책은 소위 ‘투르크멘 민족의 정신’의 역사, 문화 등 모든 면을 담고 있다해도 무방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과 넓은 범주를 포함한다. 니야조프 전 대통령은 루흐나마가 투르크멘 민족들에게 쿠란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 될 것임을 공공연히 언급한 바 있다. 루흐나마는 초대 대통령의 투르크멘 문화, 정신 부흥의 정책을 대변하는 개념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전제주의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¹⁴⁾

11) Fred Halliday, “Nationalism”, in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 368.

12) Some of these days are Anniversary of Turkmenistan Independence, The Renaissance and Unity Day, Holiday of the State Flag and the Birthday of the President, and Day of Turkmenistan Neutrality. There are also many special days that are not official holidays, such as the Election Day of the First President of Turkmenistan, the Turkmen Horses Holiday, the Magtymguly Poetry Day, and the Turkmen Carpets Holiday (Abalakov, op cit, note 29, p 25).

13) 황영삼, “투르크멘인들의 자민족 역사인식: 역사적 정통성 확립과 문화유산 복구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중앙아시아 연구의 학적 체계화, 2009, pp. 401-431.

14) 2000년 9월 니야조프 대통령은 25,000권에 달하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모두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교과서 저자들이 국가의 과거와 투르크멘 민족의 기원 및 특징을 무시하는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들은 저서에 투르크메니스탄 민족 역사에 다른 민족의 역할을 과대 포장했으며, 투르크멘인들이 현대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알타이 산맥에서 발원했다고 기술했다.

IV. 나가며

투르크메니스탄은 민족의 85%가 투르크멘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단일한 민족 구성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이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민족 간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낮았고 보다 적극적인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 니야조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독립 직후부터 ‘국가부흥운동’을 추진하여 가) 근대 투르크메니스탄 사회 전반을 지배해온 소비에트 색채에서 벗어나고, 나) 대통령 직속 역사연구기관을 설립하여 투르크멘인의 역사,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다) 5개의 대표 부족의 비공식적, 전통적 영향력을 ‘인민평의회’라는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했다.

결론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민족주의 정책은 사파르무라트 니야조프 초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주도적 개입 하에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의 투르크메니스탄 전반에 걸쳐 새로운 국가에 걸맞는 새로운 국민성/민족성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제 3세션(15:45 – 17:45)

- 사회자: 고재남(국립외교원)
- 발표자: 김상철(한국외대) : 카자흐스탄의 민족주의 전개:
공동체 참여구조와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강봉구(한양대) :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주의 정치:
종족적 민주주의의 퇴조?
김정훈(배재대) : 타지키스탄 민족주의 전개과정:
민족적 지역집단과 종교적 갈등 가능성
- 토론자: 김영진(한양대), 윤익중(한림대학원대학교), 황성우(한국외대)

카자흐스탄의 민족주의 전개: 공동체 참여구조와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김상철(한국외국어대학교)

I. 서론

카자흐스탄은 현재 130여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로 토착 카자흐인이 1991년 독립 이전까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였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국가이다. 독립 이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카자흐스탄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이고 부유한 시민국가의 설립을 목표로 했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발전전략 보다도 더 이른 속도로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족구성이 가장 다양한 국가로 다수 토착 민족인 무슬림 카자흐인 이외에도 상당수의 비카자흐 및 비무슬림 소수민족집단들이 공존하는 국가이다. 1991년 소련해체 이후 카자흐스탄은 소비에트 유산을 극복하고 안정적 체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카자흐인 중심의 다민족국가 건설을 적극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기도 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독립 이전의 시점에서 카자흐스탄의 변화에 대해 민족문제와 관련된 사회적인 안정 측면에서 불안정의 요소가 빈번히 부각되었고,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는 논문이나 저서들을 발표하기도 함에 따라 소련 붕괴이후의 카자흐스탄 독립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는 대동소이하게 민족관계 안정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귀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정치적인 안정과 관련이 되어서도 이른바 제정러시아 및 소련시기에 형성되었던 러시아 문화중심적인 국가정책, 사회구성원적인 요소들이 여러 구소련 구성국가들에서 민족분규 내지는 민족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에서 대부분의 관찰자나 연구자들은 카자흐스탄의 독립 이후 사회안정 및 민족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정적인 견해나 전망을 언급하는 경우가 다수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1991년 독립 이후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인 중심의 민족국가 건설은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격렬한 저항이나 민족 분규를 경험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실제로 1990년대 초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어의 지위하락과 이중국적 문제에 직면하여서도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보다는 러시아로의 이주를 선택하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다민족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족 문제는 일부 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의 활동을 제외하면 거의 대두되지 않았다.

토착민족인 카자흐 중심으로 국가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국가 수뇌부는 카자흐스탄이 역사 및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 독립 이후의 국가발전과정에서 떠안고 가야할 다양성의 요소를 존중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화합하면서 하나의 국가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민족 공존의 구조를 형성하였다. 소련체제가 만들어낸 사회 문화적인 유산을 떠안고 소련

붕괴를 전후하여 신생국으로 출범한 국가들이 겪었던 민족분규, 사회내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양상이 카자흐스탄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다른 중앙아시아나 구 소련 국가들과 비교해볼때 아주 적은 횟수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독립국가 카자흐스탄의 발전과정에서 이룩된 국가 및 사회안정성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생 독립국 카자흐스탄의 국민형성 정책들은 카자흐스탄이 처해있는 인구학적인 구성의 다양성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1990년대 중반 시점에서 카자흐인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불과했고, 카자흐스탄은 명목 민족집단(titular ethnic group)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유일한 포스트소비에트 국가였다. 카자흐인은 주로 농촌, 그리고 중부와 남부 지역에 밀집해있었고, 러시아인은 도시거주자들로 북부에서 다수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독립이 카자흐인들에게 원초적인 민주적인 가치를 허용하는 제도나 구조의 설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않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의지를 반영하는 정치제도의 설립, 법치에 대한 존중,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 미디어, 사회기구, 정치 정당 등의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토대들이 근본에서부터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카자흐 전통사회가 보여주었던 귀족 중심적인 수직구조에 기인하기 보다는 국민국가로서의 결속력을 결여하고 있었던 카자흐스탄의 상황에서 기인하였다.

18세기 중반부터 지속된 외세의 지배과정에서 혈연을 바탕으로 한 유목 공동체는 분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근대적인 독립 국가의 경험이나, 국민국가로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요구되는 국민 정체성을 발전시킬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었다. 카자흐스탄의 명목민족 집단에서 나타났던 취약한 민족 정체성과 과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를 지닌 인구적인 소수집단의 존재로 인해 국민형성은 힘든 과업일 수밖에 없었다. 국민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존재는 의문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형성은 정부의 국가건설 정책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민족구성원의 다양성이라는 상황은 결국 카자흐스탄이 소련시기부터 직면하고 있었던 당면과제였지만,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시도는 소련붕괴 이후의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초 카자흐스탄은 민족-정치적인 갈등의 잠재지대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민족적인 다양성으로 인한 갈등 발발 우려에서 기인하였다. 카자흐스탄의 민족적인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서방의 여러 연구자들이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이와 같은 비관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족집단들인 명목민족인 카자흐, 슬라브계 민족들간의 갈등은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두드러지게 표면화되지 않았다.

국가내에서 민족적인 분열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 민족(Kazakh Nation)’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국민(Kazakhstani Nation)’이라는 정치적인 개념을 1990년대초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집단들간의 조화와 카자흐스탄 애국주의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성원들간의 유대감을 확고히하는 결속의 구조가 창출되기를 희망했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국민국가(Kazakhstani nation-state)라는 틀을 통해 토착민족인 카자흐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비토착민족 집단들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국민공동체가 소련시기의 어려웠던 과거를 공유하고 또 미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민족단위를 뛰어넘는 공동체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국가 정체성 형성을 위해 민족간(ethnic) 관계와 개별민족집단 내부의 결속(sub-ethnic loyalty)은 임의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가의 관계와 관련하여 카자흐인-국가 관계와 비카자흐인-국가관계를

상이하게 규정했는데, 카자흐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카자흐 민족국가에서 찾아야 하며, 비카자흐인들은 정체성을 카자흐스탄 국민국가에서 찾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카자흐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우선 각자가 관련되어 있는 전통 부족공동체와 연관시켜서 규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입헌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카자흐인의 경우에는 혈연적인 요소와 상관없이 입헌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수용하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 카자흐나 카자흐스탄 문화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국가의 공식적인 국민주의(official nationalism)가 지향하는 목표는 국민국가(nation-state) 카자흐스탄에 대한 인증의 촉진뿐만 아니라, 비카자흐인들의 명목민족 카자흐인에 대한 지제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민족주의 전개 양상을 정치 및 사회참여의 측면, 공동체의 결속 측면, 언어적인 측면의 카자흐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언어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 카자흐스탄의 민족주의 특성의 단면들을 살펴본다.

II. 카자흐스탄의 헌법 및 참여제도 변화와 다원주의 기반 민족주의

1. 헌법 및 참여제도의 변화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지배 엘리트들은 대외적으로 카자흐스탄을 카자흐인의 고향이자 다양한 민족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로 묘사해 왔다. 소비에트 시기 ‘소비에트 공동체’ 사상 하에서 국제주의가 러시아인의 얼굴을 내포하였다면 소비에트의 제도적인 유산에 의해 형성된 카자흐스탄의 국제주의는 카자흐 문화를 강조하면서도, 다민족집단의 공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 헌법은 민족, 국적, 언어 또는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였다. 카자흐어는 1993년 헌법부터 국어(State language)로 그 위상이 분명했고,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러시아어는 1993년 헌법에서는 ‘민족간 의사소통어로서 역할을 하며 카자흐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해 여하한의 제약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로 명시되었는데, 1995년 헌법에서는 민족간 의사소통어에 대한 국가 공식어로서의 위상이 부여되었다. 헌법에서는 국민적인 통일성을 촉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방법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주지사에게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이는 지역 발전이 대통령의 의도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족적인 불만들을 야기할 수 있는 급진 세력의 권력 증대를 막는 효과가 있다.

또한 헌법은 더욱 직접적인 예방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55조는 헌법적인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지역적인 통합성에 저해될 수 있거나 또는 사회, 인종, 국민, 종교, 계급 또는 전통 공동체 단위에서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는 사회기구의 설립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¹⁾ 이러한 헌법 조항들은 앞서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전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입법들에 의해 보완되었다. 물론 이러한 조항들은 카자흐 정부에 의해서 국가 및 지역 정책에 대한 야당 및 대중매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는데 이용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의 최고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보편적으로

1) Ian Bremmer & Cory Welt, "The trouble with democracy in Kazakhstan," *Central Asian Survey*, Vol.15, No.2(1996), p.183.

구현되고 있었지만, 실제의 생활에서는 이러한 원리들이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상충되는 경우들이 많았다.

카자흐스탄 독립 직후 최고소비에트에 의해 만들어진 소련 독립이후 카자흐스탄 최초 헌법은 1993년 1월 의회에 의해 비준되었다. 1993년 헌법은 서문에서 카자흐인의 민족자결체로 카자흐스탄 정체성을 규정하고 카자흐어를 국가어로 격상시켰다. 1993년 헌법에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보장이 명시되었지만 독립 직후 카자흐인 중심의 민족국가 건설은 정치 엘리트들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 헌법은 당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던 대규모 러시아인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대대적인 이주를 촉발하며 민족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정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 헌법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시도했다. 이의 결과로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신헌법에는 체제전환비용을 줄이고 평화적인 다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다.²⁾ 1993년 헌법과는 달리 1995년 헌법 서문은 ‘카자흐스탄을 카자흐인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카자흐인의 고유한 고향’으로 정의하며 다민족의 공존을 함께 강조하였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국가 건설에서 카자흐의 정체성 확립과 다민족 국가로서의 조화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면서도 양립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지배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카자흐인의 ‘고유한 고향’으로 카자흐 민족을 만족시키고 부차적으로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을 배려하기 위해 이중적이면서 모호한 개념을 도출했다. 이러한 선상에서 1995년 헌법은 소비에트 시기의 ‘소비에트인’을 연상시키는 ‘카자흐스탄인(Kazakhstani people)’을 최초로 언급하며 초민족적인 카자흐스탄 정체성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수민족 집단들은 ‘카자흐스탄인’의 형성을 지배민족으로서 카자흐의 문화와 언어의 확산을 통한 카자흐스탄의 전면적인 카자흐화(Kazakhification)로 간주하며 비난하여 왔다. 더욱이 ‘카자흐스탄인’은 카자흐 민족의 역사적 모국인 카자흐스탄에서 당연히 카자흐 문화와 언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카자흐 민족주의자들로부터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카자흐 민족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의 결속을 통한 국민적 통합을 지지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성급한 ‘카자흐스탄인’ 형성은 ‘카자흐성(Kazakhness)’과 상반되는 러시아어의 확산뿐만 아니라 러시아어에 근거한 집단적 정체성을 야기하여 카자흐 민족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00여 년 이상 강력한 러시아화에 직면했던 카자흐 언어와 문화가 ‘카자흐스탄인’ 건설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토대가 상당히 취약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민족 집단들은 정치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통합체로서 ‘카자흐스탄인’이라는 초민족적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수차례 천명해 왔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소련말기의 개혁개방 정책 시기인 1986년부터 1989년 사이에 비공식적인 정치운동과 토론클럽들이 부각되고 있었다. 이러한 조직들은 초기에는 카자흐스탄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슈들에 집중하여 논의를 이끌었으며, 이러한 과정에는 이미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양한 분야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었다.³⁾ 다원주의의 출현은 중앙정부 차

2) 8월 30일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91%가 참가하여 98%가 개정헌법에 찬성하였다. *Kazakhstanskaya Pravda*, 1995년 9월 5일.

3)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알마아타의 녹색전선(Zelenyi Front), 네바다-세미팔라친스크 국제 반핵 및 환경운동이 활동하고 있었다. Rico Issacs, "Informal politics and the uncertain context of transition: revisiting early stage non-democratic development in Kazakhstan," *Democratization*, Vol. 17, No.1(2010), p. 12.

원에서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카자흐스탄 독립 초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자유주의 제도인 선거를 통해 정치제도를 형성하려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공식적인 제도를 가부장적인 관계에 바탕을 두려했다. 선거과정과 이의 진행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투표절차들은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들에 의해 개별 지방관리들이 진행하였지만 이들 역시 친대통령계 정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대통령에 대해 지지와 충성을 의미했지만, 의회에서는 이와는 상이한 상황들이 나타났다. 의회에는 대통령 지지 정당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세력을 규합하여 대통령의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 결정을 내렸는데, 독자세력을 포함하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세력은 전체 의석수의 대략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⁴⁾

나자르바예프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의 카자흐스탄 의회는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원들이 선출되었고, 이는 소련 붕괴 이후 2년간의 정치 및 경제 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의회 해산을 요구하였고, 러시아의 상황과는 달리 카자흐 의회는 대통령의 의중대로 1993년 12월 평화롭게 해산을 했고, 1994년 3월 선거실시가 발표되었다. 헌법에 따라 후보자들에게는 인종주의나 민족적인 특혜를 조장하거나, 영토적인 통합성을 해치는 선거운동은 금지되었는데, 이러한 기조는 카자흐스탄 법무부가 단일민족 기구로만 구성된 집단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여 강화되었다.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는 후보자 등록 거부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었던 러시아인 협회 LAD, 급진 경제개혁을 지지했던 기구를 배경으로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등록 거부도 포함되어 있었고, 전체로 218명의 후보가 자격미달로 후보자 등록이 거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 756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77%가 카자흐, 단지 18%가 러시아인으로 반-러시아적인 정서가 나타났다.

1994년 의회 선거 과정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카자흐인들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고 의회의 민족 구성비를 조정하기 위해 소위 국가목록(대통령이 지명한 후보 목록)이 이용되었다.⁵⁾ 이 국가목록은 카자흐인이나 러시아인이 인구학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에서 반드시 러시아인과 카자흐인들을 추천하기 위해 활용되었는데, 국가목록에는 국가에서 차지하는 인구에 비해 의회 진출이 미약하였던 상당수의 비카자흐 소수민족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후원에 따라 상당수 비카자흐인들이 여당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무소속으로 야당의 입장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비카자흐인을 견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⁶⁾

지방행정단위에서 친대통령 정당은 민족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의회 및 시의회 후보를 지명하였다. 상대적으로 러시아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주에서는 주의회 장악을 위해 주로 러시아인들을 후보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카자흐스탄에서 민족 분포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⁷⁾ 급진정당들은 선거과정에서 배제되었는데, 카자흐인은 105석 가운데 59%를 차지하게 되었고, 러시아인은 48석으로 27%를 차지하였다. 선거결과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선거가 민주적으로 진행됨을 알리기 위해 100여명이 넘는 국제선거 감시단을 초청하였다. 카

4) 같은 글, 12쪽.

5) 1994년 선거에서는 64명이 국가목록에 의해 후보자가 되었고, 이 가운데 42명이 선출되었다. Ian Bremmer & Cory Welt, "The trouble with democracy in Kazakhstan," p.188.

6) 특히 2004년 하원 선거에서 선출된 모든 러시아인 의원들이 친대통령 정당 소속이라는 사실은 비카자흐인들의 의회 진출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7) 북카자흐스탄 주(49.8%), 알마티 시(45.2%), 동카자흐스탄 주(45.4%)와 같이 상대적으로 러시아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러시아인 의원의 수는 카자흐인 의원들을 초월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은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으로 파견된 CSCE 선거감시단원들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때 공정선거로 보기 힘들다는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는데,⁸⁾ 선거과정에서 더 문제로 부각된 것은 중복투표, 가문투표 등이었다.

카자흐스탄 초기 국가체제 변화의 계기였던 1993년과 1995년 헌법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종, 민족, 종교, 계급 및 씨족의 갈등과 적의를 선동하는 대중 단체를 금지하였는데, 이는민족 단체나 정당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과 민족 집단의 권리는 형사법, 행정법 및 공공단체법 등의 조항에 의해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다. 사실 민족적 적의와 갈등 선동을 금지하는 헌법의 조항은 특히 북부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에 합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및 코사크 단체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1995년 헌법이 민족, 인종, 언어 또는 종교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에서 강력한 대통령의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사법부는 소수민족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 다민족주의와 비카자흐민족의 사회위상 변화

1991년 소련 붕괴기에 카자흐스탄 북부에 거주하고 있었던 대규모 러시아인 집단은 인구규모 측면에서 다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직접 영향에서 고립된 국경지대의 디아스포라(Diaspora)로 전락하였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어와 전통적 민족 문화의 부활을 통한 카자흐 민족 정체성 확립이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되면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러시아인들은 오히려 카자흐어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카자흐화(Kazakhification) 정책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알마티 수도로부터의 직접적인 행정 통제와 카자흐 언어와 문화의 습득이라는 카자흐화 정책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여 왔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의 러시아인들은 인구학적 우위를 바탕으로 러시아어를 선호하면서 카자흐어를 저급한 문화로 간주하고 언어 습득을 거부하여 왔다.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 북부지역 러시아인들의 상당수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 하락과 카자흐화 정책에 항의하며 러시아 등지로 이주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인의 대규모 해외 유출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서 러시아인은 여전히 전체 인구의 60% 이상으로 인구학적 지배 집단을 형성하면서 카자흐 정부의 민족 정책과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되어 왔다.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서 러시아인의 인구학적 우위와 카자흐화에 대한 저항은 카자흐 민족주의 및 국가 통합과 상충되면서 러시아인들의 영토적 자치 내지는 분리주의 운동을 자극하여 왔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동질화에 대한 소수민족의 저항은 국가 통합과 단일적 민족 정체성 형성을 극도로 억제하면서 자치 또는 분리주의 운동의 강력한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화를 통한 국가 통합에 대한 북부지역 러시아인들의 반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 거주지역의 극단적 양극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어 왔다.⁹⁾ 실제로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통치 동안 카자흐인들은 남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잠불 주 등을 비롯한 남부지역과 농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던 반면에 러시아인들은 북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 콕세타우, 동

8) 공정선거감시단을 파견한 CSCE는 '국가목록'을 통한 후보자 추천 사례가 원칙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이러한 관여는 '파리헌장(the Paris Charter)과 헬싱키의정서(Helsinki Act)'에 반하는 것임을 발표하였다. *Panorama*, 1994. 3. 12.

9) 1989년 소비에트의 마지막 인구 조사는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에서 카자흐인 대 러시아인의 구성비가 3.64:1로 카자흐인이 극단적으로 우세한 반면에 북부지역에서는 오히려 1:3.33으로 러시아인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 분포의 심각한 지리적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주를 비롯한 북부지역과 알마티를 포함하는 도시에 대규모 거주하여 왔다. 러시아인이 압도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북부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인, 벨로루시인, 독일인 등 포괄적 ‘러시아어 사용집단’이 러시아인의 인구학적 우위를 뒷받침하며 카자흐스탄에서 민족 거주지역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인 집단의 인구학적 우위와 민족 거주지역의 극단적 양극화라는 실상에 근거하여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을 합병하려는 실지회복운동(Irredentist)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왔다. 대부분의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러시아인의 인구학적 우위를 근거로 카자흐스탄의 북부지역이 러시아인들의 역사적인 집단 거주지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솔제니친(Alexandr Solzhenitsyn)은 카자흐스탄의 인구학적 분포가 입증하듯이 카자흐인의 역사적 영토는 역사적으로 남부지역에 제한되어 있으며 과거 소비에트에 의한 자의적 국경 설정에 의해 카자흐스탄의 영토로 설정된 북부지역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의사에 따라 러시아에 합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의 러시아인들도 러시아 제국이 카자흐스탄을 정복할 당시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던 초원지역을 개척하고 문화적으로 발전시킨 집단은 러시아인이며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북부지역은 러시아의 영토라고 강조하면서 솔제니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였다.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의 실지회복운동과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의 합병주장은 7000km에 이르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경 지대에 긴장을 유발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러시아에게 정치적 동질성을 의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코사크(cossacks)인들은 정치적 자치운동을 전개하면서 북부지역 러시아인들의 분리주의 운동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서 러시아인의 압도적인 인구학적 우위와 민족 거주지역의 극단적 양극화는 북부지역 러시아인들의 영토적 자치 및 분리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의 실지회복운동의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면서 카자흐스탄의 대내외적 정치 발전을 억제하고 국가 통합을 심각히 저해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실지회복운동은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의 자치와 분리주의 운동을 우려한 카자흐 민족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특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북부지역 러시아인들에 대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합병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카자흐 정부는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 대한 행정적 자치 내지는 러시아에 의한 합병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문제라 강조하면서 북부지역의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스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성장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의 지리적 고립주의로 인한 국가의 분열을 우려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북부지역 러시아인들을 근접 거리에서 통치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소비에트 해체 이후 사회적 지위 하락과 경제적 차별을 경험하며 통치세력으로 부상한 카자흐 민족 집단과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 카자흐스탄 북부지역 러시아인에 대한 확고한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근접 거리에서 통제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의 수도이전 배경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로부터 실지회복운동의 영향을 차단하고 잠재적 자치 또는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며, 북부지역에서 러시아인과 카자흐인의 인구학적 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선시키려는 민족주의적인 측면이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스타나 수도이전을 통하여 북부지역의 산업 및 자원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확립하고 국경지대에서의 위협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따른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주가 북부지역으로 카자흐인들의 대규모 이동을 자극하여 민족 구조의 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따라서 국

제주의자로 민족적 화합을 제1의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도 북부지역으로 카자흐인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카자흐 민족주의에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자흐어 연설에서 아스타나는 카자흐인들의 영토이고 수도 이전은 카자흐스탄과 카자흐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이주와 신수도 아스타나(Astana) 건설 사업은 카자흐인들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였고, 북부지역에 주로 남부 출신의 젊은 카자흐인들의 대규모 이주를 유발하여 북부에서의 인구학적 균형을 넘어 카자흐인 우위를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3. 다민족주의 참여과정의 확립

비카자흐 민족 집단의 국내정치 과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여 다민족사회의 참여과정을 확대하였다. 2002년 새롭게 개정된 정당법은 인종, 민족, 직업 및 종교에 근거한 정당 설립을 금지하면서 민족 정당의 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또한 그 정당법은 정당 등록의 요건을 한층 강화하여 50,000명 이상의 당원 확보와 아스타나와 알마티를 비롯하여 14개 주에 7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 지부 설립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 남북으로 구분되는 인구학적-민족구조적 특성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만 강력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민족 집단에 근거한 정치 운동의 출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2004년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하원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자격이 정당에 국한하여 부여되었으며, 따라서 정당만 1999년에 도입된 비례대표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공단체법은 모든 공공단체들의 법무부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대중 집회나 시위 개최를 위해 관계당국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헌법, 정당법, 공공단체법 등 민족적 색채를 띠지 않는 국가의 기본법들을 이용하여 단체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시키고 집회 허가를 거부하면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민족 지도자와 단체의 활동을 억제하여 왔다. 사실 공개적으로 단순히 민족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도 민족적 적의를 선동하는 행위로 비난의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족 단체의 정치 활동은 위축되었다.

국가나 사회의 다민족적인 안정성을 해칠수 있는 민족집단 차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카자흐스탄 정부와 정당들은 비카자흐인 민족집단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입법부에서 카자흐스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민족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의해 2007년부터 소수 민족 대표의 의회진출이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통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었다.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ssembly of Peoples of Kazakhstan: APK)는 다민족 사회의 민족 화합과 민족 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모범적 정책 사례로 국내외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다.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민족 통합의 실제적 장을 마련하고 모든 민족 집단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후원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 1995년 3월 1일 대통령령에 의해 창설되었다.¹⁰⁾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국가 기관의 대표들과 다양한 민족 및 공공 단체로 구성되며 의장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으로써 부의장을 임명하고 국민의회 의원 선출과 해임을 결정한다. 카자흐

10)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기본적인 과제는 다민족 카자흐스탄에서 민족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고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민족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개발하고 소수민족들의 정신적 및 문화적 부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2년 4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가 1995년 제시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치하하면서 이제부터 카자흐 언어와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제고하고 카자흐민족주의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애국주의를 중심으로 민족 집단들을 통합함으로써 소위 ‘카자흐스탄 정체성’ 형성을 위해 매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스탄 국민의의 총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개최되며 운영 기관인 의회 위원회(Council of Assembly)는 대통령 행정실에 소속된다. 또한 14개의 주와 알마티 및 아스타나 시에는 주지사 내지는 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지역단위의 민족회의(small assembly)들이 조직된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제시한 공식적인 목적과 과제와 함께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는 소속되어 있는 민족 협회들과 그 지도자들을 감독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국민의회는 다양한 민족협회와 그 지도자들이 민족어 교육과 출판, 전통적 문화 행사 개최와 같이 국가가 허용한 활동 범위를 넘어 가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하면서 민족 운동의 탈정치화를 추구하였다. 동시에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다양한 재정 지원과 보상 제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민족 협회들과 협력하여 왔다. 더욱이 대부분 다양한 민족 협회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위원들은 수시로 대통령과 주지사들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국가의 지배 엘리트와 다양한 민족 엘리트간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협상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또 다른 주요한 기능은 다양한 민족 엘리트들에게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위원들에 종종 수여되는 명예 훈장 이외에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위원이라는 직위 그 자체는 민족 공동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확실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산하의 민족 협회 지도자들의 대다수가 친대통령 정당의 당원인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의회 선거에서도 민족 협회의 지도자들은 후보자의 민족적 배경에 관계없이 친체제 후보를 지원하는데 자신이 이끄는 민족 공동체를 동원하면서 체제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였다.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하였지만 1995년 당시 해산되었던 최고 소비에트 즉 의회를 대신하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의회에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기능에 대한 공식적인 제도화는 2007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실현되었다.¹¹⁾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다민족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분열을 방지하고 다민족 통합사회 구축과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당시 여당세력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카자흐스탄 국민연합당(PPU), 오타당(Otan Party) 및 기타 소수정당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범국민 정당을 창설했다. 1999년 1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국민연합당을 비롯한 친정부 정당과 운동단체들은 새로운 오타당을 결성하였다. 1999년 하원 선거에서 오타당은 77석 의석의 1/3에 해당하는 24석을 차지하였고 2004년 선거에서는 과반이 넘는 42석을 획득하였다. 2006년 아사르(Asar), 시민당 및 농업당을 흡수한 오타당은 당명을 누르오타당(NurOtan Party)으로 개칭하였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2007년 하원 선거에서 98석 모두를 휩쓸며 일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당연히 포괄적인 대통령 지지정당이었기 때문에 누르오타당은 민족 문제에 관하여 국가의 공식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국민연합당과 누르 오타당은 모든 민족 공동체의 화합, 평등 및 시민적 애국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카자흐스탄 영토에 대한 민족적 자결은 카자흐인의 고유한 권리로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친대통령 정당들은 민족 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무시하고 모든 민족 집단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초민족적 입장을 강조하였다. 야당들도 민

11)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제안하고 이틀 후 의회가 승인한 2007년 5월 헌법 개정은 일반적으로 의회권력의 역할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2007년 헌법 개정에 따라 하원의 의석수가 77석에서 107석으로 확대되었으며, 98석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9석은 카자흐스탄 민족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상원이 민족 문화를 비롯한 주요 사회적 이익을 대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대통령은 기존의 7명보다 많은 15명의 의원을 지명하게 되었다.

족 문제에 대한 주장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족적 적대 선동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99년과 2004년 의회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의 민족 문제에 대한 입장은 카자흐 민족주의 정당인 알라쉬를 제외하고 정당을 초월하여 대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민족 평등과 화합 및 민족 차별에 대한 반대와 같은 보편적 원칙이 모든 정당의 강령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제도와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민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거나 특정한 민족 집단을 선호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지지기반 상실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7년 6월 하원을 해산하고 8월 18일에 조기 의회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대통령의 누르오타당이 거의 90%의 지지를 받고 하원의석 97석을 모두 차지하였다.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하원 진출 후보자로 지명된 9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신임 투표를 거쳐 하원에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를 대표할 의원을 선출하였다. 2007년 하원에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하원의 민족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여전히 카자흐인이 지배하는 하원에서의 민족 집단수가 3개에서 9개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한편 당시 고려인 협회 회장이었던 채 유리와 한 명의 러시아인 및 6명의 카자흐인들을 상원의원으로 임명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결정은 상원의 민족 구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의회에서 민족 대표의 제도화를 통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다민족 체제의 안정과 더불어 임명 대상 의원수를 확대하여 자신의 권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출신의 15명 의원들이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민족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카자흐스탄 국민회의의 의장으로 주로 비카자흐 민족 대표들에 대한 후원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저의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 의회에서 민족 대표는 민주주의의 희생과 권위주의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제도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III. 카자흐민족 내부의 민족주의 갈등요인

1. 민족분규 및 갈등양상의 변화

소련말기부터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민족분규는 1989년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민족적인 주도권 박탈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불만에 대한 표출형태로 바뀌었다. 1986년 소련시기 최초로 발생한 이른바 민족주의 시위였던 1986년 알마티 시위는 보기에 따라서는 카자흐 영역에서 카자흐 민족의 배타성과 우월성이 보장되지 않음에 대한 불만 표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카자흐 공동체가 러시아에 대해 취해왔던 입장이 항상 대립의 대상이 아니었고, 또한 러시아 문화의 수용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 아직도 지배적인 견해를 고려해볼때 이를 단순히 민족시위로 규정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카자흐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성격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고, 1986년 알마티 시위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카자흐스탄 관련학계에서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이후 민족분규는 그 분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1986년 민족분규는 카자흐인 민족분규는 카자흐스탄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민족구성원 전체차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기 보다

는 특정지역의 사회적인 불만이 표출되는 양상으로 변모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개별 지역 단위로 지역 카자흐인 사회와 해당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계절노동자들간에 발생했다. 소련 말기인 1989년에는 카자흐인과 대부분이 북카프카즈 출신인 레즈긴인과 체첸인간의 충돌이 노비우젠(현재는 장아우젠)에서 발생했다.¹²⁾ 2005년에도 아튀라우 주민과 터키인 근로자들이 500여명 이상 관련된 충돌이 발생하였고, 레즈긴인, 체첸인 그리고 아제르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가게에 대한 파괴활동이 2006년 8월에도 발생하였다. 2007년에는 알마티 인근지역에서 카자흐인과 체첸인간의 마을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5명이 죽고 많은 수가 부상을 당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부유층과 빈곤층, 도시와 농촌간, 교육계층과 비교육계층간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간헐적으로 사회적인 불만으로 표출되어 동일-민족집단내의 분규를 촉발시키기도 한다.

카자흐 공동체내에서도 긴장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대통령은 카자흐 공동체의 통합을 반복하여 왔지만, 카자흐 공동체내에서의 갈등도 활성화되어 있었다. 현재 카자흐 공동체의 구성원들간에 구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전통 혈연공동체와 직접 연관된 주즈(zhuz)보다는 교육배경과 생활수준이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카자흐인 내부의 분열은 농촌 카자흐인과 도시 카자흐인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다. 카자흐 학교에서 교육받은 카자흐인과 러시아학교나 해외에서 교육받은 카자흐인간에 갈등이 존재했고, 카자흐스탄 독립이후 카자흐스탄으로 이민한 카자흐인, 소련시기 카자흐공화국 및 독립이후의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카자흐인 간에 갈등이 존재했다.

카자흐스탄 독립이후 카자흐스탄의 민족정책은 이른바 유출되고 있는 민족집단들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한 유입 측면, 기존의 민족집단들과 새로 유입된 집단간의 통합에 집중되어 왔는데, 특히 재외 카자흐 민족의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는 국가 정체성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안정성 확립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략 110만명 규모의 유입이민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6만명 규모는 오랄만이라 불리는 카자흐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에 기반을 둔 이른바 재외동포 귀국정책 중심의 이민정책은 독일과 이스라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내부적인 안정과 국민정체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귀국 동포의 사회 통합과 관련되어서는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오랄만들을 역사적인 모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지만, 오랄만들이 새로이 정착한 국가이며 자신들의 역사적인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사회로의 경제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통합에는 여전히 상당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이 높은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랄만들은 카자흐스탄 경제 및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가운데 속해있으며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오랄만(Oralman)은 이른바 '귀국민(returnee)'이란 의미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1991년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한 카자흐 민족을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오랄만은

12) 충돌 원인은 카자흐인들이 카프카즈 출신 민족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던 경제활동영역으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갈등을 초래한 것이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소련시대부터 코카서스인이 장악하고 있었던 급여조건이 좋은 석유 및 가스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카자흐인들이 가지고자 하는 시도에 의해 충돌이 발생하였다.

보통 카자흐스탄의 이웃국가들인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집단으로 살고 있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출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세계 카자흐 민족은 대략 1450만명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000만명 정도가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카자흐스탄 국외의 구소련 14개 국가 및 세계 25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450만명 가운데 80만명은 디아스포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370만명은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일종의 실향민이라 규정할 수 있는데,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카자흐인 집단으로 구성된다.

해외에 형성된 카자흐 민족 가운데 가장 그 규모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1920년대와 30년대 소련시기에 소련의 정치적인 탄압, 강제집산화, 대기근 등의 이유로 카자흐스탄을 떠났던 집단들의 후손들이다. 소련시기에 대략 20만명 규모의 카자흐인이 중국, 몽골,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등으로 이주하였는데, 반면 카자흐스탄과 이웃한 소련의 연방공화국들에서는 1926-1939년 사이에 카자흐인의 인구가 2.5배 증가하여 대략 79만명이 넘고 있었다.

국가 안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을 개별 민족집단 내부의 안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숙련된 기술이 없이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 출신 카자흐인들과 도시 거주 카자흐인간의 관계 안정이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었다. 대부분 농촌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많은 도시 카자흐인들은 카자흐어로 의사를 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자흐스탄 독립이후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한 카자흐인 디아스포라의 불안정한 지위 역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순수 카자흐어 사용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의도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오랄만으로 불리는 카자흐인들의 귀국을 촉진해왔는데, 중국, 몽골, 터키, 이란, 러시아, 타지키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카자흐인들이 30만명 정도가 귀국하였다. 이러한 오랄만들은 러시아어나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되는 키릴문자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며, 이웃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기도 했다.

2. 재외카자흐인의 귀국과 사회통합

18세기초부터 시작된 슬라브인의 카자흐스탄 유입은 소련시기에도 계속되었고, 당시의 토착민이라 할 수 있는 카자흐인의 대량 축출, 다른 민족들의 카자흐스탄으로의 강제이주로 인해 카자흐인은 이른바 자신의 땅에서 민족적인 소수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959년 시점에는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인보다 더 많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1989년이 되어서야 카자흐인이 다시 러시아인보다 숫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반전되었다. 소련의 붕괴이후 카자흐스탄은 인구학적으로 특히 러시아인과 독일인의 유출이민에 따른 대규모 인구학적인 공백이 발생하였다. 1991년부터 2004년 사이에 대략 316만여명 정도가 카자흐스탄을 떠났는데, 특히 이는 카자흐스탄 독립 전후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1989년 1650만명 규모에서 1999년에는 1500만명 규모로 감소하였다.

인구학적인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한달전인 1991년 11월 18일에 소련의 다른 공화국 및 해외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카자흐 민족의 카자흐스탄 이주에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카자흐인에 대한 관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카자흐 아울(전통마을)과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1991-1992년 카자흐스탄으로 대략 61,000여명의 카자흐인들이 이주하였다. 이후 1992년 6월 이민법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

는 재외 카자흐인들과 관련된 절차와 지원이 확립될 수 있었다. 당시에는 대규모 귀국이 예상되었던 오랄만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귀국이민 쿼터제가 만들어졌으며 귀국이민자들을 관할하는 특별기구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 카자흐스탄에선 경제 및 사회적인 변형의 과정이 대규모 유출이민과 수반되어 나타났다. 이는 그 이후 카자흐스탄이 대규모 유입 이민을 추진하게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경제적인 이유와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재외 카자흐인들의 카자흐스탄 귀국사업은 카자흐스탄 국가의 민족정체성보존과 사회내부적인 안정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소련시기 카자흐스탄은 인구학적인 구조의 변화로 인해 많은 카자흐 전통관습이 사라졌으며 특히 카자흐어의 사용이 공식영역 뿐만 아니라 비공식 영역에서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카자흐어와 카자흐 문화의 많은 요소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던 상황에서 재외 카자흐인인 오랄만의 카자흐스탄 귀환은 카자흐 문화를 보존 및 발전시키기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고 있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국가 이민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오랄만들은 거주환경과 편의성 측면에서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유사한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주로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에, 반면 중국과 몽골 등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동부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북부 지역에 정착하는 경우에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랄만들은 일상생활에서 러시아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지역을 선호하고, 특히 남부 지역을 선호한다.

오랄만들은 현실적으로 카자흐스탄 귀국이후 러시아어 구사력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흡수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국에서 온 경우에는 교육기관에서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카자흐스탄 독립이후 오랄만들은 우즈베키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터키 등지에서부터 귀국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적어도 7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카자흐스탄 이외의 지역에서 민족언어와 문화들을 유지하면서 생활해왔다. 이들이 서로 상이한 조건의 외국에서 살아옴으로 인해 오랄만 이주는 전통적인 카자흐 문화와는 차이를 보이는 다른 문화유산들의 카자흐스탄 유입이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랄만들의 카자흐스탄 사회 통합은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의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 대중매체 및 공공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오랄만들은 지역 공동체에 성공적으로 흡수되고 있지만, 일부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원래 살았던 국가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지역 공동체는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새로운 이주민 유민 과정에서 이주민을 수용하는데 상당히 관대했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21세기에는 역설적이게도 같은 동포라 할 수 있는 오랄만에 대한 수용에 대해서는 상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한 재외카자흐인 귀국사업은 크게 매년 귀국할 수 있는 쿼터배정, 제도적인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년 귀국할 수 있는 연간 쿼터는 1993년부터 실시되어 1993년에는 1만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후 1990년대말까지는 그 규모가 매우 유동적이었고, 1999년과 2000년에는 500가구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이 급진전되면서 쿼터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2005년에는 1만5천 가구가 귀국 쿼터를 배정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쿼터제도는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하는 재외카자흐인들을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하여 초기부터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이민의 허용보다는 국가가 관리하는 귀국사업을 통한

카자흐스탄 사회의 카자흐 중심 구조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쿼터제를 통한 재외카자흐인 귀국사업의 수행은 그 취지와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쿼터제를 통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이주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2003년, 2004년의 경우 공식 쿼터는 1만명이었지만, 쿼터와 상관없이 8000여명 이상이 이른바 자발적인 귀국을 하였는데, 특히 이들은 대부분이 아랄해 고갈로 인해 환경재앙지대에 속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파크스탄 지역, 나보이 지역 출신 카자흐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 귀국한 재외카자흐인의 규모가 10만명 수준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61%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었고, 몽골 출신이 1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9%, 중국 출신 5%, 러시아 출신 4% 등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귀국한 재외 카자흐인은 대부분이 국가쿼터제를 통한 공식적인 이주를 하여 이주초기부터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하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반면, 60%가 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경우에는 CIS 국가들 사이에 적용되는 비자면제 조항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용하는 쿼터제도와 상관없이 임의로 이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귀국 재외카자흐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귀국 재외카자흐인 집단은 국가 쿼터제도를 통한 공식적인 이주민, 국가의 관리와는 상관없이 비공식적으로 이주한 이주민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귀국한 재외 카자흐인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일원화된 관리와 지원은 정책과 실제 현장에서의 지원 측면에서 괴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아울러 귀국한 재외카자흐인 집단에서 실제 사회내에서는 오랄만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법제에 대한 무지, 카자흐스탄 사회의 언어실정에 맞지 않는 언어 구사능력, 귀국 재외 카자흐인을 위한 특별 교육의 부재, 이주전 거주국가 연금제도와 연계된 연금체계의 부재, 농촌지역에서 현지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심리적인 괴리 측면 등이 재외 카자흐인 이주사업 추진과 관련되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IV. 언어법 변천과 카자흐스탄 민족주의

V. 결론

<참고문헌>

- Bremmer, Ian & Welt, Cory. 1996. "The trouble with democracy in Kazakhstan." *Central Asian Survey*, Vol.15, No.2.
- Cummings, Sally N. 2006. "Legitimation and Identification in Kazakhstan,"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Vol.12.
- Gumpfenberg, Marie-Carrie von. 2007. Kazakhstan - Challenges to the Booming Petro-Economy: FAST Country Risk Profile Kazakhstan. Bern: Swisspeace.
- Issacs, Rico. 2010. "Informal politics and the uncertain context of transition: revisiting early stage non-democratic development in Kazakhstan," *Democratization*, Vol. 17, No.1.
- Olcott, Martha Brill. 1995. *The Kazakhs 2nd edition*. Hoover Institution Press.
- Schatz, Edward. 2004. *Modern Clan Politics: The Power of "Blood" in Kazakhstan and Beyond*.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Pomfret, Richard. 2005. "Kazakhstan's Economy since Independence: Does the Oil Boom Offer a Second Ch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urope-Asia Studies*. Vol.57, No.6.
- Кунаев, Динмухамед. 1992. О моем времени(On my times). Alma-Ata: Yntymaq.
- Медушевский,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2011. "Политические режим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онституционная реформы в рамках авторитарн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The Soviet Legacy and Nation-Building in Central Asia, APRC Proceedings Series(2011-4)*, Asia-Pacific Research Center(APRC), Hanyang University.
- Kazakhstanskaya Pravda*. 1995. 9. 5.
- Panorama*. 1994. 3. 12.
- Strategic Plan of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주의 정치: 종족적 민족주의의 퇴조?*

강봉구(한양대학교)

I. 서론

소련 붕괴 후 신생 독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함께 국가형성과 민족형성의 과제를 떠안고 이를 수행해 왔다. 근대 국가형성과정에서 통치 권력의 정치적 정당성을 높여주고 사회 통합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은 민족의식과 민족주의¹⁾ 운동이다. 민족주의는 이념적으로는 지배의 정당화 기제로서의 역할을, 정치적 실천의 측면에서는 대중적 지지와 동의를 동원하고 과거와 현재의 박탈감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²⁾ 기존의 권위구조와 정체성이 붕괴된 탈소 공간에서 신생 국가들의 민족주의는 새로운 동일화를 위한 정체성과 그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현 지배 권력의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소비에트 권력을 대신하여 정치적 충성과 헌신의 상징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 지지와 동의를 끌어내고자 한다.

민족의식, 민족 및 민족주의 창출은 자아와 타자,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선인 정체성의 모색과 정체성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왔다. 탈소 국가들의 민족·국가 정체성 모색 그리고 이 민족·국가 정체성 고양을 통치와 지배의 정당화 기제로 이용하는 정체성 정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의 신생 국가들에서 사회통합과 정치적 동원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글의 대상국가인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가들마다 민족의식의 정치적 표명으로서 민족주의의 발현과 전개는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개별 국가의 명칭민족 비율, 소수민족 정책, 언어 정책, 경제적 자립성 및 대외경제 정책, 지하자원을 비롯한 국부의 정도, 지경·지정학적 위치 등에 따라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모습과 속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 글은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의식과 민족의 창출, 그리고 민족주의가 정치적 동원의 수단이자 도구로서 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을 각 대통령들의 통치 시기별로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글은 원고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인용을 금합니다.

1) 민족과 민족주의 연구의 시각과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 참조, Anthony D. Smith, *Ethnic Origin of Nations* (Oxford and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88), pp.6-13; 시안 존스, 이준정·한건수 역, 『민족주의와 고고학: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만들기』 (서울: 사회평론, 2008), pp.100-126; 임지연,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2003), pp.21-38; 김태연, “현대 러시아에서의 루스키 민족주의: 그 발생, 특성 그리고 정치적 의미,” 『슬라브학보』 제24권 1호(2009), pp.149-52; 장세호, “이행기 러시아에서의 민족주의의 정치적 역할: 도구주의적 시각에서 그 이념적·실천적 기능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6권 1호, 2010, pp.68-71; 강봉구,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정체성 형성: 민족국가의 발명,”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p.401-05.

2) В. С. Малахов, *Национализм как политическая идеология* (Москва: КДУ, 2005), с.280-281; 장세호(2010), p.79.

II. 국가성, 민족의식 및 민족의 부재와 창출

키르기스인들은 9세기 중엽에서 10세기 초엽에 동투르크스탄, 알타이, 남시베리아, 몽골 등을 포괄하는 넓은 광역에 큰 국가를 이루었다.³⁾ 그러나 이 강성했던 키르기스 유목제국은 10세기 전반에 몇 개의 작은 국가들로 분열되고 말았다. 이후 약 1천년 이상 키르기스인들은 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한 경험이 없었다. 국가체제보다는 씨족과 부족 단위로 공동체 속에서 유목민의 삶을 영위해 왔던 것이다.

키르기스 국가성의 발전은 소비에트 시대에 이루어졌다. 소련이 연방체제를 형성하던 1920년대, 민족 자치 원칙과 ‘소수민족 우대(affirmative action)’⁴⁾ 분위기 속에서 키르기스 국가체제가 형성·발전되었으나⁵⁾ 여전히 키르기스 민족의식은 부재하였다. 이처럼 키르기스스탄은 소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으로서 1936년에 최초로 근대민족국가를 수립하였지만, 소련의 일원적 중앙집중적 권력체제 하에서 키르기스공화국이란 선언적·형식적 제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독립국가로서⁶⁾ 사실상의 주권 행사와 국가 형성, 민족의식 및 민족 형성과정은 소련의 공식적 붕괴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독립국가로서 국가 형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국가성은 말할 나위도 없고 민족의식은 희박하거나 거의 부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키르기스인들이 함께 공유해 온 역사적 기억은 무엇인가. 키르기스인들의 뿌리를 밝혀주고 키르기스인들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구성원임을 확인해 줄 역사적 사실은 없는 것일까. 역사적 사실이 없다면 설화와 전설이라도 무방하다. 그것마저 찾을 수 없다면, ‘발명’하기라도 해야 했다.⁷⁾ 그것은 국가·민족 형성을 시작한 모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마주친 과제였다.

키르기스스탄의 ‘조상님 찾기’는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더 행운이었다. 민족의식의 중심에 위치할 민족의 영웅이 키르기스 후손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키르기스인들이 재발견한 위대한 민족영웅의 이야기가 바로 ‘마나스 서사시’이다.⁸⁾ 서사의 주된 내용은 마나스가 불과 12세의 어린 나이에 외적의 침략과 억압으로부터 민족을 구하겠다고 서약한 후, 상이한 부족들을 규합하여 외적들과 싸우면서 키르기스인을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적들과 끊임없는 전투를 치루면서 자유를 획득하고 또 이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했던 키르기스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는 역경을 이겨내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민족의 위대함에 대해 모든 키르기스인들이 함께 공명하도록 만들고, 서로를 구분지우는 씨족과 부족, 지역의 경계를 넘어 키르

3) 러시아 사학자 바르톨트는 이 강성한 국가를 ‘키르기스 대제국(the Kyrgyz's Great Empire)’이라고 지칭했던바 있다. Tchoreev, Tyntchtykbek. (2002). "Historiography of Post-Soviet Kyrgyz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34, No.2 (May).

4) Terry Martin,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 Nations and Nationalism in the Soviet Union, 1923-1939*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5) 키르기스 국가체제는 다음과 같이 지위가 격상되었다. ① 카라-키르기스 자치주(the Kara-Kyrgyz Autonomous Oblast): 1924년 10월 14일; ② 키르기스 자치주(the Kyrgyz Autonomous Oblast): 1925년 5월 25일; ③ 키르기스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yrgyz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1926년 2월 1일; ④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yrgyz Soviet Socialist Republic): 1936년 12월 5일, 강봉구 2010b, 453.

6) 키르기스스탄은 소연방의 해체 시기이던 1991년 8월 31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7) Oliver Roy,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0), pp.161-65.

8) 서사시의 내용은 키르기스인들이 서사시에서 묘사된 전투들을 치루면서 오늘날의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해 온 대략 9세기 경부터 12세기 사이에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나스 서사시’는 15세기 경부터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1885년이 되어서야 기록 문학의 형태를 갖게 되었다. 텍사스공과대학에 소장된 ‘투르크 구비문학 아카이브’에는 서사시 전문 번역이 제공된다. *Manas, Vol.I-Vol.IV.*, Archive of Turkish Oral Narrative, Uysal-Walker, Texas Tech University. <http://aton.ttu.edu/turkishlist.asp>. 강봉구, 2010b, 456 재인용.

기스 민족은 하나라는 일체감을 공유하도록 고무한다.

아카예프 정부는 씨족, 부족의 구분을 넘어 키르기스 민족의 과거의 영광을 재현·찬미하고 이를 통해 키르기스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마나스를 중심으로 뭉쳐 용기와 인내, 투쟁정신을 무기로 외적을 쳐부순 키르기스인들의 이야기만큼 이 목적에 더 부합하는 서사는 있을 수 없었다.⁹⁾

아카예프 전 대통령은 마나스를 키르기스인의 이상형으로, 마나스 서사시를 일종의 국가이념으로, 키르기스인들이 자신을 교육하고 수양하며 단련하는 생활의 규범이자 원칙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는 마나스 서사를 바탕으로 직접 일곱 가지 기본원칙을 창안하여 키르기스인들이 이를 정신적인 교범으로 삼고 충실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원칙은, 민족적 단합, 관대하며 관용적인 휴머니즘, 민족들간의 우의와 협력, 자연과의 조화, 애국심, 근면과 교육, 키르기스 국가체제의 강화와 방어 등이다. 마나스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민족적 난관을 극복한 키르기스 선조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이 서사는 오늘날의 키르기스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교범의 역할을 한다. 아카예프 정부는 마나스 서사시를 일종의 키르기스판 ‘국난극복기’로서 민족형성과 국가성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상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마나스 서사시는 아카예프 시대 내내 키르기스 민족정체성의 원류이며, 민족의 역사적 유구함과 위대성, 민족의 단결을 뜻하며 또 그것을 강조하는 ‘국가 기호학(state semiotics)’의 역할을 하였다.

III. 민족주의 정치의 전개

키르기스스탄에서의 민족주의 정치(운동)를 전개한 주체는 크게 정부와 원내의 의회 정파들을 포함하는 정치 제도권 세력 그리고 비제도권의 사회·정치 세력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 정치의 주체들이 정치적 실천의 주요 쟁점들을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민족과 민족의식을 정치적 자산으로 동원하고 이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초대 대통령인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 시기, ‘튄립혁명’으로 아카예프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대통령 시기, 마지막으로 로자 오톤바예바 대통령과 현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 대통령 시기로 대별하여 기술될 것이다.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 시기는 독립 시기부터 2005년 튄립혁명까지, 약 15년에 걸친 시기이며 이 기간에 키르기스스탄의 국가·민족 형성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소련 말기로부터 독립 직후 몇 년 동안 키르기스스탄의 민족 엘리트들은 명칭민족의 정치 사회적 지위와 민족문화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국가·민족 형성의 초기 단계에 이러한 조치는 필수적으로 것으로 정당화하였다. 중앙아시아의 개별 공화국 내에서 이러한 명칭민족 우대와 주도권 공고화 움직임은 민족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했던 소련 말기부터 시작되었지만, 독립 후에는 비공식적이지만 노골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주의 정치의 먼저,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인들의 나라라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1993년 5월에 채택된 키르기스스탄 헌법 전문은 키르기스인들의 민족적 부흥을 첫째가

9) 마나스 서사시는 최근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UNESCO는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많은 키르기스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서사시 마나스는 “남녀노소 서사시 암송자들의 공동체 덕분에 키르기스인들의 역사적 기억을 표현하며 전승되고 있다”고 밝혔다. Joanna Lillis, “Kyrgyzstan’s Manas Epic Gains UN Recognition,” *EurasiaNet.org*, December 5, 2013.

10) Stephen Kinzer, “A Legendary Hero Guides a Reborn Kyrgyzstan,” *The New York Times*, Jan. 2, 2000, pp.1-3, 강봉구 2010b, pp.457-458 재인용.

는 목표로 삼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키르기스스탄 국가건설과 국민형성 과정에서 키르기스인들이 정치적으로 주도적 위치에 서서 지도력을 행사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며 국민을 이루는 모든 민족 성원들의 발전과 이익을 보장하며 보편적 인권의 존중과 소수민족의 권익 보호를 언급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은 ‘민족국가이념(the idea of a national state)’에 기초하고 이에 충실한 나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키르기스정부는 1993년의 헌법에서 기존 국명인 ‘키르기스스탄공화국(the Republic of Kyrgyzstan)’을 ‘키르기스공화국(the Kyrgyz Republic)’으로 변경하였다. 키르기스정부가 추구하는 ‘종족적 민족주의(ethno-nationalism)’는 새 국명에서 더 두드러지게 반영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키르기스스탄이 종족적으로 ‘키르기스인들의 국가’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도 “특정 핵심 민족(명칭민족: 필자)의 민족을 위한 정체”로서 ‘민족화하는 국가(the nationalizing state)’¹¹⁾임에 틀림이 없다.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종족 소속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칭민족인 키르기스인들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 신생 국가가 그 사회의 주류 민족인 명칭민족의 토대 위에 건설되고 이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 국가와 국가권력은 견고한 지지기반을 갖게 되는 셈이다. 그리하여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서처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명칭민족의 언어가 국어가 되고 명칭민족에 속한 인사들이 국가와 사회 모든 부문의 주도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의 민족주의 정치가 전개되는 기본적인 상수는 민족구성 비율이다. 명칭민족인 키르기스인이 52.4%, 러시아인 21.5%, 우즈베크인 12.9%로서 이 3대 민족이 주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소련 말기인 1989년 기준, <표1>참조). 키르기스스탄에서 명칭민족의 주도성에 대한 강조는 우선적으로 주요 소수민족인 러시아인과 우즈베크인에 대해 국가건설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전통적인 씨족(부족)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연고주의에¹²⁾ 대한 애착 대신에 새로운 동일시와 헌신의 대상으로서 키르기스 민족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1> 키르기스스탄의 종족별 구성 비율(% 1926-1999)

민족/년도	1926	1939	1959	1970	1979	1989	1996	1999
키르기스	66.8	51.7	40.5	42.6	47.9	52.4	60.3	64.9
러시아	11.7	20.8	30.2	29.2	25.9	21.5	15.7	12.5
우즈베크	10.6	10.4	10.6	11.4	12.1	12.9	14.2	13.8
우크라이나	6.4	9.4	6.6	4.1	3.1	2.5	1.6	1.0
독일	0.4	0.8	1.9	3.1	2.8	2.4	0.5	
타타르	0.5	1.4	2.7	2.0	2.0	1.6	1.2	

11) Annette Bohr, “The Central Asian States As Nationalizing Regimes,” in Bhavna Dave (ed.), *Politics of Modern Central Asia: Critical Issues in Modern Politics*, Vol.2 (London: Routledge, 2010), p.15.

12) 키르기스스탄은 북부와 서부에 분포된 7개 씨족으로 구성된 ‘솔카나트(Sol kanat: [원쪽 날개]라는 의미)’를 지지기반으로 한 북부 출신들이 소련 시기 대부분 권력을 장악해 왔다. 1980년대 중반에 남부 씨족 출신인 마살리에프(Absamat Masaliev)가 몇 년간 최고 권좌에 있었던 시기는 예외적인 기간이다. 1991년의 첫 대통령 선거에서 아카예프 후보는 북부 씨족의 지원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특히 자신의 ‘사리바기쉬(the Sarybagysh)’ 씨족과 아내 마이람 아카예바(Mairam Akayeva)의 씨족이 아카예프 대통령의 핵심 정치적 지지기반이었다. 양대 씨족과 연합한 주요 씨족들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대가로 대통령은 유력 씨족의 대표자들에게 권력과 부를 배분하는 ‘지지-후견’의 호혜적 교환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었던 것이다. Kathleen Collins, “The Logic of Clan Politics: Evidence from the Central Asian Trajectories,” *World Politics* 56-2 (January 2004), p.248.

기타	3.6	5.5	7.5	7.6	6.2	6.7	6.5	
----	-----	-----	-----	-----	-----	-----	-----	--

출처: Jacob M. Landau and Barbara Kellner-Heinkele, *Politics of Language in the Ex-Soviet Muslim Stat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p.26 그리고 CIA, *The World Factbook: Kyrgyzstan 2008*을 결합하여 작성.

아카예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인들의 정치적 위상과 문화적 입지를 지배적 우위에 두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강조점을 두었지만, 주요 소수민족들인 러시아인들과 남부 우즈베크인들의 입장도 배려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명칭민족 비율(즉, 높은 소수민족 비율),¹³⁾ 실용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전체 인구 중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키르기스인의 비율은 정부가 공세적인 민족주의 정치를 펼칠 경우, 소수민족들로부터 저항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덜 배타적이며 좀 더 수용적인 민족주의 정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키르기스스탄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직, 그리고 공장과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리직의 상당 부분을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기술을 가진 러시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러시아인들 가운데는 키르기스스탄의 독립 이후 달라진 자신들이 위상에 불만을 갖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러시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키르기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아카예프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의 국외 이주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정책 결정에서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카예프 집권 말기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2001년 시행), 키르기스 남부 지역의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키르기스스탄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미래의 희망 결여, 실업, 일상적인 민족주의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정서적으로는 사회의 상층부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게 된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는 측면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오쉬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수는 13,600명인데, 오쉬시 거주자는 11,400명으로서 대부분의 러시아인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부터 러시아인들의 정주가 이루어졌던 키르기스스탄 북부와 달리 남부 지역으로 러시아인들이 본격 이주한 것은 2차대전 이후부터였다. 이주 문제 전문가들은 키르기스스탄의 러시아인들을 두 부류로 대별하고 있다. ‘떠나는 사람들’ 혹은 ‘잠재적 이주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머잖아 이 나라를 떠날 사람들이다. 두 번째 그룹은 ‘남을 사람들’이다. 키르기스스탄 거주 전체 러시아어사용 인구 가운데 전자와 후자의 비율은 60% 대 22%였다.¹⁴⁾

그런데 키르기스 측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점은, 러시아인 정주민들 가운데 기술을 가진 숙련 노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키르기스스탄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 친구들이 있으며 다민족이 혼합된 기업에서 일하고 키르기스어를 다소나마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산업 경제 활동에 꼭 필요한 러시아인들의 이주율이 낮은 것은 키르기스 정부와 주민들의 제한적이거나 개방적 수용적 민족주의 덕분일 것이다. 러시아인 정주민들의 이주를 최소화하려는 아카예프 정부의 민족정책 기조 속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남부지방에서도 러시아어와 러시아인에 대한 차별 혹은 억압정책은 관찰되지 않았다. 소쉬에서 러시아어 사용학교는 공식적으로 단 하나도 폐교되지 않았으며, 러시아어로 간행되는 세 종류의

13) 소련 말기(1989년 센서스 기준)에 키르기스스탄의 전체 인구에서 키르기스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2.4%로서 명칭민족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명칭민족이 39.7%를 차지한 카자흐스탄보다는 높았지만, 우즈베키스탄(71.4%)이나 투르크메니스탄(72%), 타지키스탄(62.3%) 등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었다. Graham Smith, ed., *The Nationalities Question in the Post-Soviet State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6), p.501, Table 2. Nationality composition of the union republics/post-soviet states, 1959-1989.

14) “Lack of Hope, Unemployment, Nationalism Force Russians Out of Kyrgyz South,” BBC Monitoring Central Asia, December 31, 2001.

신문이 계속 발간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발간된 다른 출판물들도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고 러시아의 TV 채널이 제한 없이 방영되고 있을 정도이다. 관공서 차원에서도 러시아 기업인들의 활동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쉬에는 ‘야로슬라블 교역 센터’가 개원되기도 하였다.¹⁵⁾

그러나 러시아인의 국외 이주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그들의 직업 상황과 그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낮은 직위에서만 볼 수 있는 러시아인의 공무원직 진출을 중간 간부와 상위직으로까지 확대해 나가지 않고는 러시아 정주민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출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한편, 아카예프 대통령은 북부 출신으로서 남부에서는 정치적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오쉬와 잘랄-아바드 등 남부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우즈벡 공동체들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이들의 입장 역시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정부 수준에서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소수민족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배타적이며 덜 공격적인 민족주의 정치로 귀결되었다.

아카예프 대통령 시기의 민족정치는 전체적으로 보아 키르기스 민족주의 분파들 뿐만 아니라 우즈베크인을 비롯한 소수 종족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거북할 수밖에 없는, 폭넓은 연합을 형성하고 유지하고자 하였다. 종족간 평화의 보장자로서 역할을 하는 대신에 아카예프 대통령은 많은 소수 종족들로부터 지지와 충성을 기대하였으며 이들은 각종 선거에서 아카예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 역할을 해 주었다.¹⁶⁾ 약 15년에 걸친 아카예프 대통령의 통치 기간 중에 국가형성기의 보편적 특성으로서 키르기스 민족주의가 현저히 대두되긴 하였으나, 종족간 평화가 유지된 반면, 바키에프 대통령의 5년을 통치하고 축출된 직후 정국의 불안정과 혼란 상황 속에서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간의 유혈 충돌이 발생한 것은 시사하는 바 있다고 하겠다.

‘튤립혁명’의 여파로 대통령이 된 쿠르만벡 바키에프의¹⁷⁾ 민족주의 정치는 특히 남부 우즈베크인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서 이전 정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바키에프 대통령은 남부 잘랄-아바드 출신이었기에 북부 출신인 전임 아카예프 대통령에 비해 남부 지역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다. 바키에프 대통령이 남부 우즈벡 공동체의 지지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도리어 남부지역 키르기스인들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혹은 이들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우즈벡 공동체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바키에프 시대에 남부 우즈벡 공동체가 느꼈던 정치적 소외감과 박탈감은 바키에프 축출 이후의 정국 불안정 상황에서 일어난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 간의 유혈 충돌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바키에프 대통령 집권 직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종족적 민족주의의 일시적 분출기에 일부 강경 민족주의자들이 러시아어에 공식어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것은 공식어로서 러시아어의 통용됨으로써 키르기스어 사용 공간의 확대와 언어 발전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바키에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어는 국어, 러시아어는 공식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러시아어의 공식어 지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15) “Lack of Hope, Unemployment, Nationalism Force Russians Out of Kyrgyz South.”

16) Matteo Fumagalli, “Framing Ethnic Minority Mobilization in Central Asia: The Cases of Uzbeks in Kyrgyzstan and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Vol. 59, No. 4 (2007), pp.572-74.

17) 튤립혁명으로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이 하야한 후, 쿠르만벡 바키에프 후보는 남부와 북부간의 과도한 경쟁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분열을 회피하도록 요청한 여론을 반영하여 북부를 대표하는 펠릭스 쿨로프(F. Kulov) 후보와 남북 합의를 통해 88.6%의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며, 국제적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주민들과의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더 증대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키르기스스탄 거주 ‘러시아인 동포 연합(the Russian Union of Compatriots)’이 러시아어의 공식어 지위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에게 대응 조치를 취해 달라고 호소한 데 따른 것이었다.¹⁸⁾ 바키예프 대통령의 러시아어에 대한 정책에서 드러나는 바대로 바키예프 시기의 민족주의 정치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태도는 아카예프 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수용적 개방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로자 오톤바예바는 바키예프 대통령이 축출된 정변 이후 새 대통령 선출까지의 과도정부를 관리할 수반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2010년 6월 유혈 종족 충돌 사태까지 발생하였던 것이다. 오톤바예바 과도정부 대통령의 책무는 양측간 충돌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사후 수습을 통해 질서 회복과 정치·사회적 안정, 최소한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톤바예바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애송이 민족주의는 정치인들이 국가에 대해 사용하는 무기의 하나”라고 비판하면서 주민들에게 ‘키르기스스탄의 질병’으로 불리는 민족주의에 대항해 싸울 것을, 그리고 정파들에게는 ‘더러운 민족주의’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던 것이다.¹⁹⁾ 또 당시에 총리였던 아탐바예프 역시 “키르기스스탄의 주된 적은 민족주의”이며 정파들은 종족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위험한 게임’을 시작하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²⁰⁾ 키르기스스탄 지도부의 공통된 인식은 키르기스스탄의 종족간 갈등과 충돌의 뒤에는 언제나 과도한 민족주의 내지는 종족적 민족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유혈 종족 충돌의 상흔을 치유하고 이후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민족주의를 자제하고 정파와 정치인들은 이를 부추기면서 이용하지 말라는 오톤바예바의 호소와 경고는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정당명부식 투표제로 의회선거 실시 (2010.10.10.)를 앞 둔 시기에 지역적으로 남부에 그리고 남부 키르기스 주민들의 반우즈벡 민족주의 정서에 지지기반을 둔 일부 정파는 이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하였다. 총 25개의 정당이 참가하여²¹⁾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양상이 벌어졌지만,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5% 장벽 즉, 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해야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다수 정당들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5% 진입 장벽을 넘어서 5개 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120석의 의회 의석을 배분받았다.²²⁾

그런데 강경 민족주의자인 캄치벡 타쉬에프(Kamchibek Tashiev)가²³⁾ 지도자인 ‘아타-주르트당’이 득표율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아타-주르트당’은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인

18) “Kyrgyz Leader Backs Preserving Russian Language’s Official Status,” BBC Monitoring Central Asia, November 17, 2005.

19) “Otunbayeva Urges Fellow Citizens to Fight against Nationalism,” Interfax: Russia & CIS Presidential Bulletin, June 16, 2011.

20) “Kyrgyz Premier Condemns Nationalism,” BBC Monitoring Central Asia, March 29, 2011.

21) “Twenty-Five Parties Registered for Kyrgyz Vote,” RFERL, August 30, 2010.

22) ‘아타-주르트(Ata-Jurt: 조국)당’이 8.47%(의석수 28), 사회민주당이 7.83%(의석수 26), ‘아르-나미스(Ar-Namys: 존엄)당’이 7.57%(의석수 25), ‘레스푸블리카(Respublika)당’이 6.93%(의석수 23), ‘아타-메켄(Ata-Meken: 조국)사회당’이 5.49%(의석수 18)를 득표하고 그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배정받았다. “Kyrgyzstan’s Central Election Commission announces official election results,” 24.kg news agency. November 1, 2010. <http://eng.24.kg/politic/2010/11/01/14575.html> (검색일: 2010.11.15.).

23) 캄치벡 타쉬에프는 바키예프 전 대통령 정부에서 2년간 비상사태부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아크마트벡 켈디베크(Akmatbek Keldibekov)는 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당 고위 지도자들 대부분이 바키예프 정부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한 남부 키르기스인들의 우즈베크인에 대한 반발 심리, 반 우즈베크 정서에 기대어 배타적·공격적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였으며, 공세적인 민족주의 정강으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선거 캠페인 기간 중 키르기스 민족주의 정서를 득표 타겟으로 삼은 이들의 시도가 어느 정도 키르기스인들의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어떤 여론조사도 ‘아타-주르트당’의 전국 득표율 1위를 예상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주요 정파들과 여론은 선거전에서 ‘아타-주르트당’이 득표를 위해 과도하게 민족주의적으로 편향되고 또 축출된 바키예프 전 대통령과 연계되어 있다는²⁴⁾ 이유로 공격하였지만, 노골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수사를 동원하는 ‘아타-주르트당’의 1위를 막을 수는 없었다. 남부 지역 키르기스인들의 ‘아타-주르트당’에 대한 높은 지지는 종족간의 유혈 충돌 이후 남부 키르기스인의 우즈베크인에 대한 배타성과 양측 간의 경계 짓기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하튼 ‘아타-주르트당’은 민족주의적 강령과 공세적인 정치적 수사를 통해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민족주의 정치의 내용에서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 대통령 시대는 동일한 사회민주당 출신의 오톤바예바 시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아탐바예프 정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의 관계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이익을 분명하게 주장하는 등 대외정치적 측면에서는 키르기스 민족주의의 수사를 자주 구사하고 있지만, 국내의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적 차별과 억압을 시도하거나 그것을 키르기스인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않고 있다.

‘아타-주르트당’은 2010년 가을의 총선 후 ‘레스푸블리카당’, ‘사회민주당’, ‘아타-주르트당’의 삼당 연합 연립정부에 참여하였으나,²⁵⁾ 약 1년이 지난 2011년 말 경 연립정부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4당으로 형성된 새로운 연립정부에 초대받지 못함으로써 아타-주르트당은 사실상 새 정부에서 배제된 결과가 되었다.²⁶⁾ 여당에서 야당으로 지위가 바뀐 것이다. 이후 ‘아타-주르트당’은 야당으로서 자신의 존재가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불만이 있을 때마다 시위와 도로 점거 등 자신이 가진 모든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정부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2년 10월에 일어난 의회 점거 시도이다. 타쉬에프는 의회 앞마당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쿵토르금광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시위 군중에게 ‘권력을 장악하라’고 공공연히 쿠데타를 선동하였다.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쿠데타 시도는 20년 형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그는 약 50명의 시위대의 앞장을 서서 의회 주변구획 담장을 넘어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한 정치가는 이 광경을 익살맞게 ‘담장 혁명(Fence Revolution)’²⁷⁾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점거 시도 세력들에 대해 의회 경비병력들이 최루탄을 쏘고 위협 총기 발사를 하여 세 사람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가는 것으로 소극(笑劇)처럼 끝났지만, 이 실패한 ‘담장 혁명’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권력 중심이 다수, 대통령의 독재가 아니다. 의회의 주요 정파들이 연립정부를 꾸리고

24) 그러나 바키예프 전 대통령은 ‘아타-주르트당’과 자신이 연계되어 있거나 이 당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Interview: Former Kyrgyz President Denies Backing a Party," *RFERL*, October 13, 2010.

25) 이 연정은 오톤바예바 대통령의 연정구성 첫 제안이 실패한 후 ‘레스푸블리카당’의 지도자 오무르베크 바바노프(Omurbek Babanov)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하여 성공한 것이다(2010.12.17). 연정구성 정당들은 총 의회 의석수 120석 가운데 77석을 차지하여 안정 다수를 확보하였다. David Trilling, "Take Two: Kyrgyzstan Finally Has New Government," *EurasiaNet.org*, December 17, 2010.

26) "Kyrgyzstan Swears In New Government, With Old Faces," *RFERL*, December 28, 2011.

27) Asel Doolotkeldieva, "Kyrgyz Nationalist Leader Routed," Institute for War & Peace Reporting, <http://iwpr.net>, p.2.

있으므로 의회도 권력 행사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권력을 독점한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여, 한쪽으로만 몰려 폭발을 일으키는 구도가 아닌 것이다.²⁸⁾ 둘째, 어려운 사회·경제 상황에 불만이 있지만, 소통 부재의 독재 권력이 그것을 억압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불만과 불평이 ‘대중적 분노’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을 하고 있다. 셋째, 일반 시민은 물론 시위에 참가한 시위대도 시위를 불만의 표출로 여길 뿐, 대중 시위를 기화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이 역시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축출 및 정부 전복 사례와 다른 차이점이다.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구성된 대통령, 의회 및 정부에 대한 불만은 선거를 통하거나 연립정부의 재구성을 통해 표출되고 소통될 통로를 갖게 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반정부 시위와 권력기관 점거를 통한 정부 전복 시도는 대중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상기한 이유들로 인해서 현 정부와 대통령이 키르기스인과 키르기스스탄의 국가이익을 도외시하는 비애국적인 정권이라는 ‘아타-주르트당’과 그 지도자들의 민족주의적 수사가 더 이상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하고 더 나아가 민족적 감정 분출을 자극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아타-주르트당’의 약화는 배타적·공세적 민족주의 세력이 자신의 권력 창출을 위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대중 동원의 수단으로 삼는 시도들이 좌절되고 있으며 이 세력의 힘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탐바예프 시기에 드러난 민족주의의 또 다른 모습은 자원민족주의이다. 자원민족주의 정서가 표출된 전형적인 사례는 키르기스스탄 최대인 쿰토르금광을²⁹⁾ 둘러싼 국유화 논란이다. 이 자원민족주의의 분출을 그 최대 강령인 국유화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지분율의 상승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쿰토르금광 주변의 주민들은 광산 운영회사인 <센테라골드>사가 채굴 과정에서 적절한 환경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염을 초래하고 있으며,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복지 시설 건립에 기여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내세우면서,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금광을 원주인인 키르기스인의 것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정부 세력, 특히 ‘아타-주르트당’은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키르기스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키르기스인들의 ‘민족적 공분’을 정부에 대한 공격 그리고 이를 위해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지난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쿰토르금광에 반대하는 시위를 간헐적으로 벌여오다 2012년 봄부터 ‘아타-주르트당’과 타쉬에프를 비롯한 당 지도자들이 쿰토르금광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이를 거부하는 정부의 ‘비애국적’ 행위를 성토했기 시작하면서 시위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거의 끊임없이 쿰토르금광 부근에서 광산의 국유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거나 도로를 점거하였다. 북부의 제티-오구즈(Jety-Oguz) 지구에서 시위대가 발전소를 장악하고 쿰토르금광으로 가는 송전선을 차단한 가운데,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자 비상사태가 선포되기까지 하였다(2013.05.31).³⁰⁾

28) Asel Doolotkeldieva, “Kyrgyz Nationalist Leader Routed,” Institute for War & Peace Reporting, p.3, <http://iwpr.net>

29) 쿰토르금광은 문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이식쿨 호수가 제1의 보석이라면, 쿰토르는 제2의 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센테라골드>사가 쿰토르금광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 쿰토르금광은 국가예산의 7%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금광의 산출량은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노무자들의 파업기간 동안에 노천광에 얼음이 형성되어 작업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그 결과 키르기스스탄의 전체 GDP는 -0.9%로 내려앉았던 적도 있다. David Trilling, “Kyrgyzstan: At Kumtor Mine, ‘No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EurasiaNet*, November 14, 2013.

30) 대통령 홍보실은 제티-오구즈 비상사태는 해당 지역의 시위 사태가 안정화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발표하였다(2013.06.03). 시위대는 금광 운영자인 캐나다 기업 <센테라골드(Centerra Gold)회사>가 친환경적인 시설물을 건설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경찰과의 충돌로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쿰토르금광으로 인한 환경문제 개선과 복지시설 건립, 국유화 등의 요구조건을 내건 시위가 지속되고 야당의 공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2013년 2월, 키르기스 의회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에 합의된 쿰토르금광 운영권 협정을 파기하는 투표를 하였다. 당시 협정 내용에 따르면, 키르기스 정부 측의 지분율은 33%였는데, 의회는 이를 67%로 배증할 것을 요구하였다.³¹⁾ 이후 새로운 계약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1년 이상 진행되어 오다 우여곡절 끝에 의회가 정부의 수정안에 동의함으로써 키르기스 정부와 센테라골드사 측은 각각 50% 지분율을 갖는데 합의하였다.³²⁾

만약 키르기스 정부가 아타-주르트당과 주민들의 여론을 방조하여 국유화를 강행하였다면, 그것이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재앙의 수준이 될 수도 있었다. 우선, 키르기스스탄은 자기 스스로 쿰토르금광 프로젝트를 운영할 기술적 노우-하우를 갖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센테라골드사 측 한 인사의 말대로 키르기스정부는 쿰토르금광의 주식지분을 되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광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확보하려는 키르기스정부의 어떤 조치도 국유화가 아니라 사실상 몰수와 마찬가지이다.³³⁾ 국유화를 빙자한 몰수 조치는 키르기스스탄이 해외 투자자들의 재산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또 보장할 의사도 없음을 공공연히 시위하는 셈이 된다. 이로써 키르기스스탄은 탈소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한 개방경제 국가로서의 이미지와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이다. 키르기스정부는 정부의 지분율이 너무 낮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하면서도 국유화나 과도한 지분을 확대 주장을 자제함으로써 여론의 자원민족주의적 요구를 적정선에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해외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국가 신뢰를 유지하는 두 가지 과제의 균형을 어렵사리 이루어낼 수 있었다.

IV. 키르기스스탄 민족주의 정치의 특성

첫째, 종족간 증오와 갈등을 부추겨서 공격적 민족주의 정서 분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남부 오쉬 지방에서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간의 유혈 종족 충돌이 1990년과 2010년

폭력 행위로 수감되었다. “State Of Emergency Lifted In Northern Kyrgyz District,” *RFERL*, June 3, 2013.

- 31) 양자간 지분율을 둘러싼 분쟁사를 간략히 개관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2003년에 서명된 쿰토르금광의 원 계약안에 따라, 키르기스 국영 키르기스알틴(Kyrgyzaltyn)이 16%의 지분을 가졌으며, 6년 후인 2009년 두 번째 계약에서 키르기스 측의 지분율은 약 33%로 증가되었던 바 있다. 키르기스정부와 <센테라골드>사는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금까지 키르기스 측이 소유했던 쿰토르금광 1/3지분 대신에 50%의 지분안을 의회에 제안하였으나 의회는 최소한 67%의 지분을 요구하며 타협안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센테라골드사 측은 5년 기한의 두 번째 계약인 2009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미 금광에 10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투자하였으며 주주들은 결코 그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던 바 있다. David Trilling, “Kyrgyzstan: At Kumtor Mine, No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EurasiaNet*, November 14, 2013.
- 32) 키르기스정부와 센테라골드사는 정부 측이 마련한 새 협상안에서 제시되었던 각각 50% 지분율은 유지하는 가운데, 2026년 이후에 의회의 요구대로 키르기스 측의 67% 지분 확장에 합의하는 절묘한 상생의 타협안을 도출하였으며 의회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쿰토르금광의 지분을 둘러싼 약 1년간의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소유권 구조 설정을 위한 각서를 승인하였다. 의회 조정위원회가 준비한 문서는 키르기스 정부와 <센테라골드>가 쿰토르금광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합작회사의 지분을 2026년까지 각자 50%씩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새 합작회사는 키르기스스탄에 등록될 예정이며, 2026년 이후에는 키르기스정부가 67%까지 자신의 지분을 증가시킬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직 키르기스 정부와 센테라골드사 간에는 거래의 상세 요목들을 협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새 지분 확정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만큼 새로운 세 번째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이 합의로서 양측은 모두 대과국을 모면하게 되었다. “Kyrgyz Parliament OKs Road Map For Kumtor Gold Mine,” *RFERL*, February 6, 2014.
- 33) David Trilling, “Kyrgyzstan: At Kumtor Mine, No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EurasiaNet*, November 14, 2013.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2010년의 경우에는 쿠르만벡 바키에프 전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로 축출된 직후 오쉬와 잘랄-아바드 지방에서 종족간 충돌이 일어났다. 남부 잘랄-아바드 출신으로서 남부 지역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추종 세력들이 이러한 충돌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초래된 정치 혼란을 이용하여 다시 권력을 획득해 보려는 시도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유혈 충돌 이후 헌법개정을 통해 의원내각제 정부 제도를 채택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러진 첫 의회 선거(2010년 10월)에서 급진 민족주의 정당이 아타-주르트당이 남부에서 많은 득표를 하여 1위를 차지함으로써 종족적 민족주의에 호소한 정치적 동원이 초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부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정파들의 행위를 ‘더러운 민족주의’로 비난하면서 “민족주의에 대항하라”고 호소한 오투바예바 정권 이후, 특히 최근년에 들어와 아타-주르트당의 지도자 타쉬에프의 의회 점거 시도 사건의 실패 이후 남부의 종족적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데 익숙한 아타-주르트당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 추세만을 보고 남부 지역의 종족적 민족주의가 퇴조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사회 현상의 여타 부분들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관찰되는지 주의해서 보아야 할 시점이다.

둘째,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린 민족주의, 수용적 민족주의, 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키르기스스탄은 국통의 대부분이 천산산맥의 산군으로 이루어진 산악 국가로서 농토가 부족하며, 에너지자원도 풍부한 광물자원도 보유하지 못한 자원 빈국이다. 해외로부터의 투자자본 유입과 기술 도입 등이 없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탈소 국가들 가운데 WTO에 가장 먼저 가입하는 등 개방경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인접 국가들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고 이들의 송금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러시아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약 60만에 달하여 러시아 정부의 입장 그리고 국내 러시아 정착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앞서 설명한 바대로 키르기스어의 주도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공용어로서 러시아어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참고문헌>

- 강봉구, “‘틀립혁명’ 이후 키르기스스탄 재민주화의 한계,” 『대한정치학회』 제17집 1호(2009).
- 강봉구,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제도 디자인,” 『국제정치논총』 제51집 1호(2011).
- 강봉구,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정체성 형성: 민족국가의 발명,”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a).
- 강봉구, “키르기스스탄 국가정체성 형성의 특징과 대외정책 정향의 변화,”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민족 정체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b).
- 강봉구,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종족간 충돌에 관한 연구: 2010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제9권 제3호(2011).
- 강휘원 (2008). “키르기스스탄의 언어정책: 민족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행정논총』 제46권, 2호.
- 김태연, “현대 러시아에서의 루스끼 민족주의: 그 발생, 특성 그리고 정치적 의미,” 『슬라브학보』 제24권 1호(2009).
- 시안 존스, 이준정·한건수 역, 『민족주의와 고고학: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만들기』 (서울: 사회평론, 2008).
- 양승태 (2006). “국가정체성 문제와 정체성 연구: 무엇을, 어떻게.”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5호(겨울).
- 장세호, “이행기 러시아에서의 민족주의의 정치적 역할: 도구주의적 시각에서 그 이념적·실천적 기능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6권 1호, 2010.
- “Kyrgyz Leader Backs Preserving Russian Language’s Official Status,” BBC Monitoring Central Asia, November 17, 2005.
- “Kyrgyz Premier Condemns Nationalism,” *BBC Monitoring Central Asia*, March 29, 2011.
- “Kyrgyzstan Swears In New Government, With Old Faces,” *RFERL*, December 28, 2011.
- “Lack of Hope, Unemployment, Nationalism Force Russians Out of Kyrgyz South,” BBC Monitoring Central Asia, December 31, 2001.
- “Otunbayeva Urges Fellow Citizens to Fight against Nationalism,” *Interfax: Russia & CIS Presidential Bulletin*, June 16, 2011.
- “State Of Emergency Lifted In Northern Kyrgyz District,” *RFERL*, June 3, 2013.
- Abazov, Rafis. (2007). *Culture and Customs of the Central Asian Republics* London: Greenwood Press.
- Agadjanian, Alexander. (2001). "Revising Pandora's Gifts: Religious and National Identity in the Post-Soviet Societal Fabric." *Europe-Asia Studies*. Vol.53, No. 3.
- Anderson, John. (1999). *Kyrgyzstan: Central Asia's Island of Democracy?* Amsterdam: Harwood Academic Publishers.
- Britta, Korth. (2005). *Language Attitude Towards Kyrgyz and Russian*. Bern: Peter Lang.
- CIA. (2008). *The World Factbook: Kyrgyzstan*.
- Collins, Kathleen. (2003). "The Political Role of Clans in Central Asia." *Comparative Politics*. Vol.35, No. 2(January).
- Collins, Kathleen. (2006). *Clan Politics and Regime Transition in Central Asi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olotkeldieva, Asel, "Kyrgyz Nationalist Leader Routed," Institute for War & Peace Reporting, p.2, <http://iwpr.net>
- Erica, Marat. (2006). *The Tulip Revolution: Kyrgyzstan One Year After: March 15, 2005-March 24, 2006*. Washington, DC: Jamestown Foundation.
- Everett-Heath, Tom. ed. (2003). *Central Asia: Aspects of Transition*. London: Routledge.
- Fletcher, Joseph F. and Boris Sergeyev. (2002). "Islam and Intolerance in Central Asia: the Case of Kyrgyzstan." *Europe-Asia Studies*. Vol.54, No.2(March).
- Fragner, Bert G., "'Soviet Nationalism': An Ideological Legacy to the Independent Republics of Central Asia," in Willem V. Schendel and Erik J. Zürcher (eds.), *Identity Politics in Central Asia and the Muslim World: Nationalism, Ethnicity and Labour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I. B. Tauris Publishers).
- Fumagalli, Matteo "Framing Ethnic Minority Mobilization in Central Asia: The Cases of Uzbeks in Kyrgyzstan and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Vol. 59, No. 4 (2007).
- Harmon, Daniel E. (2005). *Kyrgyzstan*. Philadelphia: Mason Crest.
- Haugen, Arne. 2003.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Republics in Soviet Central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hazanov, Anatoly M. (1995). *After the USSR. Ethnicity, Nationalism, and Politics in the CI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inzer, Stephen. (2000). "A Legendary Hero Guides a Reborn Kyrgyzstan." *The New York Times*. Jan. 2.
- Korth, Britta. (2005). *Language Attitudes towards Kyrgyz and Russian*. Bern: Peter Lang.
- Kuchumkulova, Elmira. (2007). "Kyrgyz Nomadic Customs and the Impact of Re-Islamization after Independ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Landau, Jacob M. and Barbara Kellner-Heinkele. (2001). *Politics of Language in the Ex-Soviet Muslim Stat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awrence, Krader. (1997). *Peoples of Central Asia*. Surrey, England: Curzon Press.
- Lowe, Robert. (2003). "Nation Building and Identity in the Kyrgyz Republic." Tom Everett-Heath, ed. *Central Asia: Aspects of Transition*. London: Routledge.
- Roy, Oliver. (2000).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Sahadeo, Jeff and Russell Zanca, eds. (2007). *Everyday Life in Central Asia: Past and Present*.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mith, Anthony D. *Ethnic Origin of Nations* (Oxford and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88).
- Smith, Graham, ed., *The Nationalities Question in the Post-Soviet State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6), p.501, Table 2. Nationality composition of the union republics/post-soviet states, 1959-1989.
- Smith, Graham, Vivien Law, Andrew Wilson, Annette Bohr and Edward Allworth. (1998). *Nation-building in the Post-Soviet Borderlands: The Politics of National Ident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ny, Ronald Grigor. (1999-2000). "Provisional Stabilities: The Politics of Identities in Post-Soviet Eur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24, No.3(Winter).
- Tchoroev, Tyntchtykbek. (2002). "Historiography of Post-Soviet Kyrgyz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Vol.34, No.2 (May).
- Tishkov, Valery. (1995). "'Don't Kill Me, I'm a Kyrgyz!':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Violence in the Osh Ethnic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32, No.2(May).
- Tishkov, Valery. (1997). *Ethnicity, Nationalism and Conflict in and after the Soviet Union: The Mind Aflame*. London: UNRISD/Sage Publications.
- Barthold, W. W. (1963). *Киргизи: Исторический очерк*, Том.2. Москва: Сочинения.
- Малахов, В. С. Национализм как политическая идеология (Москва: КДУ, 2005),
- Плоский, В. М. (ред.) (1984). *История Киргизской ССР: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Том.1. Фрунзе.

타지키스탄 민족주의 전개과정: 민족적 지역집단과 종교적 갈등 가능성

김정훈(배재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 이후 타지키스탄 내에는 소비에트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지정학적 요소와 타지크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행정적 제도에 있어서도 소비에트 이전의 오래된 전통적 요소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행정 구분에 있어 역사적 근거와 지형, 지세를 비롯한 지정학적 요인들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가 고향으로 귀환했으며, 전통적인 지역 시장이 형성되었다. 제라브산 분지는 새롭게 사마르칸트 시장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스파라와 카니바담 그리고 고르노-바다흐산 자치주는 페르간 시장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 호젠트는 타쉬켄트 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방향성을 복원해나갔으며, 역사적으로는 사마르칸트 시장권에 있었던 기싸르와 바흐쉬스카야 분지는 수르한다리인 시장에 포함되었다. 역사적 기원을 보유하고 있는 गरм 지역(카라제긴)과 쿨랍 지역에는 1년간 운영되는 상설시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일반적인 산악 민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지크인들의 민족적 실제성은 '민족적 지역 집단(ethnic-regional group)'으로의 분리 속에서 나타났다. 이들의 민족적 지역집단으로의 세분화는 도달하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산악지대(계절적 상황도 고려된)등과 같은 객관적인 지리적 요소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정치경제적 요소에 의해 발생했다. 이러한 분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구조는 매우 견고한 형태를 유지하며, 적어도 19세기까지 이 현상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지난 2세기에 걸친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국가 형성 동안에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역사적 사건은 타지키스탄 내의 민족적 지역집단 구성과정에 있어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영향을 주었다: 부하라 칸국, 코칸드 칸국 그리고 제정러시아의 투르키스탄총독부 등.

이와 같이 형성된 현재의 타지키스탄 내의 확고한 민족적 지역집단은 다음과 같다.

- 1) 카라제긴 인(Каратегинцы; गरм 인гармцы이라 불리기도 함), 공화국 관할지역의 गरм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1940년부터 1960년 사이 농촌의 개간지 확보를 목적 하에 바흐쉬스카야 분지를 중심으로 강제 유입되었다. 이들의 수는 타지키스탄 전체 인구의 약 25%에 해당한다.
- 2) 쿨랍 인(Кулябцы), 하틀론 주의 동부와 중심지역에 거주,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 3) 레닌아바드 인(Ленинабадцы; 호젠트 인ходжентцы 또는 후잔드 인худжанди이라 불리기도 함), 2004년 이전에는 레닌아바드 주로 불리었으나, 현재는 소그드 주로 불리는 타지키스탄 북부지역에 거주, 이 지역은 우라튜빈 인(уратюбинцы), 카니바담(анибадамцы) 인 등과 같이 좁

더 세분화된 민족적 지역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25%에 해당.

4) 파미르 인(Памирцы; 바다흐산 인бадахшанцы이라 불리기도 함), 고르노-바다흐산 자치주(Горно-Бадахшан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에 주로 거주, 주로 이슬람의 수니파를 신봉하고 있는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에는 시아파가 확산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10% 차지.

5) 기싸르 인(Гиссарцы), 서쪽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파흐타바드(Пахтабад)로부터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화이자바드(Файзабад)에 이르는 기싸르 분지에 거주, 타지키스탄 내의 기싸르 인은 전체인구의 10%.¹⁾

<표 1> 2011년 타지키스탄 행정구역 현황

주	주도	면적	인구
소그드	호젠트	25,400m ²	213만 2,100명
공화국 관할지역	두산베	28,600m ²	160만 6,900명
하트론	쿠르곤테파	24,800m ²	257만 9,300명
고르노-바다흐산자치주	호르흐	64,200m ²	21만 8,000명

출처: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ajikistan, 성동기, “타지키스탄의 국가건설 실패에 관한 다면적 분석: 내전과 《포린 폴리시》의 실패 국가지수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2012, 한울), p. 282. 재인용.

1991년 9월 타지키스탄이 독립을 획득하기 이전까지는 레닌아바드 인들이 권력구조에 있어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1867년 제정 러시아의 투르케니스탄 총독부로의 편입과 그로 인한 유럽식 교육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유입된 역사적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1920년대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공화국이 창설되는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당시 타지키스탄의 이주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부하라 칸국의 남부 지역도 편입되어 타지크 인들의 수는 증가했으나, 이들 중 소비에트 관리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는 거의 없었던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에트 전 시기에 걸쳐 레닌아바드 인들은 모든 권력의 최고 위치를 점유한 상태에서, 자신의 사회로부터 인재 등용과 교체를 이루어 나갔다. 그러나 1991년 독립과 함께 모스크바의 지지는 소멸되었고, 이들은 엄격한 선거제도를 통해 겨우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카라제긴 인, 쿨랍 인 그리고 파미르 인들로 대표되는 타지키스탄 남부 지역으로부터도 소외된 채 아웃사이드의 신분으로 변모해 갔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의 상황은 1992년 5월 내전으로 비화해 5년간 지속되었다. 내전 기간 동안 권력을 장악한 진영은 러시아와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 입어 상대진영과의 협의에 들어갔으며, 1997년 6월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내재된 민족적 지역 간 그리고 종교적 갈등은 타지키스탄을 대표할 수 있는 통일된 정체성 확립과 그 모색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존하고 있는 타지키스탄 내 민족, 지역 및 종교 갈등 문제를 러시아의 시각, 즉 러시아 연구물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한때는 정복국가로써 현재는 유라시아 통합체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또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역사적 영향과 요인을 제공한 근간을 이해함은 민족정체성 전개과정을 파악하는 작업의 가장 근원적 사항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²⁾

1) Дубовицкий В. Особенности этнической и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Таджикистан. http://cge.eurasia.org/sng_5.shtml 2011년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타지키스탄 인구는 6,976,958명 (www.google.co.kr/publicdata).

II. 타지키스탄의 민족적 지역 집단과 종교

1. 민족적 지역 집단

타지키스탄 내의 민족간 그리고 종교적 관계의 전개는 오랜 역사적 근원을 지닌 정치적 투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주의를 배제하고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혁명 전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민족적 공통성이 아닌 심한 이질감을 나타내는 지역적 전통, 즉 영토적, 문명적 그리고 종교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존재했다. 1924년의 영토와 민족적 경계구획으로 인해 기존에 코칸드 한에 속해 있던 투르키스탄 공화국의 영토, 파미르 동부지역, 쿨랍, 발드쥬안, 다르바즈, 카라테긴 등의 영토가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편입되었다.

소비에트 시절 ‘단일 사회주의 민족’이라는 슬로건 하에 타지크인의 통일된 경제체제와 지역 집단 결속강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지크 공동체의 사회뿐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다양성에 기인한 심오한 지역적 구분은 극복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와 관련된 집단 간의 이질감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였으며, 결국 타지키스탄의 사회층은 다양한 형태와 제도로 구분되었다.

자본주의 이전단계의 타지키스탄 농민사회는 ‘농촌 문화’와 개인적 인식이나 도덕관이 결여된 다양한 형태의 인식의 신화체계와 관련된 전통 등의 우세를 나타냈다.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의 타지키스탄 사회구조의 건설에 있어 특이할 점은 ‘아브로드(авлод)’³⁾의 복원이다. 아브로드는 법, 경제, 종교-문화와 사상 및 지역적 메커니즘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복합적인 모든 수단을 점유한다. 따라서 아브로드는 자신의 혈족을 상대로 작은 국가에 해당되며 자주성을 확보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역사의 지정학적 체제 내로 편입되어 근대화 과정이 지속되는 동안 아브로드는 심각한 고난을 참아내며, 타지키스탄 내의 타지크와 우즈벡 인의 사회적 생활 속에서의 자신의 의미와 형태를 보존해왔다. 이 때문에 근대화 과정에서 축적된 개인주의 성향과 인식은 혈족적 감정을 배제되지 않았으며, 과도기적 사회에 적합한 다층적이며 비모순적인 집성물을 창조해 낼 수 있었다.

1996년 연구센터 ‘샤르크(Шарк)’와 ‘국제선거재단(IFES)’이 공동으로 실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설문 응답자 중 68.3%가 자신을 아브로드의 구성원으로 간주했다. 이를 지역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쿨랍 지역은 82.2%, 고르노-바다흐산 자치주와 쿠르간-튜빈스크 지구 78%, 공화국 관할지역 75%, 소그드 주 55%, 수도 두산베 42.4%의 성인이 자신이 아브로드 구성원임을 인정했다.

1992년부터 1997년의 내전기간에는 공화국 관할지역 출신이 아브로드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표출했다. 이는 모든 내전의 잔혹성을 고려해볼 때, 외국과의 전쟁 상황과는 달리 적대자의 심리적 보호성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날 것이기에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

2) 분석의 연구물로 사용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으며, 본고는 연구초기 단계이며 완성본이 아님을 밝혀 둔다.

O.X. Шарафиева, РОЛЬ РЕГИОНАЛЬНЫХ КЛАНОВ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ТАДЖИКИСТАНА. <http://cyberleninka.ru/article/n/rol-regionalnyh-klanov-vo-vnutrenney-politike-tadzhikistana>; Олимов М.А. Об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и вероятности межэтнических конфликтов. http://www.ca-c.org/datarus/st_12_olimov.s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9.01.2008); Дубовицкий В. Особенности этнической и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Таджикистан. http://cge.evrasia.org/sng_5.shtml

3) 아브로드(авлод)는 생존 또는 사망한 부계의 친족으로 구성된 종족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의 운명과 이해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참조. В. И. Бушков. Таджикский авлод тысячелетия спустя... — Восток. 1991, № 5.

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 사회의 아브로드 구조는 적대적 민족의 근원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민족 간의 갈등에 있어서 극단적인 잔혹성과 유혈성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혈연적인 결합은 정치적 측면에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동조자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표하게 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친척, 즉 아브로드 구성원과 함께 사상적 동지에 대항하여 전투를 하게 만들기도 한다.

타지키스탄 내전 기간에 사회적 유기체, 즉 아브로드의 구성원은 민족 간 갈등의 실질적 참가자였으며, 그들의 지도자는 갈등의 발전과정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했다. 내전 기간 동안 혈연 및 토지적 관계로 인해 긴밀하게 결속된 그룹과 그러한 형태의 그룹 간의 동맹이 형성되었다. 이 그룹들은 타지키스탄야당연합(Объединенной таджикской оппозиции) 또는 정부군에 대항하는 무장세력의 핵심이 되기도 했다.

타지키스탄 전통 사회 체계인 아브로드를 이어 지리적 특징에 의한 민족의 특이한 분리현상도 타지키스탄 통합 또는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0여 년 사이에 타지키스탄 내의 전통사회, 즉 아브로드 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그 중 특이할 만한 사항은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전이되는 전통체계의 파괴이다. 마할랴(махалля)와 키실라크(кишлак) 등에서의 남성위주 연대는 현재 아브로드 체계가 아닌 남성들의 연대나 공동체의 지도자의 영향력 하에서 집단을 빠르게 결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한 자의 연령이나 전문성 등에 의거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집단은 엄격한 원칙, 연대위탁 등의 형태로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굳게 결속되어 있다. 즉 구체제인 아브로드의 변화된 형태가 타지키스탄 내의 무장집단 또는 ‘인민전선’과 같은 반정부 세력형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 민족과 지역 간의 모순이나 갈등이 심화되거나 폭발될 경우 이러한 남성위주의 연대는 단시간 내에 지도자에 예속된 정체성을 보유한 무장집단을 결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 타지키스탄 사회의 하부로부터 상부에 이르는 모든 권력집단의 성격을 특징 질수 있는 인식의 신화체계를 들 수 있다. 이는 이성적인 사고, 표상 또는 확신에 근거하지 않는 사고체계로써 중앙아시아의 포스트 소비에트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경우에 있어 이의 현상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정치행위와 특히 언론 매체를 통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상기 언급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타지키스탄 사회를 결정짓는 특징으로 내전(1992-1997년)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지역주의를 거론할 수 있다. 잘 알고 있듯이 타지키스탄 국민은 다양한 사회와 정치적 집단과 경제적 잠재성을 보유한 여러 국가체제를 거쳐 형성되었다. 이를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 타지키스탄 북부지역: 레닌아바드 주

이 지역은 공화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발전된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으며, 농업과 특히 목화재배를 주로 하는 평원지대이다. 이 지역의 산업활동은 혁명 이전부터 유지되어 왔으며, 특히 소비에트 시대에는 막대한 예산 투자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군수산업을 제외한 산업의 주요 노동원과 자원은 지역에서 충당되어짐으로써 단일 경제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지역 출신들이 공화국의 정치권을 지배해왔다. 레닌아바드 주의 정치문화 전통은 소비에트 정치문화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의 원천은 아브로드체제가 보전되어 있는 콜호즈 또는 소브호즈 시스템과 연결된 경공업산업의 연대였다. 이러한 사회 체제에 대해 일부 언론가들은 ‘소비에트 봉건주의(советский феодализм)’라는 명칭을 부여했다.⁴⁾

4) Олимов М.А. Об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и вероятности межэтнически

<그림 1> 타지키스탄 지도



출처: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war/tajikistan.htm>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주: 1. 소그드 주(Sughd, 구 레닌아바드 주로 2004년 소그드 주로 개명), 2. 공화국 관할지역, 3. 하트론(구 클롭 주, kuliab), 4. 쿠히스토니 바다흐손 자치주(고르노 바다흐산 자치주)

타지키스탄 북부지역의 ‘소비에트 봉건주의’는 다른 지역과는 시장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공업 상품의 활발한 거래활동은 레닌아바드 인의 삶의 근원이자 개인주의 성향의 발전과 아브로드로부터의 구속 약화 등의 결과를 창출해, 이들의 성향을 실용주의와 협소한 공리주의적 문제 해결 입장이 강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레닌아바드 인들은 공화국의 통합이라는 과제해결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무능성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내전 기간과 그 후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에 이들이 보여준 많은 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공화국의 다른 지역들과는 특수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지속적으로 시도).⁵⁾

레닌아바드 인들의 정치적 목표는 엄격한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와 사적 기업의 자유,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개선 등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는 인권 상의 자유와는 상이한 개념으로 개인주의의 거부, 공동체의 권위와 가부장제를 토대로 하는 공동체적 메커니즘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는 분봉적 예측상태인 봉건주의 후기의 모습이 이 지역에 확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사항으로 지역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닌아바드 인의 정치적 목표와 역할은 급속하게 변화했다.

x конфликтов. http://www.ca-c.org/datarus/st_12_olimov.s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9.01.2008).

5) В. И. Бушков, Д. В. Микульский.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Таджикистане: январь 1992 г.— Институт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РАН.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прикладной и неотложной этнологии. Док. № 26, сер. А.

<표 2> 타지크 사회주의 공화국의 공산당 제1서기

성명	임기	출생지
시린쇼 쇼테무르	1929-1930년	고르노-바다흐산
미르조도부드 구세이노프	1930-1933년	바쿠
그리고리 브로이도	1933-1934년	리투아니아
수렌 샤둔츠	1934-1936년	러시아
우룬보이 우시투로프	1936-1937년	우즈베키스탄
드미트리 프로토포포프	1937-1946년	러시아
보보존 가푸로프	1946-1956년	레닌아바드
투르순 울자바예프	1956-1961년	레닌아바드
자보르 라슬로프	1961-1982년	레닌아바드
라흐몬 나비예프	1982-1985년	레닌아바드
카호르 마흐카모프	1985-1991년	레닌아바드

출처: 성동기, “타지키스탄의 국가건설 실패에 관한 다면적 분석: 내전과 《포린 폴리시》의 실패 국가지수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2012, 한울), p. 284.

소비에트 시대에 있어 권력 장악은 모든 것의 획득을 의미했으며, 공화국 내에서 지배적 입장에 있었던 타지키스탄의 북부지역 출신들은 상위직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거주했다.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와 함께 레닌아바드인들의 역할에 변화가 왔다. 그들에게 있어 비즈니스는 더욱 매력적인 사항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제 이전과 같이 공화국의 중앙이나 남부지역에서의 기업활동은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 타지키스탄 북부지역과 나머지 지역과의 적대감으로 인해 북부지역은 점점 소외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북부인들의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으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전시기 초반 북부지역 엘리트인 당시 국무장관 압둘라자노프(A. Абдулладжанов)와 주 평의회 의장 하미도프(A. Хамидов)의 불화가 발생했으며, 이는 공화국 내에서 통합을 주도하고 지배적 입장을 보전하자는 측과 두산베 정부의 의지 하의 예측에서 벗어나 사적 이니셔티브와 시장의 자유가 보장되는 형태의 부분적 독립을 구축하자는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었다.

적어도 레닌아바드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조건 하에 가난한 남쪽과의 통합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투자활동이 축소되고 일정의 조정기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남쪽 역시 근 시일 내 가공산업에 대한 레닌아바드인들의 대량의 개인 투자행위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사실일 것이다. 사실, 현재 투자에 대해 남쪽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원료 정도이다. 그러나 원료의 대부분은 전략적 대상일 뿐 아니라, 판매에 있어서도 주로 국가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남쪽이 북쪽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내놓는 일은 현재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 북쪽과 남쪽 지역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⁶⁾

2) 파미르 지역

파미르 지역에서는 북부지역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파미르인들의 전통적인 정치문화는 자연 경제체제와 선출된 지도자의 권위 하에 존재하는 종족 공동체의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파미르인들은 타지키스탄과 관계에 있어 민족과 종교적 측면에서 항상 특이성을 유지해 왔다. 그들은 특별한 관습과 전통, 가치관 및 정신세계를 보유한 소수민족들의 집성체로 이루어졌다. 그 중 가장 특별한 차이점은 언어와 종교 영역에서 나타난다. 파미르인들의

6) Олимов М.А. Об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http://www.ca-c.org/datarus/st_12_olimov.s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9.01.2008).

언어는 동 이란지역, 타지크인들의 언어는 서 이란지역에 해당된다. 파미르인의 대표적 종교는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로 지역의 애니미즘과 전통종교들의 특성이 혼합되어 이슬람적 성격이 많이 희석된 상태이다. 내전 기간에 파미르인과 타지키스탄 이슬람부흥당과의 연대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들의 종교적 성향에 대해 과대평가를 내려서는 안될 것이다. 파미르 지성인들의 대부분은 이슬람의 세속주의적 정치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례로 파미르인들은 지난 시절의 수차례에 걸친 아프가니스탄의 침입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이슬람 원리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아프칸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소비에트 시기 파미르 지역은 삶의 여건이 향상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한 사회문화와 경제 체제의 본질적 변화도 체험했다. 혹독하고 냉엄한 기후와 자연 환경에 기인한 가계 및 경제활동의 습관이 사라지고, 인구증가는 산업, 농촌경제 및 여행발전을 동반했다. 이와 동시에 음주의 일상화, 좋은 교육과 경제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화국 내의 평원을 찾아 떠나는 파미르인들의 이주 증가현상도 발생했다.

지역사회의 심각한 경제 및 사회적 모순, 타지키스탄 내 다른 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파미르인들의 민족과 종교적 대립 등의 문제는 그들로 하여금, 정치적 투쟁을 비롯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정치적 투쟁과정 속에서 파미르인들의 부정적인 사회적 변형이 나타났다. 종족 공동체의 분해로 전통적 도덕관과 관습이 상실되어 갔으며, 이로 인한 청년세대들의 일탈행위도 발생했다. 파미르 지역을 통과해 키르기스스탄의 오쉬 또는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마약사업의 유통 채널이 형성되고, 무기밀매를 포함한 범죄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파미르인들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상거래를 배제했던 전통사회의 가치관과 인식이 약화됨에 따라 중개업에 종사하는 파미르인들이 증가하기고 했다. 종족 간 상호 긴밀한 관계의 형성과 상호 위탁체제를 토대로 하는 종족공동체의 특성은 파미르인들이 범죄조직을 형성하거나 참여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했다.

내전이 진행되는 동안 파미르인들의 부정적 행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여하튼 내전의 종료 시점에서 파미르인들과 타지크인들과의 관계는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부정적 관계는 단지 쿨랍, 쿠르간 지역 뿐 아니라, 기존에 동맹관계에 있던 카라제긴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이는 파미르인들 스스로가 공화국 내의 다른 지역들과의 거리를 두고자 했던 점도 작용했다. 과거에 비밀스럽게 진행되던 그들의 민족 정체성 회복 노력이 이제는 표면 위로 부상했다. 파미르인들 상당수가 타지키스탄으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파미르 지도부와 원시안적 성향의 주민들은 분리주장이 비현실적이기에 공화국의 구성체로 존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이와 같은 인식은 2012년 9월 4일 라흐몬 대통령의 파미르의 호로그 지역을 방문한 이후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⁷⁾. 과거 파미르인들이 러시아로 유인된 점이 있었다면, 이제 이들은 스스로 방향성을 러시아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증대되고 있다. 파미르인 스스로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마약제조업자들과 러시아의 대규모 마약시장 간의 중개업을 포함한 무한한 러시아 시장을 겨냥한 국경무역 등과 같은 자신들의 사업의 성격에 대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쿨랍 지역

쿨랍 지역에서는 종족공동체와 콜호즈-소브호즈 공동체의 집성체로 구성된 혼합적 시스템이 나타나고 있다. 일정부분에 있어 레닌아바드 지역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상품과 화폐경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쿨랍 지역의 공동체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 지역을 지배하

7) 참고. <http://rus.ozodi.org/content/article/24697484.html>

고 있는 농촌경제 체제를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호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에 도시 지역으로부터의 원거리성은 상품경제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와 소비촉진에 부적합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지역의 공동체적 생활제도와 전통성 보전에 있어 적합한 조건을 부여해왔다. 소비에트 시기 지역의 공동체는 기존의 무제한적인 공동체 지도자의 권위가 보장되는 상황 하에 콜호즈 체계로 편입되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공동체를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담보로 인식하고, 그 내부의 연대와 확실한 결속을 지향하는 지도자의 권위적 특성에 힘입어 공동체가 유지되는 형태의 이데올로기 메커니즘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지역의 대표산업인 목화산업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공동체 존속 하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혼합된 형태의 권력 시스템은 전통적인 권력 관계와 일정부분 상응하는 점이 있다. 회교법을 우선시 하는 이슬람 종교는 공동체의 하부문화의 유기적 부분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점에서 쿨랍 인들은 어렵지 않게 소비에트 질서와 공산당의 지지자가 될 수 있었다.⁸⁾

현재 쿨랍 인들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정치 엘리트들의 비밀스러운 투쟁에서의 라흐몬 대통령의 승리로 인해 쿨랍 인들의 분위기는 고무되었다. 승리자의 입장에서 이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타지키스탄 남부와 공화국관할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쿨랍 지역에 대해 지지를 표하지 않는 레닌아바드 지역 엘리트와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쿨랍 인들은 공화국 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내전 후 쿨랍 지역은 이를 실현할 만한 가능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태로운 지역의 경제 상황, 질적으로 낮은 노동자원,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의 지성인 계층, 질과 양에 있어 적은 엘리트 등 이와 같은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공화국 내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발전 단계에서 쿨랍 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원료 정도에 국한된다. 국가자본이 분산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쿨랍 지역의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원 그리고 건설 능력과 연계된 전문가들의 존재 또한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그 해결책으로 쿨랍 인들이 권력 획득의 승리자적 입장에서 과거에 존재했던 관계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남부지역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 체제와 그에 관련된 결정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첫째, 자치 또는 분리를 주장하는 다른 지역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둘째, 쿨랍 인들과의 승리자 진영을 형성했던 기싸르 인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기싸르 지역 내에는 기싸르 주의 창설과 관련된 다양한 진영이 형성되어 있다.⁹⁾ 셋째, 쿨랍 인들의 중앙집권체제 내의 주도권 확보노력은 민족 간 갈등이나 충돌 뿐 아니라 공화국의 경찰 체제를 강화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미래의 지역 간 갈등이 발생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쿨랍 지역과 달리 카라췌긴과 다르바즈는 더욱 취약한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혁명이전까지 이 지역 출신들은 돈벌이를 찾아 대도시를 순회하고 다녔다. 이들은 타쉬켄트, 페르간, 코칸드 등과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도시에서 위치한 공장에서 노동을 한 후 집으로 귀환할 때

8) Олимов М.А. Об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http://www.ca-c.org/datarus/st_12_olimov.s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9.01.2008).

9) 기싸르 지역은 공화국관할지역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통합과 정치투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그 이유는 수적으로 매우 열세이며, 이 지역 대표적 민족이 타지키스탄 공화국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백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우즈베크 계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싸르 인들은 두산베 시장 직과 같은 공화국 내에서 주요한 지위가 부여되는 점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Олимов М.А. Об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http://www.ca-c.org/datarus/st_12_olimov.s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9.01.2008).

는 새로운 물건, 사상 및 요구 등을 가지고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종족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라췌긴과 다르바즈 지역에서는 쿨랍 과 파미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품 및 화폐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이들은 대도시의 삶을 통해 이슬람교리에 대한 이해와 신념을 확고히 정립해 나갔다.

혁명 후 권력에 의한 이주정책은 타지키스탄 산악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지역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산악인들이 바흐쉬카야 분지(Вахшская долина)로 강제 이주됐다. 새로운 장소에서의 이들의 삶의 영위는 결국 전통적인 삶의 양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이들 사이에는 ‘뿌리 없는 이주민의 감정’이 자리 잡게 됐다. 카라췌긴과 파미르 산악지대 출신의 이주자들의 특성은 강하게 결속된 집단 단위로의 이주, 삶의 조건 변화로 인해 발생된 피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전통적 사회 및 경제적 형태의 보존과 그에 따른 저항 등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권력과 그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소원과 내부적 적대감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이주자들은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국가의 강력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적대적 입장을 전개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주지에서의 적응방법을 모색해 나갔다. 즉 종교적 신념과 유사한 형태로 필연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이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정주지 내에서 그에 대한 저항의 근거지가 형성된 것이다. 더 나아가 여기에 매우 복잡한 정치적 하부구조의 상호관계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카라췌긴의 하부문화와 지배적인 북부 타지크인의 정치문화와의 충돌은 소비에트 정치 문화의 파종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이주민들이 카라췌긴으로의 복귀는 공화국에 반대하는 정서를 더욱 확산시켜 나갔다. 이곳에는 국가와 권력의 통제 밖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정주지들이 생성되었다. 당시 국가기관의 관심은 목화산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집중되어 있었기에, 가름(Гарм) 지역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주적 입장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가름 지역의 일부 정주지 내에서는 국가기관과 권력의 부재를 대체하는 개별적인 권력 구조가 형성되기도 했다.

바흐쉬카야 분지의 재이주 사회 내에서는 다른 과정이 진행되었다. 지배적 역할을 나타내는 소비에트-레닌아바드적 정치문화 속에서 전통적인 권력구조가 상존하는 이중적 정치인식이 형성되었다.¹⁰⁾ 이중적 정치인식 하에서 전통적 권력구조와 국가기관의 권력은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권력의 신성적 요소가 해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내전 기간을 통해 나타난 많은 사항들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인구 측면에서 타지키스탄 내에서의 카라췌긴 민족집단의 수적 우세와 인텔리겐치아의 수도로의 집중 현상은 권력 구조에 있어서 지역적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현재 카라췌긴 민족집단은 민족적 완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내전의 주요한 패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가장 큰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의 탈주자 그룹과 적지 않은 수의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로 떠난 집단 등에 의해 카라췌긴 민족 집단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심각한 인적 손실, 다수의 소통이 단절된 가족,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가난 등으로 인해 카라췌긴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지도자와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 개입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카라췌긴 지역에서는 약탈, 전횡과 폭력에 관련된 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군은 주민들로부터 대체적으로 환대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 하에 모인 이방인들로 구성된 자위적 방위대가 영토를 지키고 있는 다르바즈 지역에서는 이들에 대해 주민들이 적대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O. Balandier. *Anthropologie politique*, 1976, p. 187. (опубликовано в журнале “Восток”, № 2, 1994).

내전을 통해 형성된 패배주의적 성향이 강한 집단성과 다양한 지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민족의 분산 등으로 인해 카라쎄긴인들의 정치적 행위는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처에서 자신들의 권력구조로부터 이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민족성을 고려해 본다면,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카라쎄긴인들의 불만은 표면으로 분출되어 캐스팅보트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들 민족집단의 위험성 폭발 가능성은 대규모의 디아스포라의 존재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주자들의 집단은 타지키스탄의 긴장을 초래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지속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측은 대량의 국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이들 탈주자들을 붙잡아 두고자 한다.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 볼 때, 타지키스탄과의 국경지대에서의 긴장의 진원지 존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아프칸 내전에서 패배한 자들이 재무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둘째, 이와 같은 갈등은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칸 민중을 선동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셋째, 지역 내 긴장고조는 아프가니스탄이 국제사회와의 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 증대 등. 이러한 이유로 탈주자들은 타지키스탄에 있어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타지키스탄 입장에서 이들의 고향으로의 귀환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부의 엘리트 계층의 교체 상황 속에서 카라쎄긴인들의 오늘 날의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복잡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으로 하틀론 주의 쿠르간-튜빈스크 지구(Курган-Тюбинская зона)와 두산베 지역이 있다. 특히 두산베 지역은 타지키스탄 내의 제민족 대표들의 권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상호작용과 경쟁 및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치 폭발직전의 화산구와 같은 지역인 동시에 민족적 불완전성의 복합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는 상당부분에 있어 다중적 경제 체제의 형성에 기인한다. 이 지역의 대규모 산업시설은 해당 지역의 노동자원과 전통에 의해 근원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지역 산업체와 직접적 연계를 맺고 있지도 않다.

이와 같은 왜곡된 현상은 모순 발생과 심화의 배양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는 사항으로 내전은 쿠르간-튜빈스크 지구와 기싸르 분지에서 가장 잔혹한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모순점은 해결되지 않았으며, 현재의 평온은 오로지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지역주의는 타지키스탄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외면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공화국 대표성의 얇은 층은 각 지역의 가치성, 동기부여, 역할적 기대감 및 전형적 행동양식 등과 같은 전통적 문화의 두꺼운 층을 살짝 덮어 놓고 있는 상태로 인식된다. 각 지역의 하부문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 인식은 민족적,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지역민족주의적 성격에 부합된다. 이는 타지키스탄 내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민족주의적 사상을 토대로 한 국민의 통합과 주권 국가 건설의 불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정체성 확립과정에서 오로지 지역주의만을 고려하게 된다면, 민족주의와 종교적 모순과 갈등을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주의와 종교적 갈등의 문제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로 인해 분절되었던 자신의 장소를 모색해나가는 계기가 제공되었다. 타지키스탄 공화국 내에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어도 3개의 지역이 존재하며, 이 지역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타지크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상당수는 공화국 국경 너머(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에 위치한 외부 집단에 방향성을 두고 정치적 통합 행위의 토대를 준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

향이 내전의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했다.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타지키스탄 내의 민족 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요소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종교적 상황

이슬람 종교의 율법학자를 지도자로 하는 자주적인 종교적 지배체제의 형성은 타지키스탄 내에서 회교법 하의 대중적 신앙, 관습, 도덕관 및 가치 등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는 대중적(세속적) 이슬람주의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민족적 구전문화를 특성으로 하는 내부의 갈등이나 모순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이슬람의 형태는 소비에트 시대를 거쳐 형성되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수니파의 전통에 기반을 둔 대중적 이슬람주의는 권력체제에서의 세속과 종교적 결합을 거부하며, 타지키스탄의 북부 지역과 쿨랍 지역의 정치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소비에트 문화의 공동체성 보존을 지향하는 동시에 집단 내 대중의 과학과 이성적 사고의 표출과 발전 동기 부여를 지양하는 과거 소비에트 시대의 엘리트 출신인 이들 지역의 대표자들과 인텔리겐치아는 이러한 형태의 이슬람주의를 지지했다. 타지키스탄 내의 대중적 이슬람주의의 존속은 기존의 소비에트 문화의 공동체성유지와 발전의 서구화과정의 문제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근본주의의 침투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중적 이슬람주의가 거의 완벽하게 타지키스탄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를 입증해 줄 만한 근거로 내전이 시작된 1992년 5월 실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93%가 타지키스탄 내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나, 64.2%의 응답자는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를 수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이슬람 종교가 타지키스탄인들의 민족문화와 역사에 있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에트 시대 이후의 이와 같은 이슬람주의의 부흥 요인으로는 지배적 위치에 있던 러시아인들의 영향력 상실, 민족적 사고의 부재 하에서의 국가정체성 확립의 근거 모색, 종교적 도움으로 인한 공동체적 사상의 복원 시도, 종교적 감정이나 정서 강화의 요인이 된 내전 전개 등을 거론할 수 있다.¹¹⁾

권력구조에 접근하는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민족적 지역집단은 카라췌긴인들이었으며, 이들은 1970년대부터 자신들의 통합의 항의 표시로 이슬람주의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발전되었다. 1979년부터 1989년 사이의 아프간 전쟁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기울였던 국제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체계가 형성되고, 한때 이들의 거주지역이 이슬람 근본주의인 와하비즘(Wahabism)의 지하 조직이 활동하는 무대가 되기도 했다. 1991년 10월 타지키스탄 내에 공식적으로 타지키스탄이슬람부흥당(Исламская партия возрождения Таджикистана)이 창당됐다. 카라췌긴 인과는 달리 종교성향이 약한 쿨랍 인들은 내무부 기관과 권력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파미르 인들은 이중적 입장을 표출했다. 이슬람의 시아파에 속하는 이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타지키스탄인을 이단자로 간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르노-바다흐산 자치구에 거주하는 이들의 종교성은 그리 강한 편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파미르 인은 내전 기간과 그 이후 이루어진 개혁기간에 ‘세속적인 부흥’ 조직에 가담하기도 했다.¹²⁾

독립을 획득한 이후 타지키스탄 내 권력투쟁 과정을 통하여 민족적 지역집단은 크게 두 개의

11) Олимов М.А. Об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http://www.ca-c.org/datarus/st_12_olimov.s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9.01.2008).

12) 이들이 참여했던 조직으로는 민중운동 ‘로스토헤즈(Ростохез)’과 사회단체 ‘라디 바다흐산(Лали Бадахшан)’, ‘타지키스탄민주당(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аджикистана)’ 등이 있다.

적대적 블록을 형성했다.

첫째, 카라제긴과 파미르 인을 중심으로 한 ‘민주적 이슬람주의자’ 진영.

둘째, 쿨랍, 레닌아바드와 기싸르 인을 중심으로 하고 타지키스탄 내 우즈벡 디아스포라와 소수민족이 가담한 ‘세속적 공산주의자’ 진영.¹³⁾

타지키스탄의 가장 긴 국경, 약 1,030km에 해당하는 길이의 경계에 접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영향과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건설의 위협이 증가하자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대응이 있었다. 그 결과로 러시아 측은 201 자돈화 사단과 국경수비대를 파견했다. 이는 재정적,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목적으로 한 ‘세속적 공산주의자’ 진영의 요구를 근거로 실현되었다. 결과적으로 내전 초기 단계인 1992년 5월과 12월 사이 이들 진영은 ‘인민전선’이라는 명명 하에 연대를 형성하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카라제긴과 공화국 지역의 ‘민주적 이슬람주의자’ 진영의 결속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십만 명을 상회)는 아프가니스탄 남부지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1997년 6월 내전이 종료되기까지 타지키스탄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커다란 인명피해와 대량의 인적자원의 국외유출, 경제구조의 붕괴, 공화국 남부지역의 산업시설 파괴, 국가자본 축적시스템의 붕괴, 농촌경제의 침체 등 국가 전반에 걸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도시화와 서구화 등 새로운 사회관계와 제도에 매혹된 신세대의 출현과 증가, 비밀스럽게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산악인들의 반정부적 정서의 존재 그리고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경작지가 적은 지역의 농민층의 존재 등의 사향은 이슬람 근본주의 확산의 영양공급원이 될 수도 있다. 근 시일 내에 근본주의가 대규모로 확산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 내에 근본주의는 실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상황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폭되어 국내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타지키스탄 내 여러 민족과 지역적 모순과 갈등으로 인한 통일된 민족적 이데올로기의 부재, 즉 국가정체성 확립의 어려움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 고려된 상태에서의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건설의 불가능성은 타지키스탄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정착과 인권이 보장되는 합법성의 확립 등과 같은 국가 존립의 문제해결의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3) Дубовицкий В. Особенности этнической и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Таджикистан. http://cge.eurasia.org/sng_5.shtml

<참고문헌>

- Balandier O. Anthropologie politique, 1976, p. 187. (опубликовано в журнале “Восток”, № 2, 1994).
- Бушков В. И. Таджикиский авлод тысячелетия спустя... — Восток. 1991, № 5.
- Бушков В. И., Микульский Д. В.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Таджикистане: январь 1992 г.— Институт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РАН.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прикладной и неотложной этнологии. Док. № 26, сер. А.
- Дубовицкий В. Особенности этнической и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Таджикистан. (http://cge.evrazia.org/sng_5.shtml)
- Олимов М.А. Об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и конфессиональной ситуации в Таджикистане и вероятности межэтнических конфликтов. (http://www.ca-c.org/datarus/st_12_olimov.shtml),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9.01.2008).
- Шарафиева О. Х. РОЛЬ РЕГИОНАЛЬНЫХ КЛАНОВ ВО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ТАДЖИКИСТАНА. (<http://cyberleninka.ru/article/n/rol-regionalnyh-klanov-vo-vnutrenney-politike-tadzhikistana>)
- 성동기, “타지키스탄의 국가건설 실패에 관한 다면적 분석: 내전과 《포린 폴리시》의 실패 국가지수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2012, 한울).

www.google.co.kr/publicdata

<http://rus.ozodi.org/content/article/24697484.html>

